

고(故)

성자 파이시이 스비아토고레츠

말씀

제2권

영적 각성

목차:

번역자의 서문

복자 스킨모나흐 파이시이 스비아토고레츠는 1924년 카파도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수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950년에 수도사가 되어 주로 아토스 산에서, 또한 코니키의 스토크리온 수도원과 시나이 산에서 수행했습니다. 탁월한 금욕적 수행을 실천했으며,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총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다. 신성한 소명을 받은 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를 제공했으며, 현대의 가장 은총이 넘치고 분별력 있는 장로 중 한 분이었다. 1994년 6월 29일/7월 12일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다. 테살로니키에서 멀지 않은 수로티 마을에 있는, 그분이 설립한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요한 신학자 여자 수도원에 안장되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스타르체 파이시의 『말씀』 첫 세 권이 그리스어로 출간되었다. 『말씀』의 러시아어 번역은 제2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그 주제가 오늘날 특히 시의적절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최근 발생한 불안한 사건들은 파이시이 장로가 말씀하신 내용의 타당성과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러시아 사람들이 무관심과 낙담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돕고, 그들을 다시 이 죄악된 잠 속으로 빠뜨리려는 교활한 시도에 맞서는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권 서문에서 지극히 존경받는 이구메냐 필로페야는 파이시이 장로의 『말씀』 출판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장로는 1967년부터 자신의 복된 서거 때까지 요한 신학자 수도원을 돌보셨습니다. 수도원에는 그의 영적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수녀들에게 보낸 편지들(전체 수녀들에게 보낸 것과 각 수녀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것), 그분과의 공동 대화에 대한 녹음 및 속기 기록, 그리고 수녀장님의 축복을 받아 장로님과 나누는 각 개인 면담 직후 그 내용을 직접 기록했던 수녀들의 기록 등이 그것입니다. 이 영적 유산은 체계화되어 현재 ‘성자 파이시이 스비아토고르츠의 말씀’ 시리즈로 묶인 별도의 주제별 권으로 출간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 자료집은 성자 파이시이가 생전에 집필한, 이전에 출간된 책들의 발췌문으로 보완될 수 있다(본 권 말미의 목록 참조).

이처럼 그리스어판에서는 다음 권이 이전 권의 연속이 아니라 독립된 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어 번역본 제2권을 우선적으로 출간하더라도 독자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만간 파이시이 장로의 『말씀』 제1권과 그 다음으로 제3권의 러시아어 번역본이 출간될 것이며, 그 후 러시아어판 각 권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¹

파이지스 장로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 넘치고, 비유가 풍부하며, 방언적 표현, 관용구, 속담 등이 넘쳐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들을 러시아어로 문체적으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집필할 때 서신체, 성인전, 구두 대화 등 다양한 장르의 발췌문이 하나의 맥락 속에 자주 포함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번역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는 추가적인 난관을 초래했습니다. 번역자는 본 서적의 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스타르츠 파이시의 영적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 러시아 독자들의 열린 마음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자들...” (마가복음 4:20). 아멘.

¹ 현재 ‘파이지스 장로의 말씀’ 제1, 제3, 제4, 제5권이 출간되었다. 제6권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 편집자 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도리메돈트 수도사. 아폰 산. 그리스도의 부활절, 2001년.

서문

1980년부터 스타레츠 파이시이 스승님께서서는 다가올 어려운 시절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많은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우려를 일깨워, 우리가 영적 투쟁을 강화하고, 스승님께서 보시기에 수도 생활의 깊은 곳까지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무관심의 기조에 맞서도록 하려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대화를 통해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연약함을 이겨내어, 우리의 기도에 힘이 깃들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약점 때문에,” 그가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도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통신병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통신병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전사들은 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고통과 사랑으로 현대인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복되이 잠드신 스승님의 『말씀』 제1권 서문에서는, 스승님 파이시이 스비아토고르츠의 『말씀』 모음집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체계화되었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의 본 『말씀』 제2권에는 오늘날의 현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장로님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끊임 없는 경계를 촉구하며, 우리가 어쩌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비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장로가 자주 말하던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하나씩 차례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 혼란이 팽배할 것입니다.”

본 제2권은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일반적인 무관심과 무책임함에 대해 다루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자기 수양, 신중한 행동, 신앙 고백, 기도를 통해 타인을 돕는 것임을 강조한다. “저는 현수막을 들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장로는 말합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파이시 신부님은 독자를 단 하나의 위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영적 실천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하며, 그 후 각자에게는 자신의 힘과 열망에 맞는 투쟁이 남게 되는데, 이는 지상의 낙원,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시간적으로 짧을 반그리스도의 독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세례 이후 다시 한 번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위업을 이루며,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줄 것이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회는 성인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우리 시대에 살며 위업을 이루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점은 인정합시다.” 이처럼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용기와 희생 정신을 특별히 길러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의 섭리, 믿음, 하느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도움에 대해 다룬 이 책의 네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악을 물리치기 위한 “강력한 무기” 인 진심 어린 기도의 필요성과 힘이 강조된다. 장로는 수도사들에게 전쟁 시기의 군인들이 갖추는 것과 같은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 것을 촉구한다. 그는 수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로 세상을 돕고, 수도 생활의 진정한 정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며, 다가올 세대를 위한 씨앗을 보존하도록 독려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삶의 가장 깊은 의미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고, 회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장로의 말과 행동의 잣대는 언제나 그렇듯 이성적인 판단이다. 다음 장들에서 우리는 한 경우에는 파이시이 신부님이 아무리 조급한 순례자들이 그의 방 문짝을 망치로 두드리며 “기도 그만하세요, 게론다,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을 거예요!”라고 소리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반면, — 반면 다른 경우에는, 민중 시위에 그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세속으로 나가기도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장로가 하느님을 향한 분노에 불타 신성모독에 맞서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신성모독자를 위해 묵묵히 기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책을 끝까지 주의 깊게 읽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장로님의 가르침에서 인용문을 사용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문맥에서 떼어내면 상대방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파이시이 신부님이 말씀하신 계기는 항상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질문이었으며, 스승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장로 파이시이를 알았던 이들은,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마음속에 솟아오르던 그 온화함을 기억합니다. 이는 장로님의 임무가 항상 악을 치유하는 것이지, 수치심으로 낙인찍는 것

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화 상대의 정욕을 수치스러운 기둥에 매달지 않고, 그로부터 영혼을 해방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의 똑같은 말이라도, 마음의 아픔과 대화 상대에 대한 사랑이라는 본래의 맥락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어쩌면 치유되지 않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위로와 안정감 대신, 그 말들은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로는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선이 선한 방식으로 나누어져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염려했다. 물론 그분은 진실을 말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지만, 분별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면 신성한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기도 하셨고, 앞으로 닥칠 끔찍한 사건들을 예고하셨지만, 그분의 태도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은 당신에게 부활절의 희망과 기쁨을 전해 주었지만, 그것은 희생 뒤에 따르는 기쁨이었고, 사람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의 신비로운 삶에 동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귀도, 고난도.” 장로님께서 평소처럼 밝고 생기 넘치는 어조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면의 ‘나’를 내던질 때, 그리스도께서 네 안으로 들어오신다.” 온전한 영적 삶의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으므로, 파이시 신부님은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위험 중 하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즉, 자기 안에 희생의 정신을 키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단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내적 삶이 없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독자 중 일부는 장로님이 이야기 속에서 자주 자신의 삶을 언급하고, 마치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사건들을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당혹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의 구두 발언을 글로 옮길 때, 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를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로는 장로님께서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수녀들에게 단편적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세부 사항을 곁들여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 줄 정보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에게서 “끌어내”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파이시이 장로님은 28년 동안 수도원을 영적으로 돌보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들 중 일부를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기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기대했던 영적 성장을 보지 못하자, 그는 매우 상심하여 때로는 “나는 모래에 비료를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의 가르침들이 출판되기 전에 이를 읽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모든 분들과, 장로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온전한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임을 자신의 말로 전해 주며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말씀이 이 책에 수록된 대로 우리에게 선한 염려를 붙여넣어,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며 악이 물러가고,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면 축일, 1999년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요한 신학자의 수도원 원장 필로페아 수녀와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 게론다, 왜 칼리바를 떠나 숲으로 가시나요?

— 칼리바에서 어디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저쪽에서, 다른 사람은 이쪽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 산비탈에서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그곳에 기도소, 레이더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름에 딱 맞는 곳이고, 나무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수도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 기쁨이자 양식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러 주세요!..

서문 (장로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안락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 게론다,²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게론다님?.. 그건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만연한 평온함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무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죽을 것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하고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정을 다해 이 일에 매진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금은 매우 복잡한 시기입니다. 재와 쓰레기, 무관심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날아가려면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사람들이 날뛰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 울타리를 허물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빌론의 혼란이 닥쳤습니다! 세 소년의 기도문³ 을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침묵하지 마소서...*”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일부 유럽의 병폐들이 나타나며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키프로스 출신의 한 가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보십시오—어디선가는 아버지가 딸과 결혼하고, 어디선가는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하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다람쥐처럼 잠만 자고 있습니다. 저는 피켓 시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으로부터 방어할지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평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의 방백들을 오리바와 지바, 제베야*

² 헤론다 –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경칭. – *번역자 주*

³ 단 2, 21,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소년의 노래를 참조하라. (여기 및 이하 모든 성경 인용은 슬라브어 성경을 따름.)

와 살만처럼 삼으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것으로 차지하리라’ 하였나이다.”⁴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엉망진창이라 백성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백성들은 마치 벌들 같다. 벌통을 두드리면 벌들이 밖으로 날아와 “우-우-우...” 하고 웅웅거리며, 흥분한 채 벌통 주위를 맴돈다. 그러고는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방향을 잡는다. 북풍이 불면 벌집으로 돌아가고, 남풍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와 같이, 때로는 “민족적 북풍”이, 때로는 “민족적 남풍”이 불어대는 백성들은, 가엾게도 머릿속이 헛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안에서 어떤 위안과 확신을 느낍니다. 올리브 나무는 어쩌면 말라버렸을지 몰라도, 새로운 싹을 틔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민족으로서 수많은 폭풍우를 겪었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닥칠 폭풍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 안에는 필요할 때를 대비해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잠시뿐입니다. [단지] 한 번의 폭풍우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는 매우 유리한 기회이며,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며,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신성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정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에 대한) 선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이는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절제된 것이 되게 합시다. 좀 더 영적으로 살고, 더 우애를 나누며,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과 아픔, 그리고 친절로 돕도록 합시다. 선한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⁴ 시편 82, 12-13. 사사기 7장과 8장을 참조하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지만, 많은 인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람들은 엉킨 실타래를 서둘러 풀려다 더 크게 얽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실타래를 풀어주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빗자루를 들으실 것입니다! 1830년, 성산에는 많은 터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비론 수도원에는 단 한 명의 수도사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수도사들은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어떤 이는 봉기를 돕기 위해 떠났습니다. 오직 한 명의 수도사만이 먼 곳에서 와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수도원 안팎은 무장한 터키인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불쌍한 수도사는 청소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그는 고통스럽게 성모님께 기도하던 중, 얼굴에서 빛이 나고 환하게 빛나는 한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모님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 그의 손에서 빗자루를 받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빗자루질을 잘 못하구나, 내가 직접 쓸게.” 그리고 쓸기 시작하시더니, 곧 제단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사흘 뒤 모든 터키인들이 떠났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하느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흘려 이물질들을 쫓아내듯이 내쫓으실 것입니다. 악마가 활동하지만, 하느님도 일하시며 악을 유익으로 바꾸어, 그로부터 선이 나오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타일이 깨지면 하느님께서 그 파편들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각자를 피고석에 앉혀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각자는 그분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선한 일에 기여한 이들은 상을 받을 것이며,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실 것이나, 우리 각자는 이 어려운 시절에 기도와 선행으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려 애쓰고 있으며, 믿음의 건물이 무너져 내리도록 조용히 돌 한 개씩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돌을 빼내고 파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악으로 몰아가는 자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곁에 있던 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역시 누군가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설득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 헤론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과도 같습니다...

— 나는 짐승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동물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큰 악을 저지를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은 가장 사나운 짐승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큰 악을 저지르죠. 강한 식초는 상한 포도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외의 인공적인 식초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 더 무서운 것은 마귀가 타락한 사람과 손잡을 때인데, 그때 그는 다른 이들에게 두 배의 악을 저지르며, 이는 육신의 생각이 육신과 손잡을 때 육신에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마귀가 그런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은 스스로 악을 선호하고 그 악을 내면에 품고 있어야 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이 타락의 주동자들은 [고의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수도원을 억압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회와 수도 생활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만 맞설 수 있습니다. 폭풍은 조금 더 거세져 통조림 캔과 쓰레기,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해안으로 밀어낼 것이지만, 그 후 상황은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맑은 보상을 받고, 다른 이들은 빛을 갠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게 될 것이지만, 물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⁵ 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무지했던 스무 해 전에 일어났더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굳건해졌다는 것ですよ.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사람이 스스로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⁶

옛날에는 경건한 수도사 중 누군가가 세상의 사정을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면, 그를 탑에 가두어야 했습니다.⁷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경건한 수도사가 세상에 만연한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상황

⁵ 1985년 6월에 발표됨. (이하 그리스어 판 편집자들의 주석은 별도 표기 없이 수록됨.)

⁶ 예레미야 48, 10.

⁷ 해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성산 수도원들의 높은 방어 시설.

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탐에 가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통치자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지금은 통치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족, 청년, 교회를 모두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많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나 다름없다. 국가가 신성한 법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정하는 법들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교회를 [신성한] 제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민족을 오만하게 대하면서도,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말하며 무관심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와 결별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니,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분리되기를 바랐던 것이다.⁸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권력을 장악하고 기독교가 승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교회와 수도원, 예술, 예배 규례 등을 갖춘 위대한 기독교 전통이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교회의 적들이 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해 신부들조차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위대한 성덕을 지니고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저는 그들의 발에 입맞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세속인들에게조차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도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⁹ 라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돕자

옛날에는 열 명 중 여섯 명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명은 절제했으며, 두 명은 무관심했지만, 심지어 무관심한 이들조차 마음속에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까

⁸ 참조: 디모데후서 2, 4.

⁹ 예레미야 48, 10.

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합니다. 그때,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영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일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많은 군중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사람들과 얹히지 않기 위해 사제가 된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주셨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번이나 저는 성모님께 조용하고 외진 곳을 찾아달라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채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성모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반면, 제 사소한 부탁들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오기 직전에도 하느님께서 제가 쉴 수 있도록 어떤 병으로 저를 침대에 묶어 두십니다. 그분은 제가 예전 기도에서 느꼈던 그 달콤함을 주지 않으시는데, 그 달콤함을 느꼈더라면 그때 기도와 헤어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무렵, 누군가 칼리바에 오면 나는 스스로를 억지로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¹⁰

그 칼리바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 살아가야 했죠. 안에서 시편을 읽고 있으면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요,”라고 말하면, “15분만요,”라고 하는데, 그들은 소리친다. “이봐, 신부님,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화내시진 않으실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잠시만 벗어나야 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면 끝입니다. 그때까지 해낸 게 전부죠. 오전 6시 반이나 7시가 되면, 마음 편히 지내려면 이미 저녁기도를 마쳐야 한다. “거룩한 영광의 아침 빛이여!” 여러분이 아침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저녁기도용 묵주를 다 돌리고 있다. 아침에 안티도르를 먹을 시간이 있다면 다행이고, 그 후에는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이 시체처럼 쓰러진다. 부활절이나

¹⁰ 장로가 겪은 극심한 영적 고뇌(그는 마치 따뜻한 곳에 놓인 촛불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끝에,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낮에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밤에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순례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장로는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기 위해 알 수 없는 곳으로 은둔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파나구다’ 수도실에 머물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부활 주간에도 아홉 번째 시간 기도와 삼일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¹¹ 할 수 있든 없든, 해내야만 한다. 어느 날,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들이 오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 아마도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 배가 출항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 칼리바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 나는 마치 그 당시 성 에피스티미아의 동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나이 같은 하루를 보냈구나!¹²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면, 나에게는 잔잔함이 찾아온다. 바다에 잔잔함이 찾아올 때면, 나에게는 폭풍이 몰아친다.

물론, 저는 조용한 곳으로 은둔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캘리포니아나 캐나다로 갈 수 있도록 여행 경비를 대주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오세요,”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이시하스티리아가 있습니다.”¹³ 낯선 곳에 가게 된다면,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할 것이고, 제 나름대로의 일과가 있을 것이며, 제가 원하는 대로 수도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대란 전쟁이 끝난 뒤에나 가능한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전쟁,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저는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 프리메이슨, 사탄 숭배자,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광신자, 무정부주의자, 미혹된 자들이 찾아와 그들의 미혹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게 보내는지; 어떤 이들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 뱀을 구멍에서 끌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방향에서, 얼마나 심하게 나를 압박하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내 입안에는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한 쓴맛이 가득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위로를 느낀다. 만약 내가 떠나면, 전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후퇴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배신으로 여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내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과연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수도원들을 돕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한 곳으로 향했지만, 는 다른 곳에 있게 되었고, 지금 나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게다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별일 아니야,”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정작 본인은 이쪽 저쪽과 모두 친하게 지내며, 단지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더 편안한 자리라니! 결국 그

¹¹ 비잔틴식 9시(오후 3시)까지, 혹은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금하는 것.

¹² 1962–64년, 스승은 시나이 산의 성 에피스티미아의 황량한 수도실에서 수행했다.

¹³ 이시하스티리온(그리스어 ἱσυχία – 침묵에서 유래) – 특별한 유형의 수도원으로, 종종 모원(母院)에 소속되어 있거나 모원 근처에 위치한 독립된 은둔처이기도 하다. – 역자 주.

사람은 악마에게 “배치”될 것이다. 이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 내가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면—아, 그게 얼마나 쉬웠을지 아시겠지! 그러나 목표는 내가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잘 챙길지만 생각했다면, 여러 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1부.

사랑의 책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활동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오래 참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1장.

무관심한 세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 저기 무슨 소리인가요?

— 비행기예요, 게론다.

— 창문을 좀 닫아라, 설마 여기까지 날아들어오지는 않겠지! 세상이 이 지경으로 미쳐버린 상황에서, 조만간 그런 일도 일어날지 모른다! 모든 것이 타락했다: 가족, 교육, 공직... 그런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 게론다,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누구의 탓입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관심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 있고 바람에 창틀이 덜컹거린다면,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아이가 나서서 창문을 닫는 것조차 큰일입니다. 아이들은 낮을 잃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나칠 뿐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창고를 담당하던 한 장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연료 및 윤활유(GSM)가 보관된 창고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병사를 찾는 데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¹⁴ 다른 사람들이 불을 지르거나, 병사 자신이 부주의로 인해 담배꽂초 하나 때문에 불을 내지 않도록 말이죠.”

냉담한 분위기, 용기는 전혀 없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신께서 어떻게 우리를 아직도 참아 주시는가? 예전에는 얼마나 품위가 있었고, 얼마나 애정이 넘쳤던가!¹⁵ 1940년 전쟁 당시¹⁶ 국경에서 이탈리아인들은 때때로 우리 국경 수비대원들과 교류하며 그리스 초소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인들의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어느 날, 이탈리아인들이 그리스 초소에 왔을 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그리스 장교가 그들 앞에서 50드라크마, 100드라크마 지폐가 든 돈뭉치를 꺼내(당시에는 돈이 꽤 가치가 있었죠) 불을 지피기 위해 불 속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그리스 국가가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이탈리아인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희생 정신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공산주의 국가들에 갇혀 있던 그 정신이 전해져 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올해 흉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굶주림이 심할지 아십니까!¹⁷ 제때 밀을 수확하지 않았더니 가을에 나가서 수확하더군요. 가을에 수확한다고요? 밀이 자기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밀을 아끼고 신경 쓰며 수확하러 가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온통 강제로만 이루어진 일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열정이 없는데, 그건 수년 동안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¹⁴ 연료 및 윤활유. – *번역자 주*.

¹⁵ 필로티모(그리스어: φιλότιμο). 이 단어는 영적 삶에서 필로티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파이시이 장로의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 현대 러시아어에는 φιλότιμο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문자 그대로는 ‘대인배적 마음’, ‘희생에 대한 기꺼움’, ‘도덕적 또는 영적 이상을 위해 물질적 것을 경멸하는 태도’로 번역할 수 있다. – *역자 주*.

¹⁶ 1940-41년 그리스와 파시스트 이탈리아 간의 전쟁. – *번역자 주*.

¹⁷ 1990년에 행한 연설.

렇게 생겨난 나태한 기풍과 무관심 때문에 국가 전체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비가 내리는데, 타작한 밀은 타작마당에서 말라가고 있다. 그들은 그런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떠날 시간이 되었나? 떠나버리는데, 비가 밀을 망치고 있다.

다음 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남은 것을 거두어 갈 테니! 반면에 네 자신의 밀이 타작마당에 놓여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설마 네가 그 밀을 썩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 밀을 구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피곤함 속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낄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무관심은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부모님, 집, 가족, 일, 마을, 지역, 국가,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국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조국은 바로 큰 가족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결과 부모도, 가족도, 마을도, 조국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 바로 이것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러한 해이함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찰관이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대에는 두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래는 여덟 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으셨나요! 두 명을 더 보태주면 될 텐데, 아니에요 — 그들은 고작 두 명만 남겨두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외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찾아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젤로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¹⁸ 안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을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제는 이미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길 “어느 날 그 아이가 다른 병사들이 군무를 다하지 않고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아이가 주의를 줬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 후 그들에게 신고를 했더니, 카드 게임을 하던 사람 중 한 명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 “이봐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젤로스가 카드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기도할게요!”

¹⁸ 즉, 안젤로스라는 이름의 그의 아들을 위해. — *번역자 주*.

또 다른 사건에 대해 듣고는 이렇게 말했죠. “다행히도, 여전히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인들이 있군요.” 한 조종사는 터키 전투기들이 국경을 침범했을 때, 그들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증거 사진을 찍기 위해 그들을 조금 앞지르려 했습니다. 다른 조종사가 무전기로 그에게 소리쳤죠. “그냥 내버려 둬!” — 하지만 그 조종사는 고집을 부리며 계속 시도했죠... 터키 비행기는 더 컸고, 더 빨리 날았으며, 매우 낮게 비행했기 때문에 불쌍한 그리스 조종사는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비행기를 타고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사람은 선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필수적임을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나태함뿐일 것이다. 강제로 누군가를 전쟁터로 보내 보라! 그는 거기서 도망치고, 여기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적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깨닫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 나서서 자원병으로 등록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예전에 제 고향인 파라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내일로 남겨두어라.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내일로 미루자. 어쩌면 내일 누군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니까. 맛있는 음식은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 먹어버리자!”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돌며,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가령, 억수같이 비가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는 빨래가 널려 있는지 생각하다가, 서둘러 빨래를 걷으러 달려갈 것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빨래가 젖더라도 다시 마를 테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을 위해 가슴이 아프시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둥번개가 치는 폭풍우 속에서, 밭에서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온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사람이 다섯, 여섯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나’를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기 자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위를 맴돌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신 그 축 밖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의 마음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동물과 온 자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라디오’가 켜져 있어서 신호가 오자마자 서둘러 도움을 주러 나섭니다. 반면 그의 마음이 그리스

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의 마음은 작동하지 않으므로 그는 그리스도도, 이웃도, 더 나아가 자연—동물, 나무, 식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동물이나 새들과 교감할 수 있겠습니까?! 새가 지붕에서 떨어지면 먹이를 주겠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새들을 보면 “이 불쌍한 녀석들에게 먹이를 줘야지!”라고 말하며, 부스러기를 뿌리고 물을 놓아 마시게 합니다. 나무에 병든 가지가 보이면, 다른 가지로 전염되지 않도록 당장 잘라내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문이나 창문이 쿵쿵 닫히는 소리가 나면, 제 마음은 그쪽으로 향합니다.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잊어버리지만, 문이나 창문이 부서지지 않았는지, 무슨 해가 없는지는 살피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틈틈이 생각할 뿐입니다. 누군가 피조물을 생각하며 걱정한다면, 그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할까요! 만약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리로 나갈 때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쩌면 누군가가 부주의로든, 악의로든(아무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던져서 불이 났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이것도 영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시선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칼리바에서 나올 때 아래를 내려다보고, 지붕을 살피며, 타는 냄새가 나지 않는지 코를 킁킁거립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도만 하면 불이 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혹은 멀리서 굉음이 들리면, 나는 귀를 기울여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대포 소리인가, 훈련 중인가, 무언가를 폭발하는 것인가? 내 마음은 즉시 그쪽으로 향하고, 나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돌보심이 함께하며, 모든 사람이 그를 돌보아 준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무관심의 세대입니다! 대다수는 퍼레이드용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방어하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요즘은 퍼레이드조차 원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퍼레이드에 나가 행진곡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떨리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나태함이 만연해 있다. 물론 다른 민족들은 더 심각한데, 그들에게는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보라, 그리스인들에게는 수많은 결점이 있지만, 신이 주신 선물인 용기와 기백도 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축제나 다름없다! 다른 민족들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조차 없다.

우리는 책임이 있다¹⁹

골수까지 무신론자인 한 사람이 내 칼리바에 찾아왔다. 온갖 말을 다 늘어놓은 뒤, 갑자기 “나는 성상파괴주의자다”라고 선언하더라.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시작하더니, 결국 성상파괴주의까지 이르렀다니! “이 무신론자야,” 내가 말했다. “네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네가 성상파괴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야? 성상파괴주의 시대²⁰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지나친 열정 때문에 미혹에 빠져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그 후 교회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바로잡았지.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무신론자는 오늘날의 모든 상황을 찬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래, 좋아,” 내가 말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판사들은 판결 내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나중에 원고들에게 협박이 가해져서 소송을 취하해야만 하죠. 도대체 누가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당신,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드나요? 찬성하는 건가요? 당신도 범죄자나 다름없군요! 이런 걸 보러 온 건가요? 자, 여기서 나가세요!” 나는 그를 쫓아냈다.

— 게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 제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 무덤을 파 놓았습니다. 만약 파 놓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힘을 들여 파야 한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흙 몇 삽만 던져 놓으면 될 뿐이니까요...

또 한 명의 무신론자이자 신성모독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에 대해 가장 심한 모독의 말을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침묵만 지키고 이 신성모독자들을 파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을 파문해야 마땅합니다. 파문하는 게 아까운 건가요?

— 게론다, 그들이 어차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파문당한다고 해서 뭘 이해하겠습니까?

— 적어도 교회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 침묵이란, 헤론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¹⁹ 1992년에 발표되었다.

²⁰ 성상파괴주의 – 100여 년(726–843년) 동안 비잔틴 제국을 뒤흔들었으나 제7차 공의회(787년) 이후 한동안 잠잠해졌던 기독교 이단. 레오 5세 아르메니아인 황제가 시작한 성상파괴주의의 두 번째 단계는 843년 성 메포디우스 총대주교 재임 시절에 종식되었다. 성상파괴주의자란 성스러운 성상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

—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 모독적인 글을 썼는데,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죠. “저 사람이 쓴 글 못 보셨나요?” — “예, — 그가 말하더군요, —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과 엮이면 우리도 오명을 입을 텐데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두려워한 건가요, 게론다?

— 자신에 대해 뭐라도 쓰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독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구멍에서 뱀을 끌어내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그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계산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가 우리를 칭찬하게 하고, 저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 그가 우리를 망신시키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바보 취급받지 않게 하고,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 때문에 침묵합니다. “입 다물어야지, — 라고 생각하죠, — 그래야 신문에 내 이야기가 실리지 않을 테니까.” 즉, 대다수는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요즘 들어 조금은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동안은 아무도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수]년 전, 저는 성산에서 한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애국심이 지나치게 많군요,” — 그가 그때 내게 말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찾아와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망쳐놨어요: 가족, 교육...” 바로 그때, 내가 그의 말 그대로 그에게 답할 차례가 왔다. “애국심, — 내가 말했다, — 당신에게 지나치게 많군요!”

이러한 상황은 나쁜 결과와 좋은 결과를 모두 낳았습니다. 나쁜 점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던 사람들조차 무관심해지며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나 있겠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좋은 점은, 많은 이들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찾아와 나를 만나고, 예전에 저지른 어떤 악행에 대해 변명을 찾으려 애쓴다. 그것은 그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게론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까?

— 분별이 필요합니다. 소리 내어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자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을 해야 하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양심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통 그리스와 그 전통, 성자들, 영웅들을 상대로

그리스인들 스스로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저지르는 짓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가 대답하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온통 썩어버렸잖아요.” — “그 사람이 온통 썩어버렸다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한 방 먹여라!”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그를 내버려 둔다! 어떤 정치인 한 명에게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말해 봐, — 내가 말했다, — ‘나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어!’ 그게 정직한 태도야! 도대체 넌, 네가 편하기만 바라고 나머지는 다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만약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악에 맞서지 않는다면, [파괴자들]은 더욱 뻔뻔해질 것이다. 반면 기독교인들이 맞서면, 그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투사가 아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단단한 견과와 같았다: 그들은 온 세상을 바꿔 놓았다. 비잔틴 시대에도 교회에서 성화 한 점만 가져가려 해도 백성들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교회가 국가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고, 대주교들이 같은 인도주의 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며, 심지어 성산 수도사들조차 경제적 지원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침묵한다면,²¹ 과연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나는 한 이구멘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온다면, 당신 쪽에서는 나그네를 맞이하는 일을 중단하겠다고 대답하세요.²² 그래야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테니까요.” 신학 교수들도 물보다 더 조용히 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길, “공무원입니다. 월급을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참고로 수도원들은 연금 문제에서도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소박한 지방정부 연금조차 받고 싶지 않을까요?²³ 설령 수도사가 지방정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그건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만약 그가 그들에게 ‘빈곤층’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 그건 그렇다, 그에게 영광이 되겠지만, 도청에서 그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도사는

²¹ 장로는 경제적 지원(혹은 이른바 ‘메토키에 대한 지급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1924년부터 그리스 정부가 아톤 산의 성스러운 수도원들에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일정 금액의 금전을 의미한다. 당시 아톤 산의 수도원들은 올리브유, 밀, 포도주 및 기타 수입의 원천이었던 자신들의 메토키를 소아시아에서 온 그리스 난민들에게 넘겨주었다.

²² 아톤 산의 공동 생활 수도원들은 순례자와 관광객을 무료로 숙박시켜 준다. — 역자 주.

²³ OGA (Όργανισμός Γεωργικών Ασφαλίσεων)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 협회. — 역자 주.

막대한 연금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 또다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연금을 위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예를 들어 수녀가 몇 년간 교사로 일해서 이제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건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 그녀가 그 연금마저 어딘가에 바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더 좋은 연금을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보이며,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참으로 힘든 세월입니다!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단단히 다져지지 않았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면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하느님께서 막아 주시기를, 큰 혼란이 닥친다면, 과연 몇이나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40년 전쟁 전, 코니체⁽²⁴⁾에 있는 제 목공소 옆에는 마을에서 옥수수, 밀 등을 가져와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옥수수를 팔러 시장에 가져오면, 어떤 “부자들” —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나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 받는 정도였죠 — 이 옥수수를 발로 차며 “얼마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전쟁이 터져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팔아야만 했을 때, 한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입니다!” — 다른 이는 정중하게 물었다. “옥수수는 없나요?” 그러니 지금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용기를 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는 우리에게 닥칠 일을 보고 있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²⁵ 러시아에서는 —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입니다! 영적인 책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죠! 알바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수도원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식 이름이 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교회 신자들은 소수이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근처에] 정교회 공동

²⁴ 코니차 – 그리스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스탈츠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다. – 역자 주.

²⁵ 1987년 5월에 발표됨.

체가 없으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몇 시간씩 먼 곳까지 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라도 성산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리스에 만연한 이 나태한 정신은 큰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성인을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순교자들!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그 법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든, 감옥에 가두든 하십시오.”라고 그들은 말하며, 다른 이들도 타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강요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무관심을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려움이나 전쟁, 혹은 역경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마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여름이면 호주에서 그리스로 날아왔다가, 가을이 되어 호주에 봄이 오면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서 봄으로만 지내며, 겨울은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겨울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악천후 같은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 게론다, 무관심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그를 다정하게 걱정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해서 스스로 자신을 돕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려면, 그 사람이 목마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해보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게 하면 — 토해 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자유, 즉 자유 의지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무지에는 변명이 없다

— 어쩌면, 게론다, 어떤 이들은 무지 때문에 무관심한 건 아닐까요?

— 무슨 무지라니! 무지에 대해 말해 주지: 할키디키 출신의 한 문헌학자는 ‘성산’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어!²⁶ 어떤 독일인 교사 한 분이 그에게 성산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들은 함께 찾아왔지. 그 독일인은 비록 개신교도였지만, 성산에 수도원이 몇 개나 있는지, 심지어 어떤 성인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까

²⁶ 할키디키는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면적 2,995 km²의 반도이자 행정 구역입니다. 할키디키 반도의 세 끝자락 중 하나는 아폰 산입니다. 자동차로 할키디키를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2시간이면 횡단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리스 문헌학자가 할키디키에 대해 무지한 것을, 트로이체-세르게이예프 라브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모스크바 근교 출신의 문헌학자의 무지와 비교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 역자 주

지 알고 있었어. 이런 무지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또 다른 할키디키 주민은 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저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플로리나 출신 중 한 명이 제 칼리바에 찾아왔습니다.²⁷ “당신은 바로 그 플로리나 출신이세요?”라고 물었더니, “네, — 그가 대답했습니다, — 바로 그곳에서 왔습니다.” — “거기엔,” 제가 말했죠, “훌륭한 대주교님이 계시죠.” — “그분은 어느 팀에서 뛰시나요?” — 그가 물었습니다. 축구 선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는 축구에 너무 빠져 있어서 심지어 자신의 대주교님조차 몰랐던 겁니다. 적어도 칸디오티스(²⁸) 정도는 모두가 알 텐데 말이죠. 이런 무지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날 세상에서 무지에 대한 변명은 없습니다. 선한 마음가짐과 신앙심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선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께]로 돌아설 것입니다. 비록 그 곁에 신학자도, 수도사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뱀이든, 짐승이든, 번개든, 홍수든, 혹은 다른 어떤 사건이든 그가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스 출신의 한 무정부주의 청년이 독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마약 등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서를 건네주었다. 그는 그것을 읽고 즉시 변했다. “그리스로 가자, 거기에는 정교회가 있다”고 결심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오자 친척들이 그를 결혼시키려고 땀을 들였다. 결혼을 시켰고, 아이가 태어났다. 젊은 아버지는 복음을 읽고, 교회에 다니며, 명절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읽느라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아내는 곧 그를 떠나 아이까지 데리고 가버렸다. 아내가 떠나자 그는 마을에 있던 모든 것—농지, 트랙터 등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 남겨두고 동굴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했다. 어느 영적 지도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내를 찾아서 그녀와 모든 일을 해결한 다음, 그 후에야 네가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찾으러 살로니카로 떠났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보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로니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아내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독일인들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그중 한 명은 세례를 받

²⁷ 플로리나 – 그리스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 *번역자 주*.

²⁸ 아우구스틴(칸디오티스)(1907년생) – 1967년부터 1999년까지 플로리나 대주교를 역임했다. 수많은 영적 저서를 집필하고 열정적인 설교자였던 이 헌신적인 대목사의 이름은 그리스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 *번역자 주*.

았다. 이 독일인들은 그에게 아테네행 티켓을 사주었지만, 그곳에서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인들은 다시 그에게 티켓을 사주었고, 그는 크리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구한 뒤 한 영성 지도자를 찾아갔다. 그 신부님은 그의 사정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당신의 아내와 아이, 그 모습이 이런 건 아니었나요? 얼마 전 한 여성이 와서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찾아온 남자의 아내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었다. “분명 그녀일 겁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영적 지도자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뺨고 말했다. “당신은,” 그녀가 말했다. “주술을 써서 나를 찾아낸 거야. 당신은 주술사야.”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내는 그를 떠나 도망쳐 버렸고, 그는 다시 그녀를 잃고 말았다. 그는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내 칼리바를 찾아왔다. 한 번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더니, 내가 문을 여는 동안 한쪽으로 물러나 절을 했다. 그가 입은 옷은 낡아 있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게 마른 무화과가 조금 있었는데, 그에게 주었다. “나한테는 이가 없어요,”라고 그가 말했다. “나도,”라고 내가 말했다. “나도 없어.” — “너는,” 그가 물었다. “아프니? 나는 아파.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태어난다.” — “어쩌면 너에게 티셔츠 한 장을 줄까?”라고 내가 물었다. “나한테는,” 그가 말합니다, “두 벌이 있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 벌을 줄게.” 내가 말합니다. “자, 네 건강을 잘 챙겨.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아내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야. 넌 아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니까.” 참으로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스물일곱 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수도 생활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무지했지만, 마음은 선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에 그는 복음의 정신에 따라 깊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무지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만이 자신의 무지를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제2장.

기독교인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이미 신앙 고백이라는 점

— 게론다,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시위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기도로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침묵을 악용하여 “누구누구는 항의를 표명하지 않았으니, 따라서 그들은 우리 편이고 우리와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 악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 즉, 신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규탄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 악은 더욱 거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신자들은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싸우는 자들에게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유람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높은 월급을 받고, 호화로운 차를 타고, 유흥을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실혼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²⁹ 낙태를 합법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 이런 신성모독적인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겁니다!”라고 말한 뒤, 자신들의 ‘메시아’를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람들, 게론다, 이 말을 믿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 이미 타락한 자는 더 타락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믿는 이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신성모독을 통해 그들은 도덕적 난행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선을 넘어섰습니다. 신자들은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³⁰ 이

²⁹ 1980년대 중반까지 그리스에서는 교회 결혼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 역자 주.

³⁰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한 신성모독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은 1988년 아테네의 영화관에서 짧은 기간 상영되었으나, 엘라다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상영 금지를 요구했다. 장로는 당시 탈장으로 인한

신앙을 모독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별일 아니에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성모독적인 영화에 대한 항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모든 신성모독에서 좋은 점도 생깁니다. 가라지가 밑에서 분리되고, 세상이 체를 거르듯 가려지는 것이죠.

— 게론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으로든 방어해야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당신을 이단자라고 불렀을 때는 반박하셨지만, 다른 비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 그건 성부들이 하신 말씀이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밖의 어떤 비난도 제 영적 삶에 도움이 되지만, 이단이라는 비난은 저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³¹

사람들을 잠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게론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 회개합니다. 예를 들어, 램프가 흔들리거나 지진 때 제대로 흔들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전쟁이나 어떤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더 나빠져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한 번 신나게 놀자”라고 말하며 완전히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삶을 바꾸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성인들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교회 신자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정교회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정교회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적 자녀들과 함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영성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성모독적인 영화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토스 산 수도자들과 함께 살로니카로 와서 항의 집회에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만으로 신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³¹ 참조: 성 이그나티우스(브란차니노프). 저작집. 제5권. 오테치크. 모스크바: ‘믿음의 규칙’. 42–43쪽.

도 몰랐는데, 정작 본인은 대도시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오락에 빠져 지내도록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재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치 죽음이 닥칠 것 같지도 않은 양 “죽음 얘기는 하지 말고, 명절이나 세례식 얘기만 해”라고 울부짖으며, 그런 식으로 거짓된 기쁨을 느끼는 그 노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만약 그들이 근처에 살던 한 노인이 어제 죽었고, 또 다른 노인은 임종 중이며 곧 죽을 것이며, 모래는 그들보다 훨씬 젊은 누군가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 그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고백을 해야겠구나, 영적으로 준비해야겠구나.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곧 나를 다른 삶으로 부르실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들을 데려가 버린다. 또 다른 이들은 잘못된 자비심에서 “이단자들에게 그들이 미혹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설령 그들이 기독교 초창기에 살았다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성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불에 유향을 던지기만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저버리지 마라”라고 말하곤 했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던지는 척만 해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가라. 자유로워질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있습니다. 누룩이 잘못되었습니다.

— 게론다, 사도 바울이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³² 라고 말했을 때, 기쁨이 올바른 삶의 증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네, 세속적인 기쁨과 신성한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쫓는 그 기쁨과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기쁨을 누렸을까요? 성모 마리아께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웃으셨을까요? 성자들 중 누가 고통 없이 이 생을 살아냈을까요?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기분 상하는 말은 듣기조차 싫어하며, 낙담하지 않고 평온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기쁨을 가진 성인이 과연 있었을까요? 기쁨을 느끼기 위해, 내 평온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온유해지기 위해 동요를 피한

³² 갈라디아서 5, 22.

다면, 나는 무감각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한 가지이고, 무관심에서 비롯된 온유함은 또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므로 기쁘고 평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무관심이며, 세속적인 기쁨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성향이 내재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온통 고통 그 자체입니다. 즉,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아파하고, 사람들을 위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 그는 신성한 위로로 보답받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만, 내면에서 ‘와 신성한 위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그의 영혼에 축복을 쏟아부으시며, 사람은 신성한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 영적인 기쁨입니다 — 형언할 수 없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입니다.

이 예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 게론다, 세속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금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까?

— 우리 교회에서 정한 금식, 즉 수요일, 금요일, 여러 날에 걸친 금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청원을 위한 기도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 수행으로 행하는 다른 금식들은 비밀리에 행해야 합니다.

목적은 단순히 정통적으로 말하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정통적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않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헤론다, 만약 듣거나 읽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 아, 그렇다면 그는 이미 신성한 은총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은 설교자가 말한 내용을 살살이 따지기만 할 뿐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정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신학자가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헌혈하러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에 자극받아 많은 양의 피를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한 방울도 기증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해 그의 피는 넘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나—” 그 신학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설교로 백성들이 헌혈하도록 독려했으니, 이는 마치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피를 기부한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마

음을 달렸습니다. 차라리 설교를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직접 피를 조금이라도 기부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진정한 품격은 삶의 방식에 있다. 교회와는 전혀 연고가 없는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저는 우파입니다.” — “자, 당신이 십자가 성호를 긋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손이 오른손이라고 해도 십자가 성호를 긋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시를 하지 않는 왼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든 왼손도 역시 십자가의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우파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좌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목표는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산다면, 그의 행실이 스스로를 말해 줍니다. 어떤 도시에 모든 사람, 즉 사제들과 주교들까지 비난하던 개신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수도원에는 한 수도사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무신론자가 그 개신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자, 주교들과 사제들을 모두 비난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 수도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나?” — “그 수도사에 대해서는,” 그가 말하길, “나는 인정해.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는 다르니까.”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자신이 올바르게 산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가 중요하겠는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 지인 중 한 경찰관이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반대편에는] 세르비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무신론적이고 당에서 가장 신임받는 간부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이 국경을 넘을 때면, 그 경찰관은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를 눈치챈습니다. “그리스인 경찰이 세르비아 신부들의 손에 입을 맞추다니!” 이 일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직책을 맡으면서도 기독교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돕는지요! 그래서 저도 어떤 ‘유력한’ 분들이 오시면 그들을 만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원수가 바로 그런 본보기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즉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깊이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방 귀족들도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귀족 부인이 어느 국회의원에게 한 말을 아십니까?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만찬에 참석해 있었습니

다. 성모 승천 대축일 금식 기간이었는데, 고기와 생선 등이 차려졌습니다... 그 귀부인은 금식 중이었기에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이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 특히 바퀴 달린 수레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결국 그녀는 금식 중이 아닌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한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들에게 환영사를 건넸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등등, 말을 이어가며 칭찬을 한가득 늘어놓았다. 그때 그 부인의 남편이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사람의 아들들아,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나니...*”³³ 그 성직자가 그들 앞에서 아침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때, 바로 그 부인이 한 신학 대학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소한 것에 트집 잡지 말고, 신부님들을 시험에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구에는 사제가 부족하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지역 귀족들이 교회를 지지했고,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기독교적 모범과 기독교적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용기와 고귀함, 희생 정신으로 남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을 지키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진 미덕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미덕에는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설령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척하며 숨거나 위장한다 해도, 미덕은 비록 늦게라도 그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날 그가 쌓아온 보물은 다시 한번 많은 영혼을 도울 것이며, 어쩌면 그때야말로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아 주시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변명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즉시 개입하시지만, 다른 경우에는 기다리시며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기도, 그리고 투쟁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심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내전]에

³³ 시편 145, 3.

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³⁴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 있다! 다음 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네가 선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해 주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를 경감시켜 줄 정황이 없을 것이다.

— 게론다, 그런데 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 걸까요?

— 아마도 그들에게는 중대한 죄가 있어서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그런데 그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 죄가 없는데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셈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 게론다, “*사악한 자들과 마술사들은 더 나쁜 쪽으로 변창하며, 유혹하고 유혹당하는가?*”³⁵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 보라: 어느 정도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뒤통수를 치신다. 다른 사람들은 이기심이 조금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뒤통수를 치신다. 그러나 사탄적인 교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신다. 이 사람들이 변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변영인가? 그것은 검은 변영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은 단순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심연으로 떨어진다. 주님, 지켜 주소서!..

의인의 보호

— 게론다, 한 성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로운 분노로 용감히 나섰도다.”³⁶ 어떤 분노나 격노가 가장 의로운 것입니까?

— 타인이 모욕당할 때 진정한 고통에서 비롯된 외침과 분노는 “가장 의로운 분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모욕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은 불순한 분노입니다. 누군가 성물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본다면, 그

³⁴ 1946–1949년 그리스 정부군과 반란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 간의 내전. – 역자 주.

³⁵ 디모데후서 3, 13.

³⁶ 제1차 공의회 성부들을 기리는 예배의 스티히라.

것은 그에게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성스러운 광인은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화를 가져다가 그 사람 앞에 거꾸로 놓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성스러운 광인은 즉시 벌떡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성스러운 광인을 판별하는 “테스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운 분노도 있고, 오직 그런 분노만이 사람에게 정당화된다. 모세가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이 적힌 돌판을 땅에 내던졌고, 그것들은 산산조각이 났다.³⁷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피네하스는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오게 하라고 명하셨다! 피네하스가 이스라엘 사람 잠브리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즈비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중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만일 그가 그 둘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을 것입니다.³⁸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시편에서 “*피네하스가 화해시키고, 베는 것을 그쳤다*”³⁹ 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의 이름을 여러 번 입맞추곤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것과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보시고, 채찍을 들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⁴⁰

영적인 사람이 분개하여 사적인 문제에서 자신을 지키려 한다면, 이는 완전히 이기적인 것이며 마귀의 소행이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아 마귀의 영향에 굴복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나서야 하며, 정의를 위해 나서야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어야 한다. 자신을 위해 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 즉 우리의 믿음과 정교회에 관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이 네 의무다. 타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는 것은 순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³⁷ 출애굽기 32, 1-20 참조.

³⁸ 민수기 25, 1-15 참조.

³⁹ 시편 105, 30.

⁴⁰ 요한복음 2, 14-15 참조.

내가 시나이로 떠났을 때, 한두 주에 한 번씩 성찬을 받기 위해 수도원으로 내려가곤 했다.⁴¹ 디케오스⁴²는 매우 소박한 분이였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아니, 매주 받을 순 없지. 수도사들은 일 년에 네 번 성찬을 받아야 해.” 당시 그곳에서는 성찬을 드물게 받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쿠쿨도 쓰지 마라.”라고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카밀라브카 위에 쿠쿨을 씌웠는데, 그들은 오직 경사스러운 경우에만 쿠쿨을 썼다.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요.”라고 내가 대답하고는 쿠쿨을 스카프처럼 어깨에 걸쳐 댔다. 그 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일로 다투기라도 하겠는가? 하지만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매번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로 향했다. 사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오라...”라고 선포할 때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하곤 했다. “나의 그리스도여,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나의 간절한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너무나 [뚜렷한] 변화를 느꼈기에, 만일 내가 성체를 영했다면 과연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몇 달이 지나자, 나를 위해 시나이 산까지 찾아오기로 결심한 네다섯 명의 청년들이 수도원에 도착했다. 그들에게도 성체를 영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고,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대응

— 게론다,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⁴³ 이것이 어떤 모독입니까?

—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것입니다(물론 사람이 제정신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제게 “너나 네 신들과 함께 꺼져라...”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를 밀쳐내고 제대로 흔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교회 옆을 지나간다. 한 사람이 십자 성호를 긋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친구야, 너도 십자 성호를 긋거라...,” 그러자 그 사람이 반발한다. “제발 좀 놔둬, 나한테 어디서 십자 성호를 긋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또 나타났네!” 이런 경멸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에게는 신성모독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뻔뻔함도 신성모독이다. 뻔뻔한 자는 자신의 타락

⁴¹ 각주 12 참조.

⁴² 시나이 산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디케오스’는 장로 성회(聖會)를 주재하며 대주교가 부재 중일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⁴³ 마태복음 12, 31 참조.

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복음의 진리 같은 것을 왜곡하거나 짓밟는다. 그는 진리를 존중하지 않고, 실재를 존중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그것을 구겨 버리고, 성스러운 것을 진흙 속에 짓밟는다. 그리고 점차 이것이 그의 본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 사람은 악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누군가 분노에 차서 심지어 성령을 모독하더라도, 그 신성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내뿜은 그 욕설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순간, 분노에 휩싸여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뻔뻔한 자는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하는 자는 마귀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 헤론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합니까?

— 그는 10년 전 다른 맥락에서 했던 말을 떠올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예로 들 수도 있다. 그 순간에는 심지어 가장 뛰어난 변호사인 악마조차도 그런 말을 생각해 낼 수 없을 것이다.

— 그런 사람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 무엇을 느끼냐고요? 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옳고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애쓴다 해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가 틀렸으면서도 뻔뻔하게 자신을 변명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뻔뻔함과 경멸을 경계해야 하며, 이는 신성하신 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신성하신 분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 헤론다, 교회나 수도 생활 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우선, 누군가 예를 들어 당신이라는 개인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이신 분조차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죄인인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약 저 개인을 모욕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를 전혀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사로서 저를 모욕할 때는 수도 생활이라는 제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도사로서 그 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모욕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다 쏟아내게 한 다음, 그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야 합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어떤 여성이 사제들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멈추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제들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해 보세요. 당신처럼 화장을 질게 하고 매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어머니가 어떤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사제나 수도사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기억나는 게, 또 한 번은 내가 아테네에서 야니나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 어떤 남자가 내내 당시 무슨 일을 저지른 미트로폴리트를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한두 마디 말을 건네고는 기도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야니나에 도착해 내렸을 때, 나는 그를 한쪽으로 불러내어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아나?” — “모릅니다.” — 그가 대답했다. “그럼 도대체 왜 — 내가 말했지 — 거기 앉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쩌면 내가 네가 비방하는 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성자일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내 앞에서 앉아서, 평신도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지껄일 수 있지? 제발 마음을 고치도록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머리에 한 방 제대로 맞을 수도 있다! 물론 너를 위한 조언이다.” 보니 그가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사실을 깨달은 듯, 일어난 소동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었다.

[가끔은] 성스러운 것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위 사람들은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성산에서 떠나던 중, 나는 배에서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성산으로 온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쉬지 않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세상의 권력자들, 정부, 의사들—을 욕했다... “수년 동안,” 그가 소리쳤다. “나를 전기 충격과 약으로 고문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좋구나!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고, 차도 다 가지고 있잖아! 난 열두 살 때 엄마가 어떤 섬으로 보내버렸고, 그 후로 벌써 스물다섯 년이나 —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전전해 왔어!” 그는 모든 정당을 욕하다가, 이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독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서 말했다. “그만해! 설마 여기 권력자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보니, 그의 동행자—아마도 경찰관일 텐데—가 당황한 듯 그를 살짝 제지했다. 그 불쌍한 사람은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부으며 자신의 모든 불행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 후 그가 다가와 내 손에 입을 맞추자, 나도 그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는 울었다. 우리 모두는 —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덜하지만 —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도 이 불쌍한 사람의 모독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였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를 제정신으로 되돌려 놓았을 것이다.

파라시오트들은⁴⁴ 얼마나 실망했는지,⁴⁵ 교환을 위해 배를 타고 그리스로 향해하던 중이었을 때! 두 선원이 서로 욕을 하며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독했다. 파라시오트들은 이를 매우 싫어했다. 그리스인,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독하다니! 그들은 신성모독자들을 붙잡아 바다에 던져버렸다. 다행히도 그들은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살아남았다. 설령 어떤 사람을 모욕한다 해도 우리는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어느 날 한 소년이 내 칼리바에 찾아왔다. 그는 절뚝거렸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는,” 내가 생각했다, “신성한 은총이 이토록 빛나니, 사정이 만만치 않구나!” “잘 지내니?”라고 물었더니,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천장 높이만큼이나 큰 한 짐승 같은 놈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독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은 소년을 땅에 내동댕이치고 짓밟아 다리를 다치게 했고, 그 후로 이 불쌍한 아이는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고해사제여! 고해사제들과 순교자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 게론다, 군대에서 경건한 청년들 중 일부는 욕을 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분별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복무했던 한 무선통신병, 전직 의사였는데, 그는 불신자이자 신성모독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지휘부에 와서 제 머리를 씻어 주려 했습니다. 다윈의 이론이나 그와 비슷한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신성모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은 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큰 노새 한 마리가 무전기과 들것을 싣고 있었습니다. 매우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저는 노새의 꼬리를 잡고 있었고, 그 의사는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들것이 노새의 귀를 스치자, 노새가 — 쿵! — 뒷발로 나를 세게 걷어차서 나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곧 정신을 차리고 내가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기억하는 건 “나의 여주인이시여!”라고 외친 것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 몸에는 말굽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여기—

⁴⁴ 파라스 주민들 – 카파도키아(소아시아, 현재 터키 영토)에 있는 큰 마을. 성 아르세니오스 카파도키아스와 복자 파이시오스 장로의 고향. – *변역자 주*.

⁴⁵ 이는 1924년의 인구 교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소아시아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로 이주했고, 그리스에 거주하던 터키인들은 터키로 돌아갔다. – *역자 주*.

가슴 전체가 검게 변해 있었을 정도로 노새가 나를 세게 걷어찼던 것이다. 의사는 내가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는 길을 계속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의사가 돌에 발을 빠끗하여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여주인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여!” 그는 적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다들 나를 버리고 갈 거야, 끝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 “걱정 마,”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를 붙잡으면 너도 붙잡힐 거야.” 그러자 그 불쌍한 사람은 생각에 잠겼다. “아르세니⁴⁶는 당나귀에게 차였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는 조금만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벌써 걸을 수조차 없구나!” 곧 그는 일어났지만 절뚝거리고, 나는 그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나머지 사람들은 앞서 나갔다. 그는 교훈을 얻었고 그 후로 정신을 차렸다. 예전에는 매일 신을 모독하더니, 위급한 순간에 “나의 여주인, 나의 여주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바로 여주인을 떠올린 것이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군대에서 오토바이 기사로 복무했고, 두 번이나 다리를 부러뜨렸음에도 계속 신을 모독했다.

—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나요, 게론다?

—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저를 괴롭히려는 듯이 끊임 없이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모독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저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 예전에는 그와 다른 이들도 별 이유 없이 욕을 내뱉곤 했지만, 나중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욕을 하고 싶을 때면 혀를 깨물고 말았죠! 만약 뻔뻔한 사람이 욕을 하거나 신을 모독한다면, 차라리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척하며 듣지 않는 척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끊임없이 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한 자가 아니라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나쁜 습관 때문에 욕을 한다면, 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양심뿐만 아니라 이기심까지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엄하게 말하지 말고, 가능한 한 겸손하고 아픈 마음으로 말하라. 성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미덕의 힘으로 너와 다투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리고 네 입의 온유함과 평화로 그들

⁴⁶ 장로의 세속 이름.

의 입을 막아라. 제멋대로인 자들은 네 미덕 있는 행실로, 육체적으로 뻔뻔한 자들은 네 눈의 절제로 책망하라.”⁴⁷

제3장.

“모든 순결한 것은 순결한 자에게서...”⁴⁸

영적인 사람은 “불을 먹는 자”이다

— 게론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기독교인답게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하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섯이나 여덟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 중에서 한두 명이 사탄에게 이끌려 간다고 해도, 과연 그들의 죄 많은 삶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 아니요, 그들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해 줄 것입니다.

— 자, 보시다시피 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 많은 삶에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가족이며 서로 형제자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 많은 삶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면, 악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유혹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너는 또 몇 명이나 유혹하고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⁴⁷ “온유함과 평온함으로 네 입을 열어, 불순종하는 자들의 뻔뻔한 입을 막고, 그들을 침묵하게 하라. 네 삶의 고결함으로 방탕한 자들을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네 눈의 절제로 대응하라.” 참조: *아바 이삭 시리아인*. 『저작집』. 세르기에프 포사드, 1911. 제56설교. 281쪽.

⁴⁸ 디도서 1, 15.

네 형제를 용납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저지르는 온갖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참아 주시는가?” 하나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는 천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발코니에 서서 아래 광장을 내려다보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흠치고, 어떤 이들은 욕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죄를 짓는 등등.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참아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참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를 참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 게론다, 사도 바울의 “*우리 하나님은 불이시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⁴⁹

— 화로에 종이, 쓰레기를 던지면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에게 던지는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불을 삼키는 분*!” 사람 안에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면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더 이상 사악한 생각들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즉, 마귀는 그에게 사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던지지만, 영적인 사람은 “불”이 되어 그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는 지쳐서 [공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며,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깨끗한 자를 높에 던져 놓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깨끗할 것이다. 마치 햇살이 무엇 위에 떨어지든 밝고 깨끗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영적인 사람은 성자와 접촉함으로써 변화됩니다 — 이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반면 육적인 사람으로부터는 자극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 고통스러워하지만, 자신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중간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선한 쪽으로 변화하지만, 육적인 사람으로부터도 변화하되 악한 쪽으로 변화한다. 육적인 사람은 성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성인을 보고 도망친다면, 육적인 사람은 성인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간다. 소돔 사람들의 경지에 이른 자는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유혹을 받는다.⁵⁰ 겸손한 사람은 비록 영적으로 미숙하더라도, 영적 순결을 지니고 천사와 친화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천사와 악마를 구별해 낸다. 반면 이기적이고 육신에 얽매인 사람은 교활한 마귀에게 쉽게 현혹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 교활함을 전파하며, 자신의 육신적 욕망으로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고, 악한 영혼들을 자신의 영적 세균으로 감염시킨다.

⁴⁹ 히브리서 12, 29.

⁵⁰ 참조: 창세기 19, 1-5.

— 계론다, 모든 것이 맑게 보이는 그 경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머무르도록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 주소서...”⁵¹ —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 남성이든 여성이든 — 정화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타인을 유혹하지도, 유혹당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은총과 경외심을 전합니다. 자신의 영적 순결을 세심하게 지키고 아껴가는 사람은 신성한 은총도 보존하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볼 뿐만 아니라 불결한 것조차 선한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심지어 불결한 것조차도 그의 선한 영적 노력 속에서 유용한 것으로 변모합니다. 필요 없는 종이는 깨끗한 냅킨이나 풀, 공책으로 재활용하고, 청동 파편은 촛대로 만드는 식이다. 반대로, 간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것조차 악으로 바뀌버립니다. 마치 탄약을 제조하는 공장이 금으로조차 총알과 포탄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 공장의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죄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그는 내면에서부터 검게 변하고, 영혼의 눈은 흐려지며, 세상을 흐릿하게 보게 된다. 그러면 그는 [이미] 죄로 더러워지고, 죄가 그를 얽매게 된다. 심지어 깨끗한 것조차 더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청년과 처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말하길,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불쌍한 이들은 죄에 너무 깊이 빠져서 모든 것을 죄악으로만 본다. 뿔 난 자들과 어울리는 자들,⁵² 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친하게 지내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돼지들에게 백합에 대한 경외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밟아 훼손할까 하노라...”⁵³ 그러므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하며, 세속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자유분방하게 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해를 입지 않고 그들도 해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규율은 다르고, 카노나르크⁵⁴ 도 다르며, 그들은 성유와 향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⁵¹ 시편 50, 12.

⁵² 탕갈라슈카(그리스어 ταγκαλάκι) – 장로가 마귀에게 붙인 별명이다. – 역자 주.

⁵³ 마태복음 7, 6 참조.

⁵⁴ 카노나르크 – 합창단이 부를 곡을 선창하는 성가대원. 여기서 장로는 죄악적인 일에서 “카노나르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악마임을 의미한다.

— 헤론다, 그리스도 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외적인 유혹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비영적인 삶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뿔 난 자(사탄)는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유혹을 일으키고 악의를 퍼뜨리며,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생겨나는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일어나는 일에 영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를 좌절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내일은 저것으로, 모레는 또 다른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유혹을 만들어내지 맙시다

가능한 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빌미를 제공하지 맙시다. 교활한 자에게 틈을 열어주지 맙시다. 왜냐하면 생각이 손상된 영혼은 더욱 손상되고, 나중에는 자신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한편으로는 건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몇몇 젊은이들, 현대의 청년들이 제 칼리바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성산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배에서 그들은 제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큰 흥미를 보이며 저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행자 중 일부는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를 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대화가 오해받을 것임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경 썼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활합니다. 유혹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일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하나님께 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행동하고, 문제가 원수에게서 비롯될 때 비로소 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미혹에 빠졌다고 말한다. 먼저 나는 내가 미혹에 빠졌는지 아닌지 살펴본다.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뭔가 본 게 있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으니, 분명 그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이렇게 생각하며, 내 안에서 무엇이 잘못 이해되었는지 찾아내어

바로잡으려 노력한다. 내가 미혹에 빠졌다고, 마법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유리하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테니 내 삶은 수도사답게 고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그 소문을 퍼뜨린 불쌍한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가 교회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그가] 불쌍하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나 역시 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평신도들이 제 손에 입을 맞추려고 다가오면, 저는 그들의 머리를 가볍게 톡톡 두드립니다. 누군가 이를 보고는 “평범한 수도사인데 축복을 주다니, 저 사람이 사제라도 되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게론다,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어떤 유혹을 일으키면, 어떤 이들은 “그를 내버려 뒀,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부주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사람은 모닥불을 피우면서, 자신이 불을 피운 곳에서 화재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 다른 이들의 영혼을 태울 때, 우리는 기도하며 적어도 물 한 양동이를 불 위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또 회오리바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건함은 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살살이 뒤집어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섬세하게 그들의 속도를 늦춰야 하며, 그들이 멈추면 다시금 섬세하게 바퀴 밑에 돌 하나를 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뒤로 굴러가며 다른 이들도 함께 휩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듣는 말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하지펜디⁵⁵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펜디. 저 위쪽에 뱀 백 마리가 몰려들었습니다!” — “뱀 백 마리!? 어디서요?” — 성자 아르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에, 백 마리는 아니더라도 쉰 마리는 분명했어요!” — “쉰 마리 뱀?” — “글쎄요, 적어도 스물다섯 마리는 있었어요!” — “스물다섯 마리 뱀이 한꺼번에 기어 모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 성자가 물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열 마리는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만 좀 해, — 성자가 그에게 말했다. — 설마 저기서 모임이 있어

⁵⁵ 하지펜디 – 파라스 주민들이 성 아르세니오스 카파도키오스를 부르던 이름이다.

서 뱀 열 마리가 한꺼번에 기어왔다는 거야? 어쨌든, 그럴 리가 없어!” — “다섯 마리였어요,” — 그가 물러서지 않았다. “다섯 마리?” — “뭘, 좋아요. 두 마리였어요.” 그러자 성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 뱀들을 봤니?” — “아니요,”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서 싹-싹-싹... 하고 쉼쉼거리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건 아예 도마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들은 것만으로는 절대 검토 없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말하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하죠! 코니체에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일요일이면 그들은 시내를 어슬렁거리지 않고 수도원인 스토미온(Stomion)에 왔습니다.⁵⁶ 심지어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렀고, 그 후 산 위로 올라가 ‘낙타’라고 불리는 곳(“Верблюдица”)에 갔습니다.⁵⁷ 어느 날, 한 타락한 인물이 그들에게 유혹을 꾸몄습니다. 친구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말하길, “있잖아, 네 친구가 너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러니저러니.” 그러고는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길, “있잖아, 네가 친하게 지내는 그 녀석이 너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러니저러니.” 두 사람은 즉시 격분하여 수도원 한복판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그 사이 불씨를 지핀 사람은 슬그머니 빠져나갔는데, 두 사람은 서로 욕을 퍼붓고 있었다! 더 어린 쪽은 게다가 약간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나이 많은 쪽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적대적인 녀석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좀 봐!” 나는 다가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했다. “이봐, 그 사람은 어리고 게다가 신경도 좀 예민하니까, 너는 그에게 화내지 말고 사과를 받아.” — “신부님,” 그가 말하더군요.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 녀석이 저를 모욕하는 게 안 보이세요? 게다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봐, 그분은 연세도 더 많으시고, 사정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가서 그분께 사과해.” 그러자 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신부님, 우리도 한판 붙자!” — “좋아, — 내가 말했다. — 자, 판텔리스, 말다툼이나 해보자. 내가 잠깐만 준비할게.”라고 말하며 나는 자리를 뒀다. 수도원 뒤편, 4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정원 울타리용으로 준비해 둔 굵은 장대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길이 5미터 정도 되는 장대 하나를 집어 들고 수도원으로 끌고 갔다. 그를 웃게 만들려고 간신히 끌고

⁵⁶ 1958-60년, 복자 파이스이 장로는 코니차 근처에 위치한 스토미온 수도원에서 수행했다. — 역자 주.

⁵⁷ 파핑고 산의 정상인 팀피는 모양이 암컷 낙타의 실루엣을 닮았다.

갔다. 그는 내가 무언가를 끌고 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뭘 하려는지 짐작이나 했겠는가? 나는 그 장대를 마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교회 입구 맞은편에 멈춰 섰다. “이봐, — 내가 말했다, — 판텔리스, 그만 뒤. 안 그러면 싸우자.” 그 막대기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자 둘 다 폭소를 터뜨렸다. 끝이었다! 얼음이 깨졌다. 악마도 깨졌다. “너희들, — 내가 말했다, — 머리는 있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었다.

— 그날 바로 주술이 걸렸나요?

— 네, 그리고 둘이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악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이시나요? 그 세 번째 녀석은 아마 그들이 형제처럼 사이가 좋다는 걸 질투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게 다른 쪽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는 도망쳤죠. 험담은 정말 역겨운 짓이에요. 그래서 적을 악마라고 부르는 거예요.⁵⁸ 악마는 험담을 퍼뜨려요: 한 사람에게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죠. 그리고 유혹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불쌍한 녀석들은 그 말을 믿고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 그가 일부러 그런 건가요?

— 네,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서요. 그는 물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즉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죄를 공개하는 것

우리가 나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덮어두고 남에게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타락이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길에 오물이 널려 있다고 가정해 보자. 현명한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며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언가로 덮어둘 것이다. 반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덮어두는 대신 그것을 파헤쳐 악취만 더 심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별 없이 타인의 죄를 공개함으로써 더 큰 악을 초래하게 된다.

복음서의 말씀 “교회에 알리라”⁵⁹는 모든 것이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신자들이지, 교회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 고해성사가 모든 교회 구성원 앞에서 행해지던 시절에는

⁵⁸ Διάβολος (그리스어) – 중상모략자, διαβάλλω (그리스어) – 중상모략하다, 험담하다, 고자질하다. – *번역자 주*.

⁵⁹ 마태복음 18, 17.

주님의 말씀인 “교회에 알리라”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 가족이 한 교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일이 드물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원수가 이 “교회에 알리라”는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도덕적 죄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적대하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들에게 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구실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연약한 영혼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어떤 어머니가 음란한 딸을 두고 있다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오히려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마지막 한 톨까지 다 팔아치우고, 딸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 딸을 시집보내어 과거의 삶을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 주시며, 누구도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결코 죄인을 [모든] 세상 앞에서 모욕하지 않았으며, 사랑과 영적인 섬세함, 그리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악을 바로잡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위선자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오해의 쉬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악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게론다, 당신은 도덕적 죄과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나 그 밖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 이렇습니다. 저는 제 지인 중 일부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에게 고치라고 충고합니다: 한 번,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하지만 그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주의를 준 후에도 그가 계속 제멋대로 행동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에 휩쓸려 그를 흉내 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쉽게 흉내 냅니다. 그래서 그 제멋대로인 행동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보호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누구누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에게 직접 오백 번이나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약점을 지켜보는 다른 이들이 그 영향력에 휩쓸려 그를 흉내 내고, 게다가 “파이시이 장로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 그의 행동에 별 문제 없는가 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제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면, 마치 제가 그것을 축복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것을 좋아한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횡포를 부리는 사람의 방식이 옳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것을 따라 하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내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동안 그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게다가 마귀가 바로 그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 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파이시이 장로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고치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며⁶⁰,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 “누구누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를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어? 그건 비밀이었잖아.”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 “무슨 비밀이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 번이나 말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잖아. 네가 하는 짓에 내가 동의한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릴 권리는 너에게 없어!”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망치다니! 특히 내가 아는 가족의 아이가 찾아와서, 그 아이의 행동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말한다. “들어봐, 네가 고쳐지지 않으면 네 엄마에게 이 일을 말할 거야. 아무도 네게 내게 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는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나는 너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네 어머니께 말할 것이다.” 만약 그 아이에게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의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

⁶⁰ 티피콘(그리스어) – 규약, 본보기; 여기서: 생활 방식, 습관. – *번역자 주*.

제4장.

행동할 때는

현명함과 사랑으로

자기 수양

교회를 돕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을 더 잘 고치도록 노력하라. 네가 스스로를 고친다면, 교회의 일부도 즉시 바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분명,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면 교회는 완전히 질서 정연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온갖 일에 신경을 쓰는 데, 이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쉽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기 수양에 힘쓰고, 주로 신의 도움을 의지하여 외적인 활동보다 내적인 활동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얻게 될 것이며, 이 평온은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영적 상태는 마음의 미덕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화된 내적 영적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외부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 투쟁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혼란과 고뇌를 겪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져 자주 평안을 잃게 될 것이다. 자신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공동의 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낯은 사람과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해방되면, 그는 이미 신성한 은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의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 것이며, 그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갖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도 없고, 결과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질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다. 먼저 그 자신이 은총 속에 깊이 잠겨야 하며, 그 후에야 비로소 이미 거룩하게 된 그의 힘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선한 일은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 게론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검토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또 거기서는 어떨까?.. 이 일로 인해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길까?..” 항상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제가 내린 결정이 가능한 한 가장 올바른 것이 될 테니까요. 부주의로 인해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며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깨닫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는 이미 날아간’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주의로 집을 불태웠다고 합시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을 처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끔찍한 일은 벌어진 뒤입니다 ...

[어느 날] 한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곳의 책임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제가 어디로 가서 누구와 누구를 찾아내서, 이러저러하게 말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죠.” — “문제는,” 내가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의 일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숯불 몇 개가 있었을 뿐인데, 저절로 꺼졌을 텐데, 이제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칭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큰 소동을 일으켰고,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한 일이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익을 가져오려면 많은 주의와 분별력,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 대신 상대방을 화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려고 생각하는 일은 충분히 숙성되도록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일을 ‘미숙한 상태’에서 ‘강행’하거나, 즉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어려움에 부딪혀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은 조금만 미루면, 나중에 더 빠르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나더라도, 자만심과 이기심이 행동에 앞서게 될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간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냥에서 개가 순종이 아니더라도 주의 깊게 찾아보면 토끼의 흔적을 발견한다. 반면, 가장 순종에 가까운 개라 해도 최고의 개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서두르면 이리저리 헛되이 뛰어다닐 뿐이다.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므로 서둘러 행동하지 말고, 미리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앞서면, 이성적인 허튼소리나 경솔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이성이 작용한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종종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아십니다. 제 말은, 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나이 산에 있었을 때, 한 호자⁶¹가 매주 금요일마다 수도원에 와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모스크의 미나렛 위로 올라가서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찌렁찌렁했는지! 심지어 위쪽, 성 에피스티미아의 동굴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수도원 측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금요일마다 호자가 올 때면,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도원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래로 내려가 보니 호자가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 그가 말하길, — 내 코앞에서 문을 닫는 게 어떤 건지 그들에게 보여 주겠어!..” 내가 말했죠. “그 문은 낙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닫은 거예요. 당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닫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후 나는 이 일을 수도원의 신부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비서가 말하길, “내가 그 호자에게 한 번 보여 주겠어! 내가 그 자식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겠어! 정부에 호자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신고할 거야!” — “이봐요,” 내가 그에게 말했죠, “정교회는 약이 아니잖아요. 시나이 산의 성스러운 수도사들과 성녀 카타리나를 위해 기도회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나도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수도원 형제들 중 몇 명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했고, 결국 호자는 제 뿔을 툭툭히 치렀지! 짐을 싸서 떠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만약 문을 계속 닫아두었다면, 정부는 어차피 호자가 우리를 탄압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냈을 테고, 큰 소동이 일어났을 거야. 호자는 자신이 매주 금요일에 왔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말했을 것이고, 수도원에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한 [부자]가 [시나이] 산을 보고 성 캐서린 봉우리에 별장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그곳에 무언가를 짓고 싶어 했으나,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우리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한 행동

— 게론다, 누군가가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할까요?

—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분별과 신성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각 개별 사례마다 500가지의 ‘부수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쳐지지

⁶¹ 호자 – 무슬림의 종교 재판관이자 교사. – *번역자 주*.

않으며 우리의 지적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매우 나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종종 깨닫더라도, 그런 사람은 이기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흠잡을 데가 없을 때,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배려 외에도 우리 안에 자만심이 섞여 있거나, 우리의 사랑이 순수하지 않을 때, 그는 매우 강하게 저항합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우러나와 아픔을 품고 누군가를 책망한다면, 그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랑 없이 편견을 품고 책망하면, 책망받는 사람은 짐승처럼 변해 버립니다. 우리의 악의가 그의 이기심을 때리면, 라이터 속 강철이 부싯돌에서 불꽃을 튀기듯 불꽃을 튀겨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를 참아 준다면, 그는 이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의도 그는 이해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면에만 머물러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의가 그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불안을 가져오는 반면, 진정한 천사는 부드럽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 그러니까, 헤론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행동의 출발점이 이기심이라는 뜻인가요?

—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죠. 하지만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는가? ‘이웃을 위해 마음이 아파서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고 싶은가?’” 사람이 정화되었다면, 설령 화를 내거나 소리치거나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더라도, 그 동기는 순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인 정화됨이며, 신성한 깨달음이자 영적 명료함입니다. 그렇다면 내면 깊은 곳에서 이성과 이기심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동기가 순수할 때, 사람의 마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라고 지시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기심이 개입되면, 여러분은 이웃을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겸손함이 있다면, 그 지적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이기심이 개입되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동기가 자신의 ‘나’, 즉 이기심에서 벗어나면 모든 면에서 순수해질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행동은 종종 정신이 나간 자들의 행동보다 더 큰 악을 낳습니다. 정신

이 나간 자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자신과 타인의] 머리를 부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말로 예민한 영혼을 상처 입히고, 종종 그들을 절망에 빠뜨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모자만큼과 통만큼 같은 양을 담을 수는 없고, 소에게 말만큼의 짐을 싣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소는 발을 갈기 위한 것이지, 안장과 짐을 엮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말도 마찬가지로, 발을 갈게 묶어서는 안 된다. 말은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 일을, 다른 하나는 저 일을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을 자신의 잣대에 맞춰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줄 수도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생에서 이미 [자신에게 어울리는] 지위에 들어설 수 있다면, 모든 난폭한 행위는 사라지고, 땅 위에도 낙원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타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자.

영적 진실함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요즘 세상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위대한”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달콤한 말과 위대한 진리는 진실한 입에서 나올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그것들은 선한 의지와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뿌리를 내린다.

— 게론다, 진실함에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 네, 물론입니다. 세속적인 진실함에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 사람이 상황에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할 때를 말하는 건가요?

—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지만, 분별 없이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말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진실하기 위해 광장으로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함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풍부한 사람은 너그러운 사랑과 희생 정신, 겸손함을 지니고 있다. 그런 사람은 쓰디쓴 진실조차도 매우 소박하게 말하며, 자신의 선함으로 그 진실을 달콤하게 만든다. 그 결과, 달콤한 말과 함께 전해지는 진실은 더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데, 마치 쓴 약도 달콤한 시럽과 함께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내는 것과 같다.

분별 없이 사용되는 진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행동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분별 없이 진실함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먼저 자신에게, 그다음에는 타인에게 말이다. 왜냐하면 그런 진실함에는 연민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진실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적인 진실함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다면, 그는 오직 자신만을 소외시키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 진실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는 타인을 조롱하는 것이므로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 게론다, 순수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 무슨 단순함이요! 그런 사람에게서 어디 단순함을 보았단 말입니까! 만약 아이라면 단순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자라면 단순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가 없는 성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악마입니다!

—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한 유혹이 끝나면 또 다른 유혹이 이어집니다. 유혹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 하지만, 게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솔직함은 그 안에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지/붕 위에서’ 설교한다⁶²”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율법의 문자는 죽인다”⁶³

어느 날 나는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전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전사입니까? 마귀에게도 전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분별 없이 말만 내뱉는 사람은, 설령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한 작가와 친분이 있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세속적인 사람

⁶² 참조: 루카 12, 3.

⁶³ 고린도후서 3장 6절 참조.

들과 대화할 때는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들을 뒤흔드는 거친 언어를 사용하곤 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어떤 모임에서 나는 한 부인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그녀를 상처 입힐 정도로 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모욕한 것이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관을 던져주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던지다 보니 머리를 부수고 있어요.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튼튼한 사람의 머리도 말이죠.” “기독교인답게”[따옴표] 돌로 사람들을 때리는 일은 그만두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자를 고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에 이끌리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을 통해 행동하며,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교회는 모든 것을 인내심으로 바라보며,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각자를 돕고자 노력한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논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본다. 그들의 경건함은 좋은 것이고, 선을 향한 마음가짐도 좋은 것이지만, 경건함의 동반자가 편협함이 되지 않도록, 머리가 너무 굳고 고집스러워 뾰족한 말뚝이라도 깎을 수 있을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너그러움이 더 필요하다. 모든 기초는 영적인 상태를 갖추어, 사람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깃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게 되는데, “율법의 문자는 죽입니다.” 겸손을 가진 사람은 결코 스승인 척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묻는다면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나”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이 내게 말하길”이나 “선배들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제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심이 많습니다.

— 게론다, 누군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극단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 그 행동에는 이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버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성화 숭배자들과 성화 반대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도 극단이고, 다른 하나도 극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끌어내어, 신성한 성찬을 “개선”하기 위해 그 가루를 성배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성화를 불태우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성화를 높은 곳에 모셔야만 했고, 분쟁이 가라앉자 우리가 성화를 숭배하고 그 안에 묘사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다시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한다

— 게론다, 저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의 눈에 실망을 안길까 봐 두려워하며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작용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실책으로 비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좋아,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는 마음에 드시겠는가?”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잊는다면, 결국 하나님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거나, “아, 저 사람은 무신론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곤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두며 경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시편에 기록된 그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맑게 보았으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⁶⁴ 그들이 바로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식 ‘티피콘’이 서서히 유행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단지 세속적인 예의범절 때문에만 겉으로만 양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순수하게 행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면에는 인간적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의 핵심은 그리스도여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어떤 동기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나는 그 마음을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섞인다면 — 아, 그건 마치 구멍 난 양동이로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⁶⁴ 시편 15:8.

대부분의 유혹은 종종 우리의 ‘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 내면에 ‘자아’가 존재할 때, 즉 개인적인 계산에 의해 움직일 때,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개인적인 만족을 얻고자 할 때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세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영적인 하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낮게 걷는 사람은 언제나 확고하게 걷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자만과 세속적인 행운, 즉 영적인 불운을 뿌리 뽑아내자.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숨겨진 것과 노골적인 이기심과 사람에게 아첨하는 태도를 혐오합시다. 우리 시대는 고요함이 아니라 선정성과 헛된 소란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조용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즉, 조용히,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목표를 좇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 영혼과 육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종종 교회에도 해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웃에 대한 봉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순수하게 만들 것인가, 즉 그 안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제거하여, 이 인간적인 헌사(즉, 이웃에 대한 봉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 겉으로는 정교회의 방식대로 교회 문제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이 스스로를 좀 더 “정돈”하려는 것, 즉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며,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마치 샘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어오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는 영적 감수성을 갖춰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한 곳에서는 이렇고 다른 곳에서는 저렇지 않으시며, 그분은 유일하시며 수많은 은사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혼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영이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할 때, 그것은 그들이 성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다른 영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다! 오늘날 그분은 내려오실 전제 조건을 찾지 못하십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무해한 장난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네가 흙을 달라고 했더니, 짚을 가져다주었다. 지금 우리에게서 정욕이 얹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네가 흙을 달라고 하면, 누군가 네 머리에 벽돌을 던진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동에서 ‘나’를 제거하고

자신의 의지를 잘라낸다면, 그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성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며, 이웃과의 상호 이해의 정신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내면의 사상을 제거할 때, 그에게 신성한 사상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신성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감수성을 갖춘 기관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특히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핵심이다. 상황 자체가 이를 강요하고 있다. 보십시오: 당시 소아시아에서, 그 힘든 시절에, 상황은 그리스인들이 머리를 굴리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그리스인은 아르메니아인, 터키인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들(아르메니아인과 터키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삶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보며,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 간에 상호 이해를 찾아야 합니다. 힘든 시절이 올 것입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고 신성한 깨달음도 없다면, 매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시를 구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코니체에서, 제가 군대에 가기 직전, 반란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⁶⁵ 우리는 네 명이었는데, 저와 무슬림 세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에 있는 한 터키인 집으로 뛰어들었다. 다섯 살짜리 터키 소년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네가 도망칠 길은 내 부엌을 통해서야!”라고 재빨리 말했다. 우리는 부엌을 지나 집 뒤쪽으로 나와 아래층에 있는 창고 같은 곳에 숨을 수 있었다. 반란군이 도착했을 때, 그 꼬마는 집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 뒤 도망쳤다. 다섯 살짜리 아이, 저렇게 조그만 꼬마가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보라, 얼마나 현명하게 행동했는지. 참,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파악했구나! 보세요: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사랑했지만, 다른 어른이라면 경솔함으로 인해 악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례를 받고 성유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가르침을 받고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날개를 펼치십시오! 누가 날개를 펼친 자들인지 아십니까? 여섯 날개를 가진 세라핌들입니다! 그들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것을 퍼덕이며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날아가십시오,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십시오!

⁶⁵ 즉, 공산주의 반란군. - 역자 주.

신성한 깨달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종종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주시는 대로”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사람이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신성한 계시를 통해 사물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헤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한 계시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 전선의 녹을 제거하면 낡은 사람도 좋은 전도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고 신성한 은총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반대의 경우 단락이 일어나고 은총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래야만 신성한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계시가 없다면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이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에게는 세상을 돕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에야 비로소 얻게 된 신성한 깨달음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등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추대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을지에 대해 신경 썼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왕국에서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을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을 왼쪽에 앉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사도들은 이미 끊임없이 신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었다가 다시 방전되는 것처럼, 때때로만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콘센트에 다시 연결하여 충전해야 했습니다. 다시 방전되면 또다시 콘센트에 연결해야 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콘센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죄를 감경해 줄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위로자가 계시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고, 마귀가 어느 정도 권세를 행사하며 사람들을 쉽게 유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성한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미 영구적으로 ‘콘센트’에 연결해 두셨습니다. 지금 신성한 은혜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전선을 녹슬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요?

— 수행자의 정신, 겸손, 순결, 너그러움,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총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빛이시며, 신성한 빛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면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오물 속으로, 심지어 심연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조심하게 됩니다. 더 잘 본다면 이러한 모든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빛이 오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비록 조금 흐릿하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진흙이나 가시덤불, 절벽으로 떨어질 때 슬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슬퍼하시겠는가!

세상의 모든 악은 신성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신성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하며, 세 번째 사람은 “저쪽으로”, 네 번째 사람은 “이쪽으로”라고 합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모두 선을 원하지만 혼란에 빠져 있어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혼란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길이 더 나은지 분명히 보고 함께 그 길로 나아갔을 테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선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혼란 때문에 사회와 교회 모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대다수가 악한 의도를 품고 있지는 않지만, 신성한 계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선을 위해 싸우지만,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적어도 조금이라도 신성한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눈먼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될 테니까요. 성찬례에서 사제가 “주님의 것은 주님께”라고 선포할 때, 저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어 어둠이 걷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우스가 “하나님께서 모임에 나아가는 자들을 비추시기를” 바라

며 읽었던 제2편 시편을 읽으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그다음 성직자들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여 세상을 돕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조금만 깨우쳐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면,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이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통치자가 한 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신성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신성한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한 판사가 제게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를 500 금 리라를 가지고 땅을 사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수도사가 어떤 상인에게 말을 걸었더니,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을 나한테 맡겨 두세요. 왜 그걸 직접 들고 다니시나요?” 수도사는 그에게 돈을 맡기고 선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 집을 덜어주다니!” 그가 돌아왔을 때, 상인은 500 리라를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가 자신에게 800만 리라를 빚졌다고까지 말했다! 불쌍한 수도사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할까?! 500 리라를 건넸는데 아무것도 사지 못했고, 게다가 800만 리라를 더 갚으라고 요구받았으니! 결국 재판에까지 이르렀다. 판사는 영감을 받아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상인이 수도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리르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나는 이 판사에게서 예언자 다니엘이 지녔던 그 경지를 엿볼 수 있었다.⁶⁶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고, 그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신성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찾아오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불과 상들리에—[인간의] 이성이 발명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성한 빛은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사물을 매우 맑게 바라보고, 의심 없이 깨달음을 얻으며, 자신은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매우 성공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⁶⁶ 단 13, 45–62 참조.

제2부.

수행과 경건함에 대하여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깊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는 수련하며, 번창하고, 열매를 맺으며, 영적으로 양육받고, 천사처럼 기뻐한다”

제1장.

“선한 업적”

영혼의 성화를 위한 투쟁

탕갈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세심하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볼 때면 저는 무척 기쁩니다.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 남자에게는 용기를, 여자에게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투하며, 신성한 은총의 도움으로 영적 사다리를 오르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외에도,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스도 자신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케루빔, 세라핌, 그리고 모든 성인들이 우리 곁에 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담대합시다! 그리스도는 매우 강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악마의 “뿔을 꺾을” 수 있도록 그분의 신성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힘닿는 대로 작은 영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를 굳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능한 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피합시다. 우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다면, 적어도 호기심을 피하여 우리의 눈이 최악된 장면을 빨리 쳐다보지 않게 하고, 악마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영화 상영회를 열어주지 못하게 합시다. 타오르는 숯덩이를 집어 손에 짹 쥐면, 당연히 손을 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숯덩이를 손 안에서

굴러본다면 — 물론 너무 오래는 아니지만 —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쁜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그것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 눈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단지 살짝 스칠 뿐이므로, 그 이미
지들이 나중에 영혼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부주의하여 나쁜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회심한 후에는 원수로부터의 모욕을 불
평 없이 참아내되, 악한 욕망을 키우지는 말아야 한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련한다면, 정화되어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나쁜 습관을 들인 적도 없으며, 큰 비난도 받지 않는 순결한 사람들의 경지에 이를 것
이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는 이들은 크게 성공할 것이다. 지형을 알지 못한 채 지뢰밭을 걸을 때,
사람은 매우 느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된다. 그
러나 지형을 안다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자신 있게 그리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 자신의 영혼이라는 경작되지 않은 밭을 가꾸기 시작한 사람은 그곳에서 정육이라는 가시들을
모두 뽑아내고, 그 자리에 미덕을 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의지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 게론다, 이 일의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매일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에 대항하는 영적인 무언가를 자신 안에 심으려 노력해야 하며, 그렇
게 조금씩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고, 나중에는 영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기억 속에 있는 죄악된 장면들을 거룩한 형상으로, 세속적인 노래들을 교회 찬송가로, 세속적인 잡지
들을 영적인 책들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속적이고 죄 많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
도, 성모 마리아, 성인들, 승리의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면 — 영적 건강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 게론다, 영적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 영적 건강이란 순수한 생각, 깨달은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
리아를 품고 있는 정화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깊은 주의, 자기 성찰,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건강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을 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분별력은 선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물론, 삶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부활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선
행됩니다. 시련의 타격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혼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옷을 빨 때와 같습니다. 빨 때 더 세게 문지르면 문질수록 옷은 더 깨끗해집니다. 문어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어를 더 많이 두들길수록, 문어는 더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물고기도 바다에서 살아서 해엄칠 때는 물론, 시장에서 비늘이 붙어 있고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채 놓여 있을 때조차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깨끗이 손질되어 겉모습이 흥해져 있고, 그 후에 구워져야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벗어던지면, 겉으로는 삶과 세속적인 활력—비늘—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긁어내고 ‘굽혀진’ 후에야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든, 악마의 시기심 때문이든) 북풍—시련—의 추위에 시달리게 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그 후 많은 햇살의 온기와 영적 상패함이 필요하다. 마치 겨울 해빙기의 기만적인 온기에 순진하게 싹을 틔웠다가 그 후 무자비한 북풍에 휩쓸린 나무들처럼, 그 나무들의 수액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후 많은 봄의 햇살과 이슬비가 필요합니다.

— 게론다, 영적 회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담긴 수고입니다. 단순함과 사랑이 담긴 수고는 내면의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주며, 그때 영혼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투쟁하는 자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와 사랑, 그리고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서 솟아나며,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은 영적인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사랑 어린 끈기와 자기 성찰만으로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천사들, 그리고 성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읽기, 기도, 내면으로의 집중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싸움*”⁶⁷을 치르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는 모든 성인들이 육신을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 행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상처를 입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용기를 내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도

⁶⁷ 참조: 1티모 6, 12.

움으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마치 양치기들이 상처를 입거나 늑대나 개에게 물려 애처롭게 울부짖는 어린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 도와주듯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눈물 흘릴 만한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수고하는 이들에게 나는 더 큰 사랑을 품고, 끊임없이 그들을 마음에 두며, 정욕에 시달리지 않는 이들보다 그들을 위해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양치기에게도 상처 입거나 쇠약해진 어린 양은 다른 양들보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며, 그 어린 양이 건강해질 때까지 특별히 돌보게 된다.

때로는 우리가 올바르게 영적 투쟁을 벌이면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전쟁을 선포하자, 그 악령이 사탄에게 증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일 년 전에는 한 마리의 악령과 싸웠다면, 지금은 오십 마리와 싸우고 있으며, 일 년 후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를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주십니다.

— 게론다, 누군가 수련을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쩌면 교만하게 수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영적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찮은 일에 낭비해 버리고, 그 결과 영적 수련에 필요한 힘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적을 향해 공세를 시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 전투를 준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적은 패배를 두려워하여, 다른 전선에서 교란 작전과 공격을 통해 우리를 분열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주의를 돌리고, 군대를 좌우로 파견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탄약과 식량은 줄어들며, 부대에는 낡은 군복을 지급하게 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힘이 고갈되어, 우리는 적과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 게론다, 영적 성장에 주변 환경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성자들 사이에서 살면서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유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까요? 유다는 겸손함도 선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배반한 후에도 그는 다시 겸손해지지 않았고, 분노와 이기심으로 은전을 내던지며 교활하게 목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악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일이 끝난 후, 그들은 유다에게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⁶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 정직하게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 즉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그가 처한 영적 상태는 얼마나 훌륭했는지!⁶⁹ 지금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신성한 은총이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신성한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스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변영할 때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그 위대한 기쁨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변영하고,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에 달려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영적 독서

— 게론다, 선한 염려가 싹트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먼저 복음을 읽게 하여,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그들이] 조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구약을 읽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가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교수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한 고민조차 없이 와서 “신부님, 저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그냥 신부님을 뵙러 들렀을 뿐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어쨌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마치 식료품점에 가서 “물건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식료품점 주인도 당황할

⁶⁸ 마태복음 27, 4.

⁶⁹ 창세기 19, 1-38 참조.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지 않고—쌀 몇 컵, 설탕 몇 컵 등—그저 “물건 좀 주세요”라고만 말하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약사에게 가서 “약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의사를 찾아갔는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고민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이해하고, 그것을 찾아서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신앙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잊지 않기 위해 그 내용을 베껴 쓰고, 읽은 내용을 실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는 선한 갈망이 있었고,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올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내용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스스로를 피고인석에 앉히고, 읽은 내용이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가는] 면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읽다 보니 마치 녹음기처럼 되어, 불필요한 것들로 자신의 카세트를 채워 버립니다. 그러나 성 이삭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수치의 보증이다.”⁷⁰ 마찬가지로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들은 소파에 앉아 헛되이 스포츠 잡지와 신문을 읽는다. 정작 자신들은 송아지나 다름없으면서도 운동선수들을 찬양한다. “와, —라고 말하곤 합니다, —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해, 잘했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체중을 단 1킬로그램도 줄이지 않습니다. 스포츠에 대해 계속 읽기만 하면서 소파에 누워 지내며 이로부터 유익은커녕 오로지 읽는 즐거움만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신문을 읽는 이도 있고, 모험 소설을 읽는 이도 있으며,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전하는 이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영적인 책을 읽는 사람들 중 일부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이 책들을 푹 빠져서 읽으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영적인 책을 집어 들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읽습니다. “나는 유익을 얻었다”라고 그들 중 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차라리 즐거움을 얻었고, 시간을 유쾌하게 보냈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읽은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칠 때만 이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⁷⁰ “그러나 행동에서 비롯된 말은 희망의 보물창고이며,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혜는 수치의 근원이다.” *아바 이사악 시리 아인*, 『저작집』, 세르기예프 포사드, 1911, 7쪽 참조.

더 큰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책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에 대한 그런 태도는 위선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만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가 기억력이 좋아서 많은 것을 기억해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거짓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많은 독서로 마음을 달래지 마십시오. [읽은 내용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많은 독서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준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 네, 게론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될 생각도 없고, 많은 것을 알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갖추면, 필요할 때 다른 분야의 지식도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마음이 산만할 때 독서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네, 영혼이 따뜻해지도록 아주 깊은 내용을 조금 읽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읽은 내용에 가려지고, 마음은 신성한 영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일들로 빠져들게 됩니다.

— 헤론다, 누군가 피곤하거나 속상해서 가벼운 것—예를 들어 단편 소설이나 중편 소설 같은 것—을 읽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런 경우에 읽기 적합한 영적인 책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목적은 사람이 자신의 우울함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문학 작품은 해방을 주지 못합니다. 소설도, 신문도, 텔레비전도 영적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적 잡지조차도 종종 어리석은 질투를 부추기고 당혹감을 일으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곤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여가 시간에 불필요한 것은 읽지 마십시오. 특정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은 마치 묶은 호박 수프로 배를 채우는 것과 같고, 밀알 한 알을 찾기 위해 쟁더미를 뒤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책을 읽으면 휴식이 되거든요.” 이봐, 친구, 그런 ‘잡동사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따가운데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잠을 자는 편이 휴식을 취하는 데 더 낫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읽는지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부도덕한 잡지를 읽을 것이다.

그다지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더럽지 않은 잡지나 신문을 읽을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영적인 간행물, 현대 영성 서적, 또는 성부들의 저서 등을 읽을 것이다.

— 게론다, 어떤 영적 서적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까?

— 오늘날, 하느님의 은혜로 수천 권이나 출판되고 있는 다양한 성부들의 저서들은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책들 속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진정한 영적 양식이며, 영적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이 책들이 도움이 되려면 겸손과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성부들의 저서는 단층 촬영과 같습니다.⁷¹ 단층 촬영에 사람의 신체 상태가 드러나듯이, 영적 서적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성부들의 저서 속 각 문장에는 하나가 아닌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원문을 직접 읽는 것이 좋으며,⁷² 번역본보다는 원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가는 자신의 영성에 따라 원문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며,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부들의 영은 오직 영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바 이사악 시리노의 수행에 관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영적 양식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조금씩 읽어야 합니다. 『에베르게티노스』⁷³는 [이 책을 통해] 성부들의 영 전체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 책은 성부들이 모든 정욕과 싸운 과정을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영혼은 성부들이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깨닫고 유익을 얻습니다. 성인들의 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거룩하게 된 역사이므로, 특히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동화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함을 얻기 위해 많은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적은 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편의 트로파리만으로도 내면이 뒤집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외우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실재 밖에서 움직이고 있기

⁷¹ 단층 촬영(토모그래피) – 서로 다른 깊이에 위치한 대상의 개별 층에 대한 음영 영상을 얻는, 층별 X선 검사이다(『의학 백과사전』 참조). – 역자 주.

⁷² 이 경우, 장로는 고대 그리스어로 된 교부 문헌과 이를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옆두에 두고 있다. 러시아 영성 문헌에서는 슬라브어로 된 교부 문헌과 이를 현대 러시아어로 번역한 텍스트가 이와 유사한 관계를 이룬다. – 번역자 주.

⁷³ “에베르게티노스”는 비잔틴 시대에 콘스탄티노플 에베르게티스 수도원의 수도사 파블로스가 편찬하고, 18세기 말 성 니코디모스 스비아토고르츠에 의해 처음 간행된 4권으로 구성된 성부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선집이다.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부들의 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이는 몸을 매우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진정한 경배자들...”⁷⁴

“이 작고 정겨운 작은 성당에서는,” 어떤 이들은 말하길, “나는 신성한 전례를 온전히 체험하지만, 큰 성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회가 회반죽으로 마감되고 하얗게 칠해져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벽화가 그려져 있고 훌륭한 성상벽 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성한 전례를 체험한다.” 이는 먹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식욕이 생기도록 음식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 그러니까, 게론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마법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느끼려고 애쓰게 되고, 어두운 수도실, 희미한 등불,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성당을 찾게 되며,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마음 가짐은] 똑같아야 합니다: 기차 안이든, 동굴이든, 길 위든 말이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작은 성당으로 만드셨고, 그 성당은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찾지만, 평안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한 성지부터 다른 성지로 순례를 떠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 곁에 계십니다. 수고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쳐 버리고 결국 그분을 찾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이리저리 떠돌며 여러 명소를 구경하는 일에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위로를 받은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에게 신성한 위로가 없다면, 그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의 열망과 관심사 또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인 무언가를 통해 평안을 얻으려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성산에 찾아와 여러 신부님을 만나고, 각자에게서 들은 말에 고무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말의 의미를 뒤섞어 놓곤, 게다가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⁷⁴ 요한복음 4장 23절 참조.

.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단 한 분의 신부님을 찾아가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면, 진정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적 관광”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목적 없이 괴로워하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한 분의 신부님을 따르며 들은 말씀을 실천했다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때라면 그들은 내면적으로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테지만, 지금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산의 푸른 풍경을 감상하며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성모님께 가겠다, 저 성모님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성모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들은 경건함에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즐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외심과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설령 주님의 성묘에 있는 쿠부클리야 안으로 데려가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외심이 있다면 골고다에서도 은총의 불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성 사바 라브라의 한 수련자가 대토요일에 자신의 수도원을 위해 성묘로 성화를 받으러 왔다. 보통 인근 수도원들은 수도사들을 보내 성화를 받아오게 한다. 수련자는 교묘한 방법을 썼다. 수도복을 입은 채 평신도들을 밀쳐내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나중에 성직자들이 도착하자, 누가 어디에 서야 할지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뒤로 밀려났다. 그때 수련자는 스스로를 꾸짖기 시작했다. “아, 이 저주받은 죄인아, 아, 이 망할 영혼아, 그 더러운 본성을 다 드러내며 앞쪽으로 기어올라가다니! 어서 여기서 꺼져, 사라져 버려! 넌 성전에 있을 자격조차 없어!”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한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는 성전에서 나와 그리스도께 간구했다. “나의 그리스도여, 청하오니 저를 혐오하지 마시고 다른 성지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골고다로 올라가 그곳에서 다시 자신을 저주했다. “생각해 보라, 네가 얼마나 교활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 하찮은 자여, 수도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다른 이들을 밀어냈으니...” 그리고 그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던 어느 순간, 성스러운 골고타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나와 그의 온 존재를 꿰뚫었다. “은총의 불이 내려오셨다!” — 그때 그 불쌍한 사람이 말하며, 골고타로 가서 은총의 불을 자신의 랜턴에 담아 떠났다.

— 그러니까, 게론다, 예를 들어 성지 순례 같은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기차나 비행기, 호텔에서 [오히려]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장소로 향했다가 그곳에서 엄청난 세속적 난동을 목격한다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려면,

매우 강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 여행 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그 가이드, 차라리 가끔은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하지 않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기는 겿세마네, 여기는 주님의 지성묘”라고 말해야 할 텐데, 대신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한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왔죠” — 하며 순례자들을 슬그머니 [거의] 쿠웨이트로 ‘끌고 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고 이곳이 주님의 무덤이고, 이곳이 겿세마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해설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만 필요할 뿐이지만,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익을 얻기는커녕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게다가 한 성지에서 바로 도망치듯 나와 다른 성지로 달려가니, 들은 내용이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순례 동행자와 지도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사전에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야니체에 정착한 파라스 출신의 한 이주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지가요?⁷⁵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30분, 돌아오는 데 30분 걸리잖아요. 이게 하지가 될 수 있나요?” 옛날에는 가난한 순례자 여성들이 성지에 머물며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 또 여관비에 돈을 쓰지 않고 자선을 베풀기 위해 그곳에서 밤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도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늘로 떠났는데 양파로 돌아왔구나.”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우스는 10년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고, 배를 타기 위해 5일 동안 걸어서 메르신까지 갔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좀처럼 보기 힘들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한 러시아인이 내 칼리바를 찾아왔던 일이 기억난다. 그곳은 일본 맞은편에 있다. 그는 성지로 걸어서 가겠다고 서원했다. 그가 주교님께 축복을 받으러 갔을 때, 주교님은 그에게 “미친 놈, 도대체 어디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모스크바 근처 자고르스크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서 한 장로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활절에 그는 자고르스크에서 걸어서 출발해 10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70킬로미터씩 걸어 나갔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그는 걸어서 성산(성산)에 도착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 그에게는 진정으로 신성한 소명이 있었으며,⁷⁶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했다. 그는 그리스어를 조금 알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말했다. “거기서 적그리

⁷⁵ 하지(문자 그대로 ‘순례자’) – 동방에서 성지 순례를 마친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이는 존칭 – 역자 주.

⁷⁶ Θεῖος ἄρως (그리스어) — 역자 주.

스도를 만나 순교자가 될 줄 알았고, 그가 내 목을 베어버릴 줄 알았지! 하지만 그곳에는 그가 없었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성묘 앞에서 너를 위해 절을 올릴 테니,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해 줘.” 그는 벌떡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돌에 부딪힐지 내게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성지로 여행하는 방식—관광을 목적으로 경건함 없이—이라면 차라리 그곳에 가지 않는 편이 낫다.

성지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뚜렷이 느껴지는지! 예를 들어,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조차 모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곳에는 라틴어로 “via Dolorosa”라고 쓰인 표지판도 있다.⁷⁷ 그리고 주님의 성묘 앞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성직자, 평신도, 어떤 이들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으며, 긴 옷을 입은 이도 있고, 짧은 옷을 입은 이도 있고, 거의 옷을 입지 않은 듯한 이도 있으며, 머리를 깎은 이도 있고, 긴 머리를 한 이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민족, 각기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부족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다양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 가톨릭 신자이고,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인이고... 하지만 모두 그곳에 와서 성지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그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적으로 고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 게론다, 만약 순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함이 없다는 뜻인가요?

— 아닙니다. 저는 성산의 모든 수도원을 다 가보지 못했고, 많은 성지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요한 루스키의 성지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성인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성스러운 장소에 [유해가 안치된] 성인을 경외하는 마음은 좋은 일이지만, 굳이 그곳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다.*’”

우리 영혼의 구원

— 게론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의심합니다. 어떤 태도가 더 옳은 것입니까?

⁷⁷ 고통의 길 (라틴어).

—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설령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 있지만 내일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의 헛됨을 깨달은 이들은 가장 위대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지력을 얻어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을 미리 생각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영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다.”⁷⁸ 그러니 영혼의 존엄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은 위대한 일입니다.

— 그러니까, 게론다, 구원에 대한 희망도,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방탕함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의 투쟁에서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승리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갈로시만 신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본성상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밀어넣으실” 것이며,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며, 그가 회개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가 평생 고군분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를 데려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구원이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천국의 문은 좁지 않으며,⁷⁹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저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즉 자신의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그때 그들은 자유롭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며, 천사들처럼 오직 영으로만 이

⁷⁸ 마태복음 16, 26 참조.

⁷⁹ 물론 장로는 이 말로 천국의 문이 좁다는 잘 알려진 복음서의 주장(마태복음 7, 13-14 및 누가복음 13, 24 참조)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이 넓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번역자 주*.

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구주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단 한 마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뿐인데 구원받았습니다.⁸⁰ 사람의 구원은 한 순간이 아니라 단 한 초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은 구원받지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자만심으로부터만 구원받아야 하며, 그 외의 어떤 것에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형상인 우리 이웃을 향한 겸손하고 사랑 어린 태도, 그리고 작은 자비로운 실천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 평안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⁸¹

제2장.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악마는 수행자를 무력화시키려고 애쓴다

— 게론다, 때로는 유혹이 연이어 닥쳐와서 제게는 힘이 없네요...

— 유혹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네.

—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의 동맹이 되는 것이다! 왜 웃는 거냐?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럼 잘 들어라.

사람이 투쟁하는 한, 그에게는 유혹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유혹을 피하려고 더 애쓸수록, 마귀는 그에게 더 강하게 반기를 든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과 상충하기 때문에, 유혹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복음과 조화를 이루게 할 기회가 주어진다.

⁸⁰ 참조: 루카 23, 40-43.

⁸¹ 물론, 장로의 말씀은 교회에서 수련하며 성사에 참여하는 정교회 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 저요, 게론다, 사소한 일들에 얽매이다 보니, 그 후에는 더 높은 것을 위해 수련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 그것은 마치 적군이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지뢰와 같습니다. 탄갈라슈카는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소한 일들을 이용해 수행자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작지만 상당한 해를 끼치는 작은 탄갈라슈카들도 있다는 것ですよ. 어느 날 한 작은 탄갈라슈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넌 뭘 할 수 있니?” — “내가 뭘 할 수 있냐고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재봉사나 구두장수에게 가서 실을 엉키게 하고, 그들을 화나게 만들죠!” 가장 큰 유혹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 간에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유혹을 받을 만한 심각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악마는 사소한 일들을 빌미로 삼습니다. 악마는 어리석은 일이나 유치한 일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감각해져서 마치 그루터기처럼 제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 게론다, 왜 영적 생활의 규칙과 질서를 정하고 처음에는 수련할 마음가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자제력을 잃고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 너 스스로도 모르겠니? 탄갈라슈카는 우리가 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 버린다. 스스로 어떤 질서를 정하고 한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다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가 부족하면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모든 일에서 마귀를 거스르며 나아가야 하며(물론 이성을 바탕으로), [게다가]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가 그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사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세심한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과도 싸움을 벌이는가?

— 사탄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수행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를 유혹하여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죠. 원수는 스스로를 정교하게 다듬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며 정교한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시 바늘로 바느질하는 사람에게는 집시 바늘을 든 악마를 보낼 것입니다. 섬세한 수공예에 몰두하는 이에게는 섬세한 수공예를 하는 악마를 보낼 것이다. 가장 정교한 자수 장인에게는 매우 섬세한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악마를, 자기 수양에 거칠게 임하는 이들에게는 거친 악마를 보낼 것이다. 초보자에게는 초보자용 악마를 보낸다.

마음이 섬세하고 애정이 많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악마가 꼬리를 휘두르며 그들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결국 낙담에 빠지거나 심지어, 하느님께서 금하시기를, 자살에까지 이

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비록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웃과 대립하고 다투도록 부추기지만, 정작 자신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를 더욱 게으르게 만들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니, 기도하러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그를 달래준다. 경건한 사람을 악마는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 교만으로 빠뜨리거나,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위업을 하도록 부추겨, 원래 열심 있던 수행자가 기진맥진하게 만든 뒤, 결국 모든 영적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악마는 무정한 사람을 더욱 무정하게 만들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또 어떤 이는 흔들리는 신경 탓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며, 약을 삼키거나 병원에서 헛되이 고통받고 있는가! 오늘날 균형 잡힌 사람을 보기란 드물다. 사람들은 마치 축전지처럼 되었고, 대다수는 전기가 흐르는 듯하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다가 악마의 영향까지 받으며, 악마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종의 악마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청년이든, 소녀든, 노인이든 평온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광기! 광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사람들과 상호 이해를 이룰 수 없을 때를 말한다.

마귀는 우리에게 진통 주사를 놓는다

수술 시 마취에 대해 논의하던 의사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마취는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여러분이 행하는 마취는 사람을 돕습니다.” 악마의 마취는 뱀이 새나 토끼를 마비시켜 저항 없이 잡아먹기 위해 사용하는 독과 같다. 악마가 사람을 제압하고 싶을 때, 그는 먼저 ‘마취과 의사’인 악마의 하수인을 보내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 후에야 악마가 직접 나타나 사람을 갈기갈기 찢고, 마음대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취 주사를 놓아 의식을 잃게 만드는 ‘마취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로서 우리는 “모욕과 비난을 참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성스러운 서원을 하지만, 나중에 악마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시작했지만 다른 것으로 끝내고, 한 곳으로 향했지만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부주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들을 들어드린 적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코니체에 은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면 야니나로 가야 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몇 명씩 모여서 72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서 돈을 빌려, 예를 들어 말을 사는 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한 마리만 있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자기 말을 다른 사람의 말과 짝지어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말을 사서 밭을 갈고 팽이로 고생하지 않으려고

야니나로 돈을 빌리러 갔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유대인 상점들을 구경하러 다녔다. 한 유대인이 그를 보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자, 아저씨, 들어오세요. 이 멋진 걸 좀 보세요!” 농부가 가게에 들어서자, 유대인은 선반에서 천 뭉치를 꺼내기 시작하며, 하나를 집어 들고는 다른 것을 던졌다.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며, “좋은 원단인데,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싸게 드릴게요!” 그 순진한 농부는 한 가게에서 빠져나와 다른 가게로 향했다. “자, 아저씨,” 다른 유대인이 그에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저씨한테는 좀 더 싸게 팔아 드릴게요!” 그 앞에서 천 뭉치를 꺼내 펼치고, 다시 펴고... 결국 우리 불쌍한 친구의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게다가 그는 호기심도 조금 있었다. “뭐 어쩔 수 없지,” 그가 말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선반에서 원단을 꺼내서 펼쳐 보기도 했고...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는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유대인에게 건네주고 원단 한 롤을 샀지만, 그것마저 썩어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애초에 왜 천 한 롤을 통째로 사야 했을까? 천은 부자들만 롤 단위로 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샀다. 결국 그는 썩은 천 한 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은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물었다. “저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천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많은 천을 아이들이 뭘 하라는 건가요? 은행에는 빚도 졌고, 말도 사지 못했는데—썩어버린 천 한 롤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팽이로 흙을 파고, 고생하며 빚을 갚아야만 했다! 만약 그가 말을 샀더라면, 말을 타고 돌아왔을 것이고, 집안일용 물건도 좀 사 왔을 것이며, 앞으로도 팽이를 들고 밭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라, 유대인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헛소리를 늘어놓은 탓에 그가 어디까지 몰락했는지! 마귀도 똑같이 행동한다. 교활한 장사꾼처럼, 그는 너를 이쪽저쪽으로 끌고 다니며, 발목을 걸어 결국 네가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 그리고 네가 부주의하다면, 한 곳으로 가려고 출발했다가 다른 곳에서 여정을 마치게 될 것이다. 마귀는 당신을 속이고, 당신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잃게 됩니다.

악마는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쓴다.

악마는 교묘한 자다. 예를 들어, 신실한 사람에게 성찬식 중에 불순한 생각을 심어주면, 그 사람은 이를 깨닫고 정신을 차려 그 생각을 떨쳐낼 것이다. 그래서 악마는 그에게 영적인 생각을 심어준다. “어떤 책에서,”라고 말하며, “성찬식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쓰여 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를 들어 상들리에로 주의를 돌리게 하고, 사람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혹은 교활한 자가 어떤 환자를 문병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와! — 사람이 말할 것이다. — 성찬례 중에 깨달음이 왔

구나!” —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내면에는 악마가 끼어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사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성찬식이 끝났음을 깨닫게 되는데, 정작 자신은 그 성찬식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여기, 성당 안에서 수녀님이 촛대 촛불을 꺼려 갈 때, 나는 나이 든 사람들조차 유혹자가 그쪽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여, 수녀님이 촛불을 켜는 모습을 뵈히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건 완전한 유치함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즐거움일 뿐입니다. “켰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른들에게는요? 아니면, 성찬례 중에는 움직임을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혹자가 수녀 중 한 명을 부추겨 신성한 순간에 성단 위의 책을 넘기게 하여 소음을 내고,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야?”라고 묻는 다른 기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탕갈라슈카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의 주의를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면 성당에서 진행되는 어떤 성경 봉독을 지켜보십시오. 낭독자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순간에 이르자마자, 곧바로 [무언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문을 세게 쿵 닫거나, 누군가가 기침을 하거나... 사람들의 주의를 흩어지고, 낭독되는 신성한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탕갈라슈카가 하는 짓입니다.

아, 악마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셨더라면! 여러분은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저는 제 칼리바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점을 느낍니다. 듣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즉 대화의 절정에 다다르기만 하면, 바로 그때 어떤 소음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들어와서 제가 말을 끊게 됩니다. 악마는 미리 그들에게 속삭여, 맞은편 스키프를 바라보며 헛소리를 하게 하거나⁸²), 혹은 그들이 흥미로운 무언가를 보게 하고, 대화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오도록 타이밍을 맞춰, 제가 화제를 바꾸게 하여 대화 상대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대화 초반에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예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보내 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봐요,” 새로 온 사람이 소리친다. “신부님, 입구는 어디예요?” — “자, — 제가 대답합니다, — 루쿠마와

⁸²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 대순교자 판텔레이몬의 쿠틀루무시 스키프를 가리키며, 그 맞은편에 “파나구다”라는 수도실이 위치해 있다. — *역자 주*.

물을 드시고 저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제 말을 끊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사람들이 오고, 또다시 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 하는 등, 그래서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했던 그 비유를 다시 반복해야 했다. 막 말을 이어 가려는데, 아래에서 또 누군가가 소리친다. “이봐요, 파이시 신부님! 어디 사세요? 문은 여기 있나요?” 자, 또 일어나야 한다.

젠장, 이 유혹이여! 하루에 악마가 여섯, 일곱 번이나 이런 짓을 벌여서, 나는 심지어... 경비원을 세워야만 했어요! “너는 저기 앉아서 저쪽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지 지켜봐. 그리고 너는 내가 일을 끝낼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여섯 일곱 번이나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까지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 그 망나니들이 또다시 너를 놀려대기 시작할 것이다.

아, 유혹이라니, 원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파수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킨다. 경건하게 기도하던 사람이 무언가에 감동받아 감회에 젖으려는 순간, 그는 “찰칵!” 하고 그 사람의 주파수를 사람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버린다. 또 영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나요? “찰칵!” — 그에게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원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이 마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면, 많은 것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 헤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관찰하세요.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기상학자일까요? 목자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구름을 관찰하고 바람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날개

사람들은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모두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나쁜 영향에 빠지는 것이 더 쉬운 이유는, 그곳에서 악마가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담배는 해로우니 끊으라”고 말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악마가 곧바로 다가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적고, 이 담배는 정화 필터가 달려 있으니, 이런 걸 피우면 해롭지 않을 거야.” 즉, 악마는 그 사람이 담배를 끊지 않도록 변명을 찾아내고, 그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악마는 우리에게 온갖 변명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악마가 원하는 그 담배들은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 자신의 단점을 극

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극복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의지력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의지력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ム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함’과 ‘원하지 않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⁸³ 즉, 모든 것은 사람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선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선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개의 날개, 즉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통해 영적으로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 날개,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어깨 중 하나에 붙여 두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날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어깨에 우리 자신의 날개, 즉 인간의 뜻을 붙여야 합니다. 사람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신의 날개와 합력을 이루는 인간의 날개가 있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의지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날아오르고 싶어 하지만 [대신] 공중제비를 돌며 떨어집니다. 다시 시도해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 게론다, 의지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까?

— 우리가 모든 것을 단련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의지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이 수행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력을 더해 달라고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지를 전혀 쓰지 않거나, 충분히 쓰지 않거나, [게다가] 의지가 약해져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새가 한쪽 날개는 튼튼한데, 다른 쪽 날개는 소홀히 방치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날개에서 깃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새는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된다. 한쪽 날개는 잘 작동하지만, 다른 쪽은 마치 부러진 빗과 같다. 새는 그 날개를 움직이지만, 바람이 그 사이로 훅 빠져나가 버려 날아올 수 없다. 살짝 튕겨 올라갔다가 뒤집혀 떨어진다.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날개도 온전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 역시 항상 올바르게 영적으로 날아가고 싶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간의 의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탕갈라슈카는 무엇을 할까요? 슬그머니 다가와

⁸³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스스로 원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단순히 돌이나 나무처럼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참조: *성 요한 크리소스토ム*, 저작집, 제11권, 제2권, 상트페테르부르크, 1905. 607쪽.

사람의 날개에서 먼저 아주 작은 깃털 하나를 뽑아내고, 그다음 좀 더 큰 깃털을 뽑은 뒤,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깃털까지 뽑아내 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깃털 몇 개를 뽑아내면, 사람은 날아오르려고 애쓰다가 거꾸로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데, 이는 깃털이 뜯겨 나간 의지의 날개 사이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때문이다. 신성한 날개는 항상 깃털로 가득 차 있으며, “완비되어” 있어, 악마는 이 신성한 날개의 깃털을 뽑아낼 수 없다. 사람의 주의를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마가 자신의 [인간의] 날개에서 깃털을 뽑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면, 그의 의지는 힘을 잃는다. 그런데 만약 [사람 스스로] [영적으로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의지력이 있을 때, 즉 자신의 날개가 손상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도 원하시고 사람도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날아오릅니다.

— 헤론다, 도대체 이 ‘비행’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성취에 대한 소망,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물론이지, 내 형제여! 내가 “비행”이라고 말할 때, 영적인 고양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키파리스 나무에 부딪히겠다는 뜻은 아니야!

— 게론다, 예전에 스승님께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결국 단 한 알의 곡식도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부주의한 사람의 수고는 마귀가 훔쳐갑니다. 하지만 주의 깊고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 수고하며, 성공하고, 열매를 맺으며, 영적으로 양육받고 천사처럼 기뻐합니다.

제3장.

선한 교제에서 비롯되는 유익에 대하여

형제적 관계

— 헤론다, 앞으로 우리에게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 서로 우애를 나누고 화합하며, 영적으로 준비되고 용감해지며, 한 몸이 되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을 가꾸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품는 것과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형제처럼 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희생 정신이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그러면 힘든 날들도 우리는 조금씩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아담과 하느님의 위대한 가족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에서 떠나 지인과 가족을 뒤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서로 돕기 위해 영적으로 친근한 지인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련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들과 유대를 유지한다면, 그에게는 의지할 곳이 생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선한 교제 모임(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은 필수적입니다. 영적인 사람들과의 유대는 (영적 독서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연합의 기쁨이 그 안에서 영적 업적을 향한 강한 열정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사역 현장에서도 영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서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 상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모른다면, 서로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게론다, 가령 누군가가 [한 번] 우리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기를 거절했고, 이제 우리는 다시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 아니요, 아니요. 어쩌면 예전에는 도와줄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네가 나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 번에 네가 다시 달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주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나는 나눠줄 수 있도록 십자가 목걸이를 사 두는데, 네가 다가와서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나눠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지.

오늘날 사람들은 같은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웃 간의 정이 있어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필요할 때 서로를 도와주곤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수레를 타고 어딘가로 가다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저도 거기요. 타세요, 같이 가죠.” 또는 누군가 말을 타고 어딘가로 가고 싶을 때면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나요?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제가 3시간 후에 말을 타고 갈 텐데 함께 태워드릴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저곳으로 갈 건데. 오셔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

으시고, 아침에 함께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했고, 무언가 도울 수 있을 때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물어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마을에도 좋은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 게론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 오늘날, 설령 신앙인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마귀가 그들을 강제로 연결시켜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그 수많은 악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실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가정교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교사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보내야 하므로, 반드시 훌륭하고 신앙이 깊은 교사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아이들에게 개인 과외를 하고 싶어 하는 신실한 교사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좋은 가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삶을 사는 어떤 기술자, 예를 들어 페인트공이든 전기기사든, 마음 편히 지내기 위해 좋은 가정에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정에서는 자신에게 골칫거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집주인도 자신의 집에서 일할 훌륭한 기술자이자 신앙인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것이다. 양쪽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서서히, 모든 직종과 모든 학문의 영적인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악마는 원치 않으면서도 자신의 악의로 선을 행하게 될 것이다. 즉, 양을 염소 새끼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양들은 염소 새끼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양 떼가 되어, 유일한 목자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⁸⁴ 예전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목자에게 양과 염소를 맡겼는데, 어떤 이는 다섯 마리, 어떤 이는 열 마리씩 맡겼고, 양들은 염소들과 함께 풀을 뜯었습니다. 그 당시 염소들은 이성이 있어 뿔로 양들을 찌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염소 떼가 사나워져 그리스도의 양들을 아프게 뿔로 찌르고 있다. 양들은 선한 목자를 기다리며, 오직 양들로만 이루어진 무리를 원한다. 세상이 변해버린 이 모습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만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갈라질 것이다. 양들도, 염소 떼도 각자 따로 지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점차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며, 죄에서 더욱 멀어지려 할 것이다. 바로 이 선한 일을 마귀가 지금, 스스로 원치 않으면서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어떤 이들

⁸⁴ 참조: 요한복음 10, 16.

은 오락 시설로 서둘러 가며 무관심하게 사는 반면, 다른 이들은 철야 기도회와 기도 모임, 영적 집회로 서둘러 가며, 이 사람들은 서로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다.

힘든 시절에는 매우 끈끈한 형제적 유대가 생겨납니다. 전쟁 때 우리, 한 반대대의 병사들은 2년 동안 함께 지내며 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을 함께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끈끈하게 뭉쳐 있어서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복음서도 영적 서적도 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평범한 세속적 교육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 즉 사랑과 형제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동료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머지 전우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전우가 저를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꼭 껴안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품에서 빠져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에게 더욱 형제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며,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달콤한 골고도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유대감에 대하여

— 게론다, 어제 선생님께서는 지난 며칠 동안 만나신 모든 분들을 자신의 형제로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유대란 무엇입니까?

— 우리는 모든 사람과 육신상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담을 통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이에 이 영적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추구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 예를 들어, 당신에게 육신의 자매가 있는데, 그녀가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산다면, 당신은 그녀와 아무런 영적 유대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 영적인 유대관계가 깨질 수도 있나요?

— 사람들 중 한 명이 영적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면, 영적으로 사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도 끊어집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그만둔 사람이 스스로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 따라 사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따른 삶에서 멀어지는 만큼 그분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은총이 멀리서도 작용하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힘인 것처럼, 마귀의 사악한 에너지 또한 멀리서도 작용하며 전달되는 힘이다. 예를 들어, 두 영혼이 영적인 상태에 있고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생각한다면, 그들 사이에는 영적인 연결이 있으며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신성한 힘을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최악된 삶을 살며 서로 어떤 교감을 나누는 두 영혼의 경우에도, 그중 한 사람은 멀리서 다른 사람에게서 악마적인 영향을 받으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보가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 게론다, 서로 그런 악마적인 연결을 맺고 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선한 쪽으로 변화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 네.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쪽으로 변한 사람은 마치 [자신의 영적] 전화를 받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회선이 끊어지고, 더 이상 연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가 원한다면 이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정육에 사로잡힌 사람과 교류할 때, 그 정육이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그의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일까요?

— 우리가 영적인 상태, 즉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웃은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를 참아줄 때, 그는 이를 이해합니다. 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악의가 있다면,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는 그것을 알아챱니다. 영혼이 가진 것은 그대로 [다른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정육은 정육을, 짜증은 짜증을, 분노는 분노를 전달합니다. 반면 은혜를 받은 영혼의 은혜로운 선물은 이웃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덕을 갖춘 사람들과의 교제가 도움이 됩니까?

— 물론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유향을 피우는 수도실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나올 때 당신도 유향 냄새가 날 것입니다. 축사에 가면 축사 냄새가 배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집에 다녀오면 세속적인 냄새가 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점령 시절에 우리는 5헥타르에 걸쳐 다양한 품종의 멜론을 심었습니다. 농업 학교에서 가져온 미국산 품종—이 정도 크기의 큼직하고 아주 달콤한 흰 멜론—뿐만 아니

라 현지 품종인 ‘아르그’ 멜론 등도 심었죠. 혹시 미국산 멜론 옆에 호박이 자라게 되면, 멜론의 단맛이 호박으로 넘어가곤 했다. 호박은 더 달아지고, 멜론은 맛이 없어졌다. 이런 현상은 수분 과정, 즉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꿀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배꼽”이 큰 멜론을 본다면, 그 멜론은 주키니와 가까이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아르그’ 품종 멜론이 좋은 품질의 멜론 옆에서 자라면, 그 멜론의 단맛을 빼앗아 갑니다. 좋은 품질의 멜론은 단맛을 잃게 되지만, 적어도 이 경우에는 그 단맛이 멜론 자체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멜론 옆에 호박이 있다면, 호박은 더 달아지게 되고, 나중에 요리할 때 소금을 한 줌이나 넣어야 할 것입니다. 멜론은 단맛을 잃고, 호박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반면 멜론이 멜론 옆에 있다면, 좋은 멜론은 단맛을 잃지만 다른 멜론은 더 달아집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그다지 성장하지 못한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곁에 있다면, 후자는 지칠 수도 있고 약간 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 전자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영적인 사람 곁에 세속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자의 수고와 시간은 헛되이 낭비될 것이다. 세속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말 중 어떤 것에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 중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자신의] 세속적인 철학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즉 세속적인 정신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즉, 그는 호박으로 남을 것이며, 비록 맛이 조금 더 달아질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소통에서의 신중함

군대, 특히 통신 부대에서는 우리 쪽 라디오 방송국과 적의 방송국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알려주는 식별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느 것이 우리 쪽이고 어느 것이 적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 쪽 라디오 방송국을 잘 알고 있었다. 한동안 무선 수신 기술에 관한 특별 수업에서 우리는 중간 무선국을 설정하고 적의 무선국이 어디에 속하는지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뭐야?”라고 묻거나 “1!”이라고 말한 뒤,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지 귀를 기울여 그들을 적발하려 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무선국을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정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어떤 ‘무선국’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이 방송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말도 안 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선 통신사가 그 방송국이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그와 교신하려 한다면, 이는 심각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송국이 타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적의 것임을 알면서도 — 적과 교신하려 한다면 — 그의 죄는 얼마나

더 중대한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는 신중한 판단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자가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영적인 주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험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는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한 뒤, 나쁜 상황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다행히도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한 마디의 부주의한 말 때문에 상하는 것을 봅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내뱉는 말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신중해질지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이만큼 말을 하면 그만큼 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말을 세어 보게 될 것입니다. 전화 통화 때는 통화 요금을 내야 하니까 무엇을, 얼마나 말할지 생각하게 되죠. 요즘은 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게론다, 『사다리』에는 비난이 증오에서 비롯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험담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 네. 어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혼을 시기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시기하지 않도록 그 영혼에 대해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상심하거나 화가 나서 어떤 이유로 든 분노를 표출하는 결함이 있거나 상처받은 사람은, 악마조차도 할 수 없는 해를 다른 영혼들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향유 여인이 쏟아 부은 향유를 낭비한 것에 분노하며, 그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다의 영향력 아래에는 은혜를 받은 다른 사도들도 빠져들었다.⁸⁵ 그들은 유다가 한 말의 겉보기 타당함을 보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빠졌으니, 이는 유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심지어 돈 상자까지 그에게 맡기셨고, 유다는 “*그 짐을 짊어졌다.*”⁸⁶

⁸⁵ 마태복음 26, 6 이하; 마가복음 14, 3 이하; 요한복음 12, 3 이하 참조.

⁸⁶ 요한복음 12, 6.

— 게론다,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제삼자의 의견을 구할 때, 그 제삼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 만약 그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그 말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견을 묻는 대상의 말이 무게를 지닌다면, 대립하는 양측은 그가 한 말을 중포처럼 사용하여 서로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 자신에게도 그 포탄이 날아들겠지만, 그는 이를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을 피하여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그들 사이의 평화—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유혹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유혹이 줄어들도록 말을 삼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는 없지만 단지 피상적일 뿐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피상성으로 인해 유혹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과 배려심 있는 태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 순수함이 있다는 뜻인가요?

—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세속적인 예의일 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고귀함이나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자질이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예의를 갖추고 위선을 부리는 사람은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결국 경외심을 경외심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에게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청동 동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금 리라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대화와 이기적인 자기 의견 표출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영적으로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 게론다, 만약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와 끝없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때쯤이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 사람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고, 당신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지켜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네 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넌 여름도 겨울처럼 만들잖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고, 지금은 봄이야. 곧 여름도 올 거야. 그런데 넌 여름에 겨울의 추위를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몸을 떨게 될 거야.”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일이 관찰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려 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바쁜 척하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어 평온함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적인 행동이다. 마치 내 곁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과 다름없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⁸⁷ 물며 심각한 교회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조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몸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다.

—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정하다는 뜻인가요?

— 다른 사람들에게는 변명을 찾지 못하지만, 자신에게는 변명을 찾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도 너에게 변명을 찾지 못하실 것이다. 사람이 부주의하면,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라.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나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장난을 못 본 척하기도 합니다. 인내하고 용서하며,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에게 너그러워하실 것입니다.

— 헤론다, 마음은 어떻게 넓어지나요?

—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불완전함, 소홀함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것들을 마치 겨울처럼 바라볼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물론, 악한 자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우리는 그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며 그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행동이 악의에서가 아니라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이해

⁸⁷ 로마서 12, 15.

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성입니다. 악이란 사람 안에 악한 성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 누군가가 나쁜 상태에 있고, 내가 좋은 상태에 있다면, 내가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만약 유혹자가 너에게 상황을 그렇게 제시한다면? 네가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믿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자신의 이웃이 정말로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를 변명해 주고 그에게 죄를 덜어줄 만한 사정을 찾아낸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감경 사유를 찾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다고 여기며,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돌보지 마시고, 저를 제쳐 두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를 도와주소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이들은 자신의 큰 진전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깊은 회개와 겸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신성한 사랑만을 느낍니다.

제4장.

경외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다는 것에 대하여

경외심이란 무엇인가

— 계론다, 경외심이란 무엇입니까?

— 경외심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면의 겸손,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경외심이 깊은 사람은 수줍어할 수도 있지만, 그 수줍음은 그의 마음에 꿀을 흘려보내며, 그의 삶에 고통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경건한 사람의 움직임은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그는 하느님과 천사들, 성인들의 현존을 뚜렷이 느끼며, 자신을 지켜보는 수호천사의 현존을 가까이서 느낍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⁸⁸ 그리고 그는 소박하고, 순수하며, 거룩하게 살아

⁸⁸ 고린도전서 3, 16 및 6, 19 참조.

갑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디서나 세심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모든 성스러운 것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그는 성화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파나 의자 같은 앉는 곳에는 복음서나 영적 서적, 혹은 어떤 성물을 올려두지 않는다. 성화를 보면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심지어 어딘가에 적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보게만 되어도, 그는 경건하게 그 이름을 입맞추며, 그의 영혼은 내적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심지어 땅에 버려진 신문 조각에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성 삼위일체 성전”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것을 발견하기만 해도, 그는 몸을 굽혀 그 조각을 주워 경건하게 입맞추며, 그것이 땅에 버려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합니다.

— 그러니까, 게론다, 경건함과 경외심은 다른 것입니까?

— 경건함⁸⁹은 향수 같은 것이고, 경외심은 향 같은 것입니다. 저에게 경외심은 가장 위대한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경외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은총의 수용자가 되고, 은총은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은총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심을 품고 호감을 갖게 되는 반면, 뻔뻔한 사람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큰 경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은 본성상 경건함을 지녀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경건함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반면 여성들이 경건함을 잃게 되면, 그들은 중대한 과오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내와 함께 성지 순례를 하다가 요르단강으로 갔습니다. 제가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을 때, 아내는 강둑에 앉아 요르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놀고 있더군요! ‘이봐,’ 제가 말했죠, ‘ ,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요르단 강에 발 씻으러 왔어?”라고 말했죠. 화가 나서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보아하니 그의 아내는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이라 [기본적인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그 불쌍한 남자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함이 전수된다는 사실에 대해

— 게론다, 경건함을 어떻게 연습니까?

— 성부님들은 경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교류하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이시우스 대성인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

⁸⁹ “경건”이라는 말로 장로는 내면의 상태가 따르지 않는 외적인 경배의 형식을 행하는 것을 정의한다.

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여, 당신도 신성한 경외심을 얻도록 하라.” 물론 이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그 행동의 의미를 내면적으로 느끼지 못한 채 겉으로만 흉내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 그것은 경건함이 아니라 거짓 경건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밀어낸다. 경외심은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 물론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경건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탄갈라슈카가 건망증을 심어주어 우리를 무감각과 불경건함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봄으로써 경건함은 다시 깨어납니다.

— 그런데 왜, 게론다, 성부님들은 경외심에 대해서만, 그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지닌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왜 다른 미덕들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요?

— 경건함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몸짓과 행동은 향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물론 그 사람 자신 안에 선한 마음가짐과 겸손함이 있을 때 말입니다. 말해 드리자면, 경건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반면 경건한 사람은 비록 학식이 없더라도 모든 성스러운 것을 순수하게 보며,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는 신성한 의미와 관련된 어떤 것에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마치 부모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아이와 같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선하고 순수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경건해야 하겠는가]!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교리에 관해 오류로 치우치게 된다. 나는 경외심이 없으면서도 성경과 성부들의 저술에 대한 해설이나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목격한다.

모든 영적인 일에는 경외심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성인을 위한 예배문을 쓰려면, 그 성인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배문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경외심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경외심, 신성한 광기의 경지에 이르면, 시구들이 저절로 내면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 게론다, 사람이 경외심을 얻는 데 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 이를 위해 모든 신성한 것을 지성으로 탐구하고 깊이 파고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리한 기회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사람 안에 경외심을 일깨워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전에 잠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면, 나는 은총을 스스로 잃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고 싶었으나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은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의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을 기르는 데에는 우리 지역과 조국의 성인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인들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함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 게론다, 성전에서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 성전에 갈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성상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자신의 방에서나 순종의 의무로 성전에 가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늘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성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집은 낙원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매들이 노래하고, 저기서는 천사들과 성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세속의 어떤 집에 방문할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발을 닦고, 겸손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 한 방울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그 후 우리 치유를 위해 [그분의 거룩한] 피의 강을 쏟아부으시며,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 속에서 이 모든 경외롭고 신성한 사건들을 되새길 때, 그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찬식에서 나는 사제가 “우리 마음이 슬퍼하노라”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노라”라고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진정으로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자”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항상 아래로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마미”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위”]이 그곳에 있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서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노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신성한 의미에 두어야 하며 경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트로파리나 스티히르를 문학 작품처럼 대하지 말고, 그 신성한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건함은 한 가지이고, 교회 성가의 예술과 기술은 또 다른 것입니다. 경건함이 없는 예술은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성가사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찬송이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감동적으로 노래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면적으로 좋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감동적으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내면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마음으로, 경건하게 노래해야 한다. 만약 성가대원에게 왼쪽에서 오는 생각이 있다면, 찬송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마음이 기쁜 자는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다.⁹⁰ 한 번은 성 요한 쿠쿠젤리스가 염소를 치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염소들이 일어나 발을 딛고 섰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황실 궁정의 성가대장인 쿠쿠젤리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수에도 경건함을 담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로 성물들이 덮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성상함을 위해 수놓는 덮개들조차도 말입니다.⁹¹ 사람이 경건함을 지닐 때,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읽는 일, 노래하는 일, 심지어 실수하는 일까지—에서 드러납니다.

— 실수에서도요?

— 네. 보시다시피, 경건함과 겸손함은 그의 실수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외적인 경건함에 대하여

믿음이 깊고 진정한 경건함을 지닌 사람은 지고하고 영적인, 형언할 수 없는 것으로 양육받습니다. 그러나 건조하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경건함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건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교회에 들어가니, 단정하게 앉아야 하고, 움직이면 안 되며, 고개를 숙여야 하고, 이렇게 십자 성호를 긋고 몸을 축복해야지!” 믿음에 대해 흔들릴 수도 있으면서도, 예배 내내 줄곧 서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그분들은, 헤론다, 무언가에 마음이 걸려 있거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가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⁹⁰ 야고보서 5장 13절.

⁹¹ 카티아는 손잡이가 달린 큰 향로로, 예배의 특정 순간에 오른쪽 어깨에 수놓은 덮개를 두른 성당 봉사자(성당에서 봉사를 맡은 수도사)가 이를 사용하여 향을 피웁니다. 카티아의 손잡이 위에는 숯가루와 유향을 담은 용기가 있으며, 손잡이 끝에는 향을 피울 때 리드미컬한 종소리를 내는 방울이 매달려 있다.

— 그들 안에는 무언가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좋지만, 내면에서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지 겉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경건함으로 교회에 들어갈 때 스κου피를 벗는 것과, 머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벗는 것은 다릅니다. 경건함은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방식이나 안티도르를 받는 방식 등에서 드러납니다.

— 게론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경건함을 나타내는 방식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 이렇게 말해 주마. 넓은 십자 성호를 긋되, 단순하고 겸손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며 끝없이 성호를 긋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비웃게 될 것이다. 혹은 성당 옆을 지나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때까지 조금 “기다리다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십자 성호를 긋고 절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시다시피, 세속적인 태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함이 있을 때, 그것은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함이 없다면 “단정하게”⁹²는 “추하게”로 변해버립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⁹³

사람들이 성스러운 유물에 대어 축복받게 하려고 환자 옷을 줄 때, 그것이 속옷이 아니라 티셔츠뿐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외의 다른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이는 경건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태양을 더럽힐 수 없고 하나님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자신의 램프에서 기름을 떼서 몸에 바르고는 회복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램프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단지 조명을 위해 켜져 있을 뿐이며, 램프를 씻을 때 기름은 세면대에 버립니다. 어느 날 한 집에 갔다가 주인이 세면대에서 램프를 씻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은 어디로 가나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수구로요.”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 램프에서 기름을 조금 떼서 십자 모양으로 아이에게 바르면서도, 컵에 담

⁹² 롬 13:13. 고전 14:40. 빌 4:12.

⁹³ 마태복음 7:6.

긴 기름은 전부 하수구로 버리시는 건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집에 임하겠습니까?”

요즘 집에서는 안티도르가 싸여 있던 종이 조각 같은 성스러운 물건을 버릴 곳이 없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는 접시를 씻은 물조차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물은 다른 곳으로 버려졌는데, 식사 전후로 기도하기 때문에 뽕 부스러기조차도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사라졌기에, 신성한 은총도 사라졌고, 사람들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시다. 성체 성사, 안티도르, 또는 성유 성사 후에는 알코올에 적신 솜으로 손을 닦은 뒤, 그 솜을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단을 청소할 때, 청소를 마친 후 모인 모든 것은 바다에 버리거나 깨끗한 곳에서 태워야 합니다. 바닥에 안티도라나 성체의 작은 조각이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체의 아주 작은 조각이 바닥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짓밟히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신성한 은총이 떠나가게 됩니다.

해외의 성당에는 전용 배수구조차 없습니다. 성체 성사 때 나온 물은 빗물과 함께 흘러내립니다. “[해외 사제들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전용 배수구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미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모두요. 그런데 그들은 성수의 한 방울이라도 머리에 떨어지면 “미생물이 번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광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젊은이와 노인을 막론하고 경건한 여성들이 여전히 있으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켜 주십니다.

— 게론다, 한 부인이 우리에게 성 아르세니오스 성화를 그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실에 걸어두려고요.

— 거기에는 성화만 있을까요? 다른 그림이나 사진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그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지는 않을까요? 차라리 그 성화를 다른 방의 성화대에 나머지 성화들과 함께 모시고 거기서 기도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한 번 제가 방문했던 집에서는 공간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계단 아래에 성화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주인이 하수관 바로 앞에 성화대를 설치해 두었죠. “좋아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성화대를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 “글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그곳이 동쪽을 향한 것도 아니고, 아니, 북쪽을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총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에게*

는 더 주어 넘치게 하겠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⁹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가진 것조차 우리에게서 빼앗깁니다.”

경건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가 목격하는 악은 바로 그에서 비롯됩니다. 부주의로 인해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 그녀는 세면대에 성수를 쏟아 버렸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병에는 성수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성수는 상했으니 버려야겠어. 게다가 이 작은 병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녀는 성수를 버리고, 안에 남은 바질리카가 있어서 병까지 씻어냈는데, 그 후로 광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은총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성수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성수가 든 병을, 예를 들어 찬장에 넣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성수라는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반 정도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넣어 둔 것이고, 버린 사람이 그것이 성수인 줄 몰랐다면,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물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성한 은총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은총은 그것을 공경하는 이들에게로 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없다면 번영은 불가능합니다. 성산에 있는 한 [켈리오트 수도사]가 어떤 성당에서 성상들을 훔쳐와 자신의 성당에 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제단 위 지붕에서 돌 타일을 떼어내어 베란다를 덮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물이 제단으로 흘러들어와 성스러운 제단 위로 바로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성당은 성대한 의식으로 봉헌되었고, 제단 중앙에는 성유골—척추뼈—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성유골을 가져다가 특별한 장소에서 씻어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요!”—나는 그 일을 저지른 이들에게 말했다. “성당은 봉헌되었는데, 여러분은 지붕의 돌들을 떼어내서 물이 성스러운 제단 위로 쏟아지게 만들었군요!” 그 후 그들은 장인을 찾아가 지붕을 조금 수리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제단의 널빤지를 가져가 강변 산책로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널빤지들과 시멘트는 몰아친 폭풍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얼마나 큰 경건하지 못함이 담겨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기억나는데, 코니체

⁹⁴ 마태복음 13, 12.

에는 아이들이 교회 벽을 긁는다고 쫓아내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겼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와 버린 걸까요!

모든 것에 대한 경건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파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무언가가 깔려 있었겠지만, 십자가 위에 앉거나 밟아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발에 십자가를 새기는데, 종종 신발 바닥 겉면뿐만 아니라 안쪽—굽과 밑창 아래—에도 그려 놓습니다. 돈을 내고는 십자가를 짓밟는 셈이죠! 그들은 예전에도 한쪽 면에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다른 쪽 면에는 페트루슈카가 그려진 딸랑이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페트루슈카든 그리스도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 불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보고도 아이들에게 이 딸랑이를 사주곤 했습니다. 아기들은 딸랑이를 바닥에 던지고, 밟고, 더럽히곤 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중국 근처 어딘가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안쪽에는 그리스도가, 바깥쪽에는 부처가 그려진 메달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한다. 안쪽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새기든지, 아니면 그분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에서도, 불행히도, 아무 생각 없이 우표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그려 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표들은 사람들이 내팽개치고 짓밟고 있습니다.

— 게론다, 사람이 어떤 일에는 경건함을 가지고, 어떤 일에는 경건함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아니요. 경외심이 진실하다면,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 스타브로 니키타 수도원에 한 사제가 머물렀습니다. 제6시편⁹⁵을 바칠 때, 그는 스타시디아 의자를 내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6시편을 바치고 있습니다.” — “저는,” 그가 대답하길,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와닿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나무 판자에 종이 성화를 붙여 축복의 선물로 나눠주곤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붙이는 거야?”라고 내가 물었다. “나무에 풀을 바르고,” 그가 말했다. “그

⁹⁵ 6편 시편(제6편 시편) – 시편집에서 선정된 여섯 편의 시편(3편, 37편, 62편, 87편, 102편, 142편)으로, 아침 기도 시작 시에 낭독된다. 여섯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처음 세 편의 시편을 마친 후, “영광이여, 이제. 할렐루야(3)”라는 말이 낭송될 때, 다른 유사한 경우에 교회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 성호 긋기와 허리까지 숙이는 절을 행하지 않는다.

위에 성화를 올려놓는데, 많이 만들면 성화 하나를 다른 성화 위에 겹쳐 놓고, 그 위에 내가 직접 앉아서 풀이 잘 굳게 해. “그리고 책이라도 하나 집어 들고, 조금 읽을 거야.” 내가 이 말을 듣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도대체 — 내가 말했죠 — 뭘 하는 거야! 성화가 잘 붙게 하려고 그 위에 앉는다고?!” — “뭘, — 그가 묻더군요, — 안 되는 건가?”

보라, 어느새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문제인 것은 경건하지 않은 태도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선한 쪽으로 발전하거나, 악한 쪽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 신부, 보라, 무엇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육편찬송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러면 성화상도 제자리에 붙을 테니, 내가 경배할 수 있겠지”라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스타브로니키트에서 내가 그에게 육편찬송에 대해 말한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서 있는 다른 노승들도 있었다. 그들은 스타시디움에 살짝 기대어 있을 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거나 아파서 다리가 떨려 앉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유로 당신을 벌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여기며 “앉아 있을 때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변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삶은 즐거운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아프다면 앉으세요. 그리스도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아바 이사악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을 수 없다면 앉으라.”⁹⁶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다면 앉으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 헤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육편찬송을 읽을 때 앉지 않습니까?

—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편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최후의 심판의 시간으로 향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육편 시편은 6~7분 정도 걸립니다. 첫 번째 구절을 읽은 후에는 심지어 십자 성호를 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⁹⁶ “만약 기도 중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지루함으로 인해 너를 짓누르고, 기력이 다해 지쳐버릴 때, 마음속에서—더 정확히 말하면 뱀처럼 교활한 생각이 속삭여—‘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으니 그만두어라’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아니오. 한 카피즘만 더 앉아 있겠습니다. 이것이 잠보다 낫습니다. 비록 내 혀가 침묵하여 시편을 읊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니,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잠보다도 유익합니다.’” 참조: *아바 이사악 시리/아인*. 저작집. 세르기예프 포사드, 1911. 제52설교. 231쪽.

과거에는 어떤 경건함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 그런데, 헤론다, 왜 요즘 시대에는 경건함이 그렇게 드문 것입니까?

—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것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세속적인 논리로 해석하고 신성한 은총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경건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카르나니아와 에톨리아⁹⁷에는 아주 소박하고 경건한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프루수 수도원의 노새들이 [수도사들이] 불일을 보러 노새를 타고 내려올 때면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절을 하곤 했습니다. “이건, — 할머니들이 말하곤 했죠, — 성모님의 노새들이잖아요!” — 하며 계속 절을 드렸지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수도원의 노새들 앞에서 그토록 경건한 마음을 보였으니, 상상해 보라, 그들이 성모님 자신께는 얼마나 큰 경외심을 품고 있었겠는가!

— 게론다, 파라시오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경건함은 성 아르세니우스가 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까?

— 그들에게는 예전부터 경건함이 있었지만, 성인은 그 경건함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파라시오트 사람들에게는 전승에 따른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성 아르세니우스의 성가대원이었던 프로드로모스 카르치노글루 할아버지께서는 깊은 경건함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코니차로 이사하신 후에도 그곳 성당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80세가 넘는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약 30분 동안 걸어서 니즈냐 코니차로 내려가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다. “나는,” 그가 말하곤 했다, “그리스도의 개이다.” 겨울, 서리가 내릴 때면 내려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다. 길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발을 디딜 곳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참으로 경건한 마음이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라시오트들[그들이 아직 고향에 있을 때]이 고향인 파라스에 교회를 짓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 아르세니우스는 파라스에 이미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성인은 직접 가난한 가정들을 찾아가 돈을 나눠 주려 했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자, 성자는 마을 공동체 장로⁹⁸를 이 돈과 함께 케사리아의 주교님께 보내야만 했다.

⁹⁷ 중앙 그리스의 인접 지역들. 그곳에서 장로는 군 복무를 했다. — 역자 주.

⁹⁸ 파라스 마을 공동체의 촌장은 프로드로모스 에즈네페디스였으며, 그는 장로 파이시의 아버지였다.

“가서,” 성자가 그에게 말했다. “여행 동반자를 데리고 가라.” — “당신의 축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로가 대답했다. 그가 돈을 주교님께 가져가자, 주교님께서 물으셨다. “좋아, 그런데 하지팬디께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나?” — “가난한 가정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 마을 이장이 대답했다. “그럼 왜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나?” — “사람들이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돈이기 때문 이죠.” 결국 주교도 그 돈을 마을 대표에게 돌려주었다. 파라시오트 사람들은 교환을 위해 파라스를 떠나며 성 아르세니우스에게, 그리스에 교회를 짓기 위해 이 돈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 아르세니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스에는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이곳에 있는 그 믿음은 그곳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우리는 성상에 대해 얼마나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수도사가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성 니콜라스 성상을 준비했다. 좋은 종이에 싸서 잠시 옷장에 넣어 두었다. 그러나 부주의로 인해 성상을 거꾸로 놓아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어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도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려고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옷장에서 난다는 것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는가! 두드리는 소리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툭-툭-툭! — 수도사를 쉴새 없이 괴롭혔다. 마침내 옷장 쪽으로 다가가 보니, 수도사는 그 소리가 옷장 안에서 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옷장을 열었고, 그 소리가 성화가 들어 있는 포장지에서 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 성화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 수도사는 놀랐다. — 한번 보자.”

성화를 펼치자, 그것이 거꾸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성화를 제자리에 바로 세웠고, 소리는 즉시 멈췄다.

경건한 사람은 특히 성화 앞에서 경외심을 표한다. “성화 앞에서 경외심을 표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성화에 그려진 분을 경외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형제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찢거나 밟을 수 없다면, 하물며 성화 앞에서는 훨씬 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성화가 없으며, 우리가 성화에 바치는 경의를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간주한다. 어느 날 나는 한 여호와의 증인에게 물었다. “당신들 집에는 사진이 없나요?” — “있습니다.” — 그가 대답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의 사진을 입맞추지 않나요?” — “입맞춥니다.” — 여호와의 증인이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키스하는 대상은 종

이인가요, 아니면 자기 아이인가요?” — “자기 아이죠,” — 그가 대답했다. “자, 그렇습니다,” — 제가 말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사진을 키스할 때 종이 자체가 아니라 아이 자신을 키스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이거나 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키스하는 것입니다.”

— 헤론다, 만약 어떤 판자에 예전에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혹은 어떤 성인의 성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감이 지워졌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 판자에 입을 맞춰야 합니까?

— 네, 물론이죠! 사람이 경건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성화를 입맞출 때, 그는 마치 그 성화의 색을 [자신 안에] 흡수하고 스며들게 하는 것과 같으며, 그 사람 자신 안, 내면에 그 성인들이 그려집니다. 성인들은 종지와 나무 판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성화를 입맞추며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입맞춤을 행하는 것이며,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총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의 은총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혹은 성인들이 그의 [내면의] 성전인 이코노스타스에 서 계신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성전이다.”⁹⁹ 보라, 모든 예배는 성화상에 입맞춤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을 것인가!

— 게론다, 왜 성모 마리아를 위한 기도 캐논 중 한 구절에서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경배하지 않는 불경한 자들의 입은 병어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경건함이 없는 사람이 성상에 입을 맞추면, 그의 입이 병어리가 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거룩한 성상에 입을 맞출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상에 입을 맞출 때, 심지어 성상에 닿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상에 입을 맞추면서도 입술로만 살짝 닿을 뿐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¹⁰⁰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 아니요.

—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병어리”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이 성화를 입맞추면, 그 입맞춤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야말로 입술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입술이 “병어리”라고 해서, 그것이 신성모독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어떤 입

⁹⁹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참조.

¹⁰⁰ 장로는 어떤 성화에 입을 맞추는 바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술은 소리가 나지 않고, 다른 입술은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화를 볼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성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야 하며, 우리는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깊은 경건함으로 그 성화를 입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필로페이 수도원의 경건한 노승인 사브바 신부님을 보셨다면,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감동과 사랑으로 ‘달콤한 입맞춤’이라는 성모 마리아 성화에 입을 맞추셨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 성화에는 수도사들이 항상 같은 곳을 입맞춤하느라 심지어 작은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려지는 그 형상은, 경건한 성화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흡수하여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성화가는 자신이 그리는 성화에 자신을 ‘투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의 정신적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티혼 신부님¹⁰¹ 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야, 내가 수의(포클로)를 그릴 때면 ‘경건한 요셉이여, 나무에서 내려주소서...’라고 노래하곤 한다.” 그는 쉬지 않고 노래하며 울었고, 그의 눈물은 성화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성화는 세상에서 영원한 설교를 행합니다. 성화들은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를 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바라보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은 경외심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화가 기대어 있던 벽에 손만 대도 이미 은총을 받지만, 누군가는 가장 훌륭한 성화를 가지고 있어도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십자가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경건함이 없는 다른 사람은 생명 주는 나무 그 자체에서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가장 순수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곳, 여러분의 성전에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제단 위에서 여러분이 이런 작은 양초를 켜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교회에서는 성상벽 앞 촛대에도 이런 작은 양초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솔한 태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헤론다, 양초는 맨 밑까지 다 타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 네, 밑까지 다 타게 두되,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타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자들이 촛불을 놓는 촛대에서 밑까지 타는 것과, 성스러운 제단이나 제사대 위에서 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단에서

¹⁰¹ 참조: *파이스이* 장로. 『성산 수도사들과 성산의 이야기들』.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2001. 13–40쪽.

반쯤 타버린 양초를 켜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경솔한 행동입니다. 또한 촛대에서도, 설령 양초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타더라도, 너무 작다면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전례의 시작과 끝 — 소전례와 대전례 — 에서는 항상 큰 양초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존경받는 세례자 요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절약을 위해 램파드조차 끄곤 하는데, 하느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하면 그분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 미사에서 아주 가느다란 양초를 사용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며, 마치 왁스에 담긴 실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양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 게론다, 자매들은 자기 방에서 원하는 만큼 양초를 켜도 될까요?

— 켜다면, 악마까지 타버리도록 켜다. 저기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잖아. 다만 그들이 켜는 촛불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즉, 기도와 함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서도, 향로 속의 나무 수지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꿀을 맛보면서도 하느님께는 밀랍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종종 파라핀과 섞어 버리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낌없고 풍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단 하나의 밀랍 촛불만을 하느님께 바치는데, 설마 그것마저 속임수를 쓰려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꿀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그분께 제물로 꿀 시럽이나, 설탕을 조금 탄 물이라도 바쳤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주실 리가 없겠지요! 하느님께 드리는 섬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아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훌륭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 헤론다, 사람들은 파라핀 양초를 피우는 것이 왜 경건하지 못한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당에서 파라핀 양초를 피우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조금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게다가 성당이 작다면 [그런 인공적인 양초 때문에]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핀으로 만든 큼직한 양초 하나보다, 깨끗한 밀랍으로 만든 작은 양초 하나를 피우는 편이 낫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전에서 몸이 안 좋아지거나 기절하기도 합니다. 작은 성당인데도 파라핀 연기가 온통 자욱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식용에 부적합한 기름으로 램프를 채우려고 한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와버린 건가! 구약성경에는 성전에서 사용된 기름은 나무에서 딴 올리브로 만들어야 했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설마 하나님께서 기름과 유향을 필요로 하시는가? 아니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그분은 감동하십

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이 그분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헌물이기 때문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한 베두인족은 [하나님께] 바칠 헌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작은 돌멩이를 주워 모읍니다—바로 이-이-이 정도로 아주 작은 것 말이죠. 아니면 어딘가 틈새에서 두세 장의 나뭇잎을 발견하면,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솟아났던 바로 그 돌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제물을 남겨 둡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 그곳으로 가서 [그 돌 위에] 젖 몇 방울을 짜내며,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을 먹일 젖을 주시기를”이라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걸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그곳, 돌 위에 작은 나무 조각, 종이 조각, 자갈 등을 놓아둔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시겠는가? 아니,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보시고 도와주신다.

— 헤론다, 촛불을 켤 때, 어떤 목적을 위해 켜다고 말해야 하나요?

— 촛불을 켜면, 그 불을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어딘가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촛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합니다. 촛불을 켜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 중에는 살아 있는 이들도 있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인을 위해 촛불을 켜면, 고인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산 자와 고인 모두와 영적인 유대를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촛불은 우리가 하느님, 병자, 고인 등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테나’입니다.

— 게론다, 우리는 왜 유향을 피우나요?

—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유향을 피웁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베푸신 그분의 위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향 또한 제물입니다. 성당에서 성화를 향으로 피운 후, 이를 하느님과 성인들에게 바친 다음,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화인 사람들에게도 향을 피웁니다.

간구이든 감사가든 마음을 담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청하오니, 저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이렇게 저는 촛불로 “말”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며 저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총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제 수많은 죄와 온 세상의 배은망덕함, 그리고 제 자신의 수많은 배은망덕함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한 [자신 안에서] 경건함과 겸손함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함과 영적 겸손을 지닌 사람은, 게다가 온유하기까지 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경건함과 온유함이 없다면, 하느님의 은총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오직 온유하고 침묵하며 내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바라보리라.*”

제5장.

은총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신성한 산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잊곤 한다

— 게론다, 예전에 당신은 인간의 위로를 피할수록 신성한 위로를 그만큼 더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배고플 때 기도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가요?

— 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은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도시에서는 음식을 버리는데,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러시아에서 온 이주자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온실이나 양철로 만든 창고 같은 곳에 몸을 웅크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궁핍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왜 그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걸까요? 음식을 버리다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필요 없는 것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없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이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거절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¹⁰²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도 “오늘날 가난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타인의 입장에 서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타인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찾아내고

¹⁰² 마태복음 25, 42.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머리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없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잊어버린다. 그들의 마음은 풍족하게 사는 이들에게만 쏠려 있고, 고통받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만약 그들이, 예를 들어, 십자가를 긋는다는 이유만으로 20년 동안 비좁은 감방에 서로 겹쳐 누워 지내는 북부 에피르(알바니아)의 불쌍한 주민들에 대해 생각했다면... 그때 사람들은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끔찍하군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겹쳐 누워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앉지도, 눕지도, 서 있지도 못한 채... 창문 따위는 고사하고, 벽에 구멍 하나라도 있다면 다행일 정도입니다.¹⁰³

— 그러니까 무덤에서 말이에요, 게론다!

— 무덤에서는 적어도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오늘날 세상에 슬픔이 많은 건, 탄약을 생산해내면서도 사람들은 운명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나는 사람들이 낙타 배설물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의 인간 몸은 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개구리 같죠. 흉곽은 나뭇가지로 엮은 바구니 같고요. 왜 제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파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천국에도 가고 싶어 하고...

1958년에 내가 스토미온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코니치에는 미국에서 온 경제적 지원 덕분에 80가구를 개신교로 유인한 한 개신교도가 있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을 위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예배당까지 지어주었다. 불쌍한 사람들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고, 끔찍한 빈곤 때문에 개신교도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그 불쌍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신교도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너무 궁핍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적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선했습니다. 특히 그 중 한 사람은 비록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었습니다.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 “겉으로는 썩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선한 불씨가 있다.”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아 가난한 가정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돈을 나눠주라고 조언했는데, 그들도 감동을 받고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설령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해

¹⁰³ 1990년 5월에 발언됨.

도, 부드러워지고 인간다워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자선가들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 곁에] 존재하는 그 비참함을 목격했고, 더 이상 클럽이나 춤파티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이 말하길, “우리를 무장 해제 시켰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놀러 가겠어?” 그들은 교회에 발을 들이기까지 했고, 그중 한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성가대원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80가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둘씩 정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미국 개신교도들이 개신교 설교자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보러 왔을 때, 그들은 그를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이상 추종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 게론다, 어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 많은 이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저는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아스피린 살 돈조차 없었던 두 명의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풀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돕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말로 애를 쓰셨습니다.

사랑의 기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자선을 베푼다고 해도, 그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어떤 물건들을 처분하기 위해 베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스스로 궁핍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베풀 때 드러납니다. 가령, 내가 나 자신에게 사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나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만약 내게, 예를 들어, 시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상태가 좋고 다른 하나는 약간 고장 났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고장 난 시계를 준다면, 이는 내 사랑이 2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시계를 줄 것이다. 그러나 결함 있는 논리가 끼어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좋은 걸 주어야 하나? “그 사람에게는 시계가 아예 없으니, 낡은 것도 좋은 시계나 다름없겠지.”라고 말하며 낡은 시계를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낡은 것을 줄 때, 당신 안에는 여전히 낡은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줄 때 비로소 당신은 거둬난 사람입니다. 낡은 것도 새로운 것도 모두 자신에게 남겨두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상태는 지옥과 같습니다.

— 게론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거지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면,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렸을까?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원칙을 따르기로] 확고한 결심을 하며, 다음 번에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타인을 돕는 데 있어 낡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그 자신은 시계 하나 없을지라도,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 신성한 기쁨으로 뛰는 자신의 심장이 내는 달콤한 고동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네가서 겹옷을 빼앗아 가는데, 네가 가진 그 초라한 속옷까지 내어준다면,¹⁰⁴ 그 후 그리스도가 너를 입혀 주실 것이다.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 그를 돕는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자리에 계셨다면 네가 어떤 희생을 치렀을지 생각해 보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신자는 이웃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불쌍한 자 중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는 것은 곧 나에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¹⁰⁵ 물론 각자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해야 하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합니다. 장관과 거지, 장군과 병사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똑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 게론다, 왜 때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악마가 끼어들어 우리가 도운 사람이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하도록 부추겨, 우리가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은 그렇게 해서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헐뜯기 위해 그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혹에 맞설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행한 선행을 잃지 않고, 그 선행으로 얻은 모든 결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은밀히 돈을 기부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유혹자가 끼어들어 다른 이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부추깁니다. “너는 돈만 좋아하는 자잖아.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이걸 했고, 누구는 저걸 했잖아.” 그렇게 악마는 그 사람이 “겸손하게” 대답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 나도 아주 작은 일을 했지. 병원을... 세웠어.” 아니면 원

¹⁰⁴ 참조: 루카 6, 29.

¹⁰⁵ 마태복음 25, 40.

수가 그를 화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게 만들기도 한다. “누구, 나라고?! 이거저거 다 해낸 사람이 나라고?!”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혹은 악마가 그 사람이 선행을 베푼 대상에게 “구두쇠! 착취자!”라고 말하도록 부추겨, 선행자가 이렇게 대답하게 만든다. “누구? 내가 착취자라고? 내가 너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런 은혜를 준 사람인데?” — “아, 저 사람은 배은망덕하구나,”라고 그는 나중에 말할 것이다. “물론 내가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를 원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그의 은인이라는 사실] 정도는 인정해 줄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반면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푼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그에게 베푼 선행을 그가 잊어버린 것도 오히려 다행이다,” 또는 “어쩌면 그가 속상했거나 피곤해서 그런 어조로 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웃을 용서하며 자신도 잃는 것이 없다. 우리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수한 보상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노래하는가? “만나 대신 쓴맛을.”¹⁰⁶ 그러니 우리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자.

나누는 자는 신성한 기쁨을 얻는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때의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줄 때의 기쁨입니다. 베풀 때 느끼는 기쁨은 무언가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기쁨을 느끼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받을 때 실망하고, 자신이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그리고 만약 그가 영적인 면에서 올바르게 노력하고 있다면, 어떤 선행을 했을 때 결코 그것을 기억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베풀어진 아주 사소한 선행조차 결코 잊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푼 가장 하찮은 호의조차 외면할 수 없다. 그 자신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포도밭 한 곳을 선물하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선물한 바로 그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 한 송이를 받은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혹은 누군가에게 조각된 나무 성화상을 많이 선물하고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누군가”가 플라스틱에 밀봉된 작은 성화 한 점을 그에게 선물한다면, 그는 그 성화의 가치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화에 깊은 감동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보답할지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¹⁰⁶ 대금요일 아침 기도 12번째 안티폰에서 발췌.

것이다. 그는 교회 한 채를 지을 수도 있고, 건축 부지를 기부하고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즉, 올바른 영적 길은 이렇다. 자신이 행한 선행은 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푼 선행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참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푼 선행을 늘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한 선행만 기억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이다. 또한 “너는 나에게 이만큼 줬으니, 나는 너에게 이만큼 줘야지”와 같은 계산은 치졸한 장사 짓이다. 나는 더 큰 필요에 처한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저는 “누가 나에게 이 책들을 줬으니, 이제 그에게 이만큼 빚진 셈이니 갚아야겠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그도 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와 같은 장터식 계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리입니다.

무언가를 받는 사람은 인간의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주는 사람은 신성한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베풀을 통해 신성한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책을 주면 그 순간 그는 영적으로, 신성하게 기뻐하고, 나는 그 책을 받으며 인간적으로 기뻐합니다.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나도 신성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나로부터 그 책을 받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차례대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역시 신성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책을 받는 다음 사람은 인간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건네준다면 신성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단 한 가지 물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기쁨과 인간적인 기쁨을 모두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나누어 줄 때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나누어 줄 때 기쁨을 느낀다면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신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나눠 주거나 어떤 일에서 도움을 주며 느끼는 기쁨에는 신성한 ‘산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받는 것에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기뻐할 때, 그 기쁨에는 악취와 숨 막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야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호가 함께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는 것에 기뻐한다. 그들은 스스로 신성한 기쁨을 박탈하고 있기에 고통을 겪는다.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때, 그리스도는 감동하시며 우리를 신성

한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보라, 그분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¹⁰⁷ 는 계명에 그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은다

— 자, 게론다, 두 명의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막내는 베풀지만,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서 큰아들도 베풀어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큰아이가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본성상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쑥스러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 이봐, 너 이 구두쇠야?! 자, 내가 너를! 쫓아내 버리겠다! 그리고 순종 생활에서, 예를 들어 아콘다리크(arhondariki)에서 일할 때,¹⁰⁸ 미래를 위해 즉시 베푸는 축복을 받아 두어라 [매번 새로 청하지 않도록].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낌없이 모든 이에게 축복을 베푸시는지. 만약 베푸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인색함에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금통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으기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베푸는 기쁨도, 하나님의 보상도 잃게 된다. “왜 그걸 모으는 거요?” — 내가 어느 날 한 부자에게 물었다. — “당신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잖아요. 그걸로 뭘 하려는 건가요?” — “제가 죽으면, — 그가 대답하길, — 여기 남을 거예요.” — “그럼 저는, — 제가 그에게 말했죠, — 당신이 모은 모든 것을 저 세상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축복을 내려줄게요.” — “여기, — 그가 말하길, — 여기 남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지게 되.” — “여기, — 내가 말했다, — 여기 남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살아 있는 지금 당장 네 손으로 그것들을 나눠 주는 거야!”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는 끊임없이 모으고, 끊임없이 결핍 속에서 살며, 결국 모든 저축을 들여 자신에게 영원한 고통을 사게 된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극치에 이르렀으니, 그는 다른 이들에게 물질적 복을 나누지 않고, 그 속에 빠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¹⁰⁷ 레위기 19, 18; 마태복음 22, 39; 마가복음 12, 31; 루카복음 10, 27.

¹⁰⁸ 아르콘다릭 – 그리스 수도원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 – 역자 주.

사람들은 구두쇠를 비웃는다. 한때 매우 부유한 지주가 있었다. 한 지역에 땅도 가지고 있었고 아테네에 아파트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인색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위해 묶고 물기 많은 콩국 한 냄비를 끓여 주었다. 그 당시 불쌍한 노동자들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일을 시작해 해질 무렵에야 일을 마쳤습니다. 정오가 되어 그들이 잠시 쉬려고 앉자, 주인은 그 국을 큰 쟁반에 덜어내고 그들을 불러 점심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노동자들은 주위에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으로 콩 한 알을 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만 툭툭 떠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 중 한 명은 손가락질에 꽤 능숙했다. 그는 손가락을 내려놓고 한쪽으로 물러나 신발과 양말을 벗은 뒤, 마치 국이 담긴 쟁반 속으로 발을 집어넣으려는 척했다. “뭐 하는 거야?” — 다른 이들이 그에게 물었다. “글쎄요, — 그가 말했다. —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려고요. 어쩌면 콩 한 알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불쌍한 지주란 바로 그런 구두쇠였다. 그러니 사람이 인색함보다는 낭비벽에 사로잡히는 편이 천배는 낫다.

— 인색함은, 해론다, 병입니다.

—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은 인색함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절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악마가 인색함을 통해 슬그머니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하지만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인색함 때문에 굶주리게 되기도 합니다.

— 그저 굶주리는 것뿐일까요?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큰 상점을 운영하면서도 주머니칼로 성냥을 세 조각으로 잘라 쓰곤 했습니다. 또 다른 부유한 여인은 유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타는 숯을 준비해 두고 불을 피울 때 유황을 숯에 대어 불을 붙이곤 했습니다. 성냥 한 개비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녀는 집도, 땅도, 막대한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낭비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낭비벽이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적어도 기꺼이 줄 것이다. 반면 구두쇠는 너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아까워할 것이다. 어느 날 두 이웃 주부가 샐러드와 식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나한테 아주 좋은 식초가 있어.” 시간이 좀 지나자, 다른 불쌍한 이웃에게 식초가 조금 필요해졌다. 그녀는 이웃에게 부탁하러 갔지만, 그 이웃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봐, 애야, 내가 내 식초를 남에게 나눠주기만 했다면, 7년이 지나도 내 식초는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야!”

아껴 쓰면서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껴 쓴다고 해서 구두쇠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돈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으셨습니다. 파라스에는 여관이 없었고, 그 대신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촌장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발을 씻겨 드리며, 깨끗한 양말까지 건네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순례자들이 찾는 일부 성전에서도 창고 전체가 등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등잔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지만,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모으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게 되어 더 이상 내어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건을 모으는 대신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때 그의 마음은 — 그 자신도 모르게 —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부에게는 아이들 옷을 사 줄 천 한 아르신 살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축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건딜 수 있겠습니까? 제 칼리바에는 접시도, 냄비도 없고, 양철 통만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 어떤 학생에게 500드라크마를 주어 한 수도원에서 다른 수도원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모으지 않을 때, 당신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때, 당신 스스로도 축복을 얻게 됩니다.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낳습니다.

선행 마음가짐, 그것이 전부입니다

— 헤론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제가 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가 자선을 베풀고 싶지만 줄 것이 없을 때, 저는 피로 자선을 베풀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람은 기쁨을 느끼지만, 타인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겸손하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지 못했다.” 선행 마음가짐이 전부입니다. 어떤 부자는 줄 것이 있지만 주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가난한 사람은 주고 싶지만, 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합니다. 둘은 서로 다릅니다. 부자는 자선을 베풀고 나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슴이 아픕니다. 선행을 하고 싶지만 이웃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고통받지만, 만약 무언가 있었다면 그것을 내어주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행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궁핍을 겪으면서도 그에게 주면, 자선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술값으로 탕진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선을 베풀 가난한 사람은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자비로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데, 다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곤 합니다...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헤론다?

— 어떤 불쌍한 사람이 주머니에 고작 5천 드라크마¹⁰⁹ 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길에서 거지를 만나 그 돈을 거지의 손에 쏘서 넣고 도망친다. 거지는 그것이 5천 드라크마라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때 어떤 부자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5천 드라크마를 자선으로 건네주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한다. “저렇게 5천 드라크마를 마구 나눠주니, 도대체 그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더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분명 백만장자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거지에게 500드라크마를 주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은 바로 그 5,000드라크마뿐이었다. 그는 거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설레어 그 돈을 내어준 것이었다. 만약 그 부자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자신을] 단련했다면, 선한 생각을 품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기 봐, 마지막 남은 것을 다 줬다”거나 “자신에게 있던 게 고작 만 드라크마였는데, 그중 오천을 거지에게 줬다.” 하지만 영적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한 생각이 떠오르겠는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논평한다. “그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뿌린다는 건, 삽으로 퍼 담을 만큼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지에게 500이나 1,000 드라크마를 주면서도, 자신 밑에서 일하던 가난한 일꾼에게는 5나 10 드라크마 때문에 온갖 소동을 벌이기도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낫선 사람에게 500이나 1,000 드라크마를 주면서, 정작 곁에서 당신을 돕는 사람은 굶주리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보아하니, 이 사람들의 자선은 칭찬받기 위해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논리에 이끌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노동자를 법정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 마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교회에 다니던 한 여성이 나에게 말하길,¹¹⁰ 어느 날 그녀가 숲에서 마을까지 노새를 타고 3시간 동안 장작을 운반해 온 한 할머니에게서 장작을 사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그 할머니는 산림 감시원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초소를 피해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30분을 더 걸려 총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15드라크마요.”

¹⁰⁹ 약 15 미국 달러. — *역자 주*.

¹¹⁰ 1958년

—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니요,” — 그 여인이 말했다. “그건 너무 비싸요. 11드라크마만 드릴게요.” “바로 그거예요,” — 그녀가 나중에 내게 말했다. “이건 우리 같은 성직자들을 바보 취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그 후 그녀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었다! 할머니는 노새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22드라크마를 벌기 위해 이들을 허비했다. 차라리 20드라크마를 더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아니었다. 그 대신 정통 유대식 흥정을 벌여야만 했다.

자선은 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부유함은 우리 영혼의 건강과 구원, 혹은 죽은 친인들의 영혼 안식을 위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때, 사람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병자, 과부, 고아, 그 밖의 불우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을 위해 자선을 베풀면, 그것을 받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라. 그의 유해가 축복받기를.” 누군가 병으로 고통받거나 일할 수 없어 빛에 시달릴 때, 당신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를 도와주며 “이 돈은 누구누구의 영혼을 위해 받아가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라. 그의 유해가 축복받기를.” 자선을 받는 이들은 고인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며, 이는 고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어떤 여자의 남편이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채 죽거나, 아이가 죽는다면, 그녀는 그들의 영혼을 돕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그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남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성혼을 맺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도 [그녀의 영적 성장에]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선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자신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의무는 다 했다. 나에게 또 뭘 더 바라는 거야?”라고 그녀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거나 심지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은밀히” 베푸는 자선¹¹¹

— 헤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랑과 희생 정신이 부족한 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에,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확신하나요?

— 그렇게 판단하는군요.

—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판단하지 말라.*”¹¹² 어떤 사람은 집시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곤경에 처한 어떤 환자를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돕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행인이 집시에게 자선을 베풀겠지만, 그 병자에게는 누가 베풀겠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바리새주의란 누군가가 칭찬받기 위해 노골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기억하기로는, 1957년에 제가 한 독립형 수도원에 있었을 때,¹¹³ 각 순종의 난이도에 따라 수도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수도원에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체력이 있는 수도사 중 일부는 많은 봉사를 맡아 더 많은 보수를 받았지만, 받은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곳에 돈을 나눠주지 않아 ‘인색한 사람’이라 불리던 수도사가 한 명 있었다. 이 수도사가 죽자, 장례식에서 그를 애도하기 위해 이곳, 칼키디키의 벨리카 파나기아, 팔레오호리, 네오호리에서 온 가난한 농민들이 모여들었다.¹¹⁴ 이 농민들은 소를 몰고 나무와 목재 판자를 운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소로 운반했지, 지금처럼 덤프트럭이나 목재 운반차로 운반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꾸준히 모아두었다가(), 어떤 집주인이나 가장이 소 한 마리밖에 없거나 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소를 사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 소 한 마리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소 한 마리가 5천 드라크마나 했고, 당시 돈은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수도사들은 한 거지에게 5드라크마, 다른 이에게는 10드라크마, 또 다른

¹¹¹ 마태복음 6, 4.

¹¹² 마태복음 7장 1절; 누가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7장 24절을 참조하라.

¹¹³ 수녀들이 공동의 원장 없이 함께 생활하며, 영적 생활과 생계 유지에 있어 각자 개별적인 규칙을 따르는 수도원.

¹¹⁴ 칼키디키의 마을들. - *번역자 주.*

이에게는 20드라크마를 주곤 했는데, 그들의 선행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자선을 베풀지 않고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탐욕쟁이, 구두쇠라고 불렀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말했다. “그가 나를 구해 주었다!”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분이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나무를 운반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때로는 사람이 자선을 베풀면서도 어떤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세요. 어쩌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동기가 순수할 때, 사람은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도시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을 아시나요? 제 지인 중 한 분, 경건한 분이자 변호사이신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몇몇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모아 선물 꾸러미를 만들고, 이를 도시 광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점령 이후¹¹⁵ 사람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가난한지 [누가 아닌지] 알고 있으니, 차라리 이 선물들을 조용히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아니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광장에서 나눠주자. 사람들이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 “그게 왜 필요하죠?” 내 지인이 다시 반박했다. “어느 책에서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도저히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깨닫고 지쳐버리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을 큰 도시 광장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널리 퍼지자마자, 가장 뻔뻔한 무리들이 마치 고릴라처럼 덤벼들어 마구 뺏어가고 또 뺏어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야만적이고 궁핍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아갔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질서를 잡으려 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며 제대로 한 대 맞고 말았습니다!

¹¹⁵ 1941-44년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에 의한 그리스 점령을 가리킨다. - 역자 주.

보시다시피, 영적인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자만하고 자랑할 만한 변명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헤론다, 믿지는 않지만 자비심이 깊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 세속적인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스위스에 살던 제 지인 한 분이, 한 부유한 무신론자 부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녀는 지극히 자비심이 깊어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나눠주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은 그녀를 최고의 양로원에 입소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행한 모든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무신론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녀는 대화를 피하며 그리스도는 그저 선한 사람, 사회 운동가에 불과했다고 말하거나 그와 비슷한 이론들을 늘어놓곤 했다. 어쩌면 그녀와 대화를 나눈 기독교인들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내 친구가 내게 말했고, 그 자신도 그녀의 회심을 위해 많이 기도했다. 얼마 후 그는 어느 날 양로원에 갔다가 그녀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았다고 내게 이야기했다. “저는 믿습니다,” — 그녀가 외쳤다. “믿습니다!” 그녀에게 그녀를 변화시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후 그녀는 세례를 받고 싶어 했다.

“이는 네가 불타는 숯을 그 머리에 쌓아 두는 것이니라”¹¹⁶

— 헤론다, 만약 사람이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런 척만 한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시험하지 말고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¹⁷ 설령 구하는 자가 궁핍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니,*”¹¹⁸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

¹¹⁶ 로마서 12, 20.

¹¹⁷ 마태복음 5, 42; 루카복음 6, 30 참조.

¹¹⁸ 마태복음 5, 45.

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¹¹⁹ 어떤 가난한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에 대해 의심이 들더라도,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분별 있게 그를 도와주십시오. 아바 이삭이 쓴 말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사람이 말 위에 앉아 네게 구한다 해도, 그에게 주라.”¹²⁰ 너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 네 할 일은 구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믿고, 그가 네게 구하는 만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고작 천 드라크마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지에게 주면서 더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면, 우리가 베푸는 축복(즉, 이 돈) 외에도, 우리는 그 거지의 양심 속에 그리스도와 선한 염려를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한 행동은 그 사람을 뒤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끊임 없이, 힐리아릭(¹²¹)과 함께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을 그에게 건네준 그 자비로운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결국 익명으로 자신의 은인에게 받은 돈 전부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살로니카에 있었을 때, 겔보기에는 집사인 한 여성이 나를 멈춰 세우고, 남편이 아파서 아이들을 위해 돈을 달라고 부탁했다. 내게는 500드라크마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더 줄 게 없네. 원하시면 제 주소를 받아가시고 남편분의 건강 소식을 편지로 알려주세요. 성산에서 더 많은 돈을 보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500드라크마와 함께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돈을 돌려드립니다.” 아픔을 담아 베풀면, 자선을 받는 사람은 사랑, 즉 그리스도에게 감동을 받아, 더 이상 모으기만 하지 않고 직접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선을 구하는 사람이 매우 냉혹한 사람으로 드러나 모은 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돈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은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 무정한 구걸자에게는, 그가 [스스로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직한 그 “기부금 모금”(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으로 인한 피로와 지침만이 남을 뿐입니다.

— 그렇다면, 게론다, 얼마나 기부해야 합니까?

¹¹⁹ 시편 102, 10.

¹²⁰ “누군가 말을 타고 앉아 자선을 받기 위해 너에게 손을 내밀면, 그를 거절하지 말라. 그 순간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지 중 한 명처럼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참조: *아바 이삭 시리아인*. 저작집. 세르기예프 포사드, 1911. 제56설교. 286쪽.

¹²¹ 천 드라크마 (구어) – *역자 주*.

— 나중에 양심이 찢리지 않을 만큼이면 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백을 주고 나서, 오십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큰 열정과 열의로 사랑을 베풀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사랑과 열정을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불쌍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줬는데, 좀 덜 줘야 했는데’라며 후회하지 않고, 결국 자신은 빈손으로 남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그런 사람은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자신이 가진 자기 희생의 정도에 맞춰 자선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구걸하는 사람의 요구가 지나칠 때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까?

—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한 번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그에게 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그 탐욕을 그만두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에게 돈 상자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네게, 예를 들어, 잼 한 병을 달라고 청하는데, 네게는 그것이 있지만, 청하는 사람 자신도 통째로 한 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잼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달라고 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형제여, 원한다면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그가 당신에게 요청했으니 그에게 주되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감수성이 있다면, 이 베품으로 인해 마음이 감동받아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성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네 원수가 네게 악을 행할 때, 네가 그에게 선을 행하면, 너는 그의 머리에 타는 숯을 쌓는 것이다.” 이는 네 원수를 재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그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사랑은 그리스도 이시며, 사람 안에서 신성한 은총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변화하게 되는데, 즉 자신의 양심에 의해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선행도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담아 선행을 하라. 네가 원수에게 선행으로 “복수”할 때, 그는 좋은 의미에서 변화하고 바로잡힌다.

코니체에는 가족이 있는 한 술꾼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가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그는 술을 마시니까요.”라고 말했다. 그 자신도 나에게 “제 아이들을 위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나는 그에게 자선을 베풀 때 “네 아이들을 위해 이걸 받아라”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가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말이 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는 계속 술을 마시겠지만,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를 괴롭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번 돈(가없게도 그녀는 남의 집에서 고생하며 일하러 다녔죠)을 빼앗아 다 술로 탕진했을 테고, 아이들은 더 큰 고통을 겪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에게 “이걸 네 아이들을 위해 받아라”라고 말할 때면,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떠올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고, 그는 그 마음을 알아차렸으며, 그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개과천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싶다면(물론 개신교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참된 복음을 배우십시오.

3부.

영적 용기에 대하여

“가장 큰 기쁨은 희생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희생할 때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으니, 그리스도는 바로 희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제1장.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¹²²

¹²² 본 장에 수록된 내용은 1981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장로께서 말씀하시거나 기록하신 것이다.

적그리스도

— 게론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자,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능한 한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도대체 왜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일까요? 어쨌든, 악을 저지르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그리스도라는 괴물이 태어나 온갖 미친 짓을 저지른다고 해도, 결국 그는 [어쨌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일들 중 많은 것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불쌍한 자도 몇 년 전부터 이미 소리쳐 경고해 왔습니다! 상황이 끔찍하고, 미치광이 수준입니다! 광기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배교가 닥쳤고,¹²³ 이제 남은 것은 “*파멸의 아들*”이 오는 것뿐입니다.¹²⁴ [세상]은 정신병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이 횡행할 것이며, 그 와중에 각 국가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정치를 펼치는 자들의 이익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장 믿기 힘든, 가장 미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즘, 공동 시장, 하나의 거대한 국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 — 이것이 바로 이 악마들의 계획이다. 시온주의자들은 이미 누군가를 메시아로 준비하고 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왕이 될 것이며, 즉 그는 이곳, 지상에서 통치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 시온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왕을 내세울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 모두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거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혼란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한 사람을 내세울 것이며,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이맘이다, 나는 다섯 번째 부처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다리는 그분이다, 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그에게는 다섯 가지 ‘나’가 있을 것이다.

¹²³ Αποστασία (그리스어) — 배교, 이탈. — *번역자 주*.

¹²⁴ 참조: 데살로니가후서 2:3.

복음서 저자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으며,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¹²⁵ 그는 기대되는 적그리스도가 막시밀리안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같은 박해자들과 비슷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되는 적그리스도가, 말하자면, 마귀의 화신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¹²⁶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메시아로 나타나 세상을 현혹할 것입니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에게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겪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택함 받은 자들조차 미혹될 것이라고 말한다.¹²⁷ 선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배도의 시대에 미혹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영적인 명료함이 없는데, 이는 마귀에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 헤론다, 시온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것들을 믿습니까?

—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주술과 사탄주의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사탄 숭배를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힘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탄의 힘을 빌려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한 결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과거의 사탄적 이론들은 70년 동안 지배해 왔지만, 이 이론들은 7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 게론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두려움이 듭니다.

—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가 악마보다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기 성녀 마리나는 악마를 두들겨 패버렸고, 성녀 유스티나는 얼마나 많은 악마들을 물리쳤는지요

¹²⁵ 요한일서 2장 18절.

¹²⁶ “반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마귀의 화신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로는, 반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에너지를 지닌 인간이자 사탄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순종적인 도구가 될 것임을 의미하십니다. 반그리스도가 인간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성부들이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와 아래에서 파이시이 장로는 적그리스도가 사람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성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 *역자 주*

¹²⁷ 마태복음 24, 24; 마가복음 13, 22 참조.

!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세속 왕

예언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는 예루살렘에 있는 오마르 모스크가 파괴되는 일일 것이다. 그곳을 파괴하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재건된 성전에서 시온주의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미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게론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 왜 직접 가서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광신적 성향을 지녔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들 중 누구도 유대인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 그럼 그들은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들은 영적인 의미를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가서] 예를 들어, 그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요르단 광야가 꽃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세요.¹²⁸ 사막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강물을 우회시키고, 계단식 농장과 정원을 만들고, 바나나와 레몬, 오렌지를 심어 온통 녹지로 만들었더니, 이제 사람들은 “사막이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한편, 이 예언자의 말씀은 성세례, 즉 “재탄생의 목욕”을 통해 세상이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지금 그들은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나요?

— 네, 적그리스도를요.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유대인이 임종을 맞이할 때 랍비가 그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¹²⁸ 이사야 35, 2 참조.

—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 말을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나요?

— 아니요,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청년들은 랍비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 그들이 말합니다, —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찾고 계십니까?” 미국에서는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한 청년 단체가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잡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께는, 믿게 되도록 이 잡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믿게 된다면, 잡지를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내어 그들도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사람들은 유대인인가요?

— 네, 유대인입니다.

—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 에이, 적어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 랍비들도 비밀리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요?

— 랍비이자 비밀 기독교인이란이요? 기독교인이 되면 랍비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가르치다가, 그들이 죽어갈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게 될까요?

666의 인장

— 헤론다, 이 모든 사건들은 언제쯤 일어날까요?

— 그 일들은 당신과 나를 위해, 우리가 건전한 영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은, 만일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당신과 나는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디에도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¹²⁹ 그러나 성경은 이러

¹²⁹ 마태복음 24, 36; 마가복음 13, 32; 사도행전 1, 7; 데살로니가전서 5, 1 참조.

한 사건들의 도래가 시대의 징조들로 미리 예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¹³⁰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를 유지합시다. 그 때가 가까워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 안드레아 케사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시간과 경험이 이를 밝혀 줄 것이다.”¹³¹

제 손에 한 권의 책이 들어왔는데, 표지에는 커다란 6이 세 개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숫자 6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인장도 다가올 것입니다.

— 게론다, 옷 단추도 ‘666’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런 판지에 담아 팔고 있더군요.

— 그래, 저주받을 악마야! 신용카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6이 세 개나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단추까지! 많은 이들이 자사 상품을 선호하게 하려고 ‘666’을 상표로 사용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지하는 셈이죠. 즉, ‘666’은 [마치 암호처럼, 그것이] ‘666’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뱀이 그려진 상징이 널리 퍼지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징은 일부 지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숫자 666은 이미 중국과 인도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 게론다, 그들은 이 숫자를 어디서 알게 되어 물건에 새기는 것입니까?

— 복음서 저자 요한은 마귀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는데, 이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서른 은 화*”¹³²에 팔릴 것, 그분께 식초를 마시게 할 것¹³³, 그분의 옷을 나누게 될 것¹³⁴을 미리 예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2천 년 전 요한계시록에는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로 인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음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¹³⁵ “666”

¹³⁰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 참조.

¹³¹ “인장의 숫자와 그에(적그리스도) 대해 기록된 나머지 모든 내용을 면밀히 연구하면, 깨어 있고 분별력 있는 이들에게 시련의 시기가 드러날 것이다.” 참조: 성 안드레아, 케사리아 대주교. 『목시록』. 상트페테르부르크, 1909, 120쪽.

¹³² 참조: 스가랴 11, 1-13

¹³³ 참조: 시편 68, 22.

¹³⁴ 참조: 시편 21, 19.

¹³⁵ 계시록 13, 18.

은 유대인들에게 경제의 상징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여러 전쟁에서 정복한 민족들에게 구체적인 세금을 부과했다. 연간 세금은 금 666 탈란트에 해당했다.¹³⁶ 현재,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그들은 영광스러운 과거와 연관된 옛 세금 숫자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숫자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즉, “666”은 마몬의 상징이다.¹³⁷ 이 숫자는 금의 무게 단위에서 유래했다. 성 요한 신학자가 말한 바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마몬은 여전히 마몬으로 남아 있다. “하나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¹³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들에게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송신기를 통해 전파를 방출하여, 각 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표식이 없는 유기견들은 레이저 광선으로 죽여버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도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수 톤에 달하는 물고기들에게도 표식을 새겨 놓고, 위성을 통해 그 물고기들이 어느 바다에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병이 등장했는데, 이에 대한 백신은 이미 개발되었다. 이 백신 접종은 의무화될 것이며, 사람이 백신을 맞을 때 표식도 함께 찍히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이저 광선으로 표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마에, 어떤 사람은 손에 표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666이라는 숫자로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시스템을 통해 온 세상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 빨간색, 검은색, 흰색을 막론하고 — 이 시스템 밖에 있으면 일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강요될 것이며, 오직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인장을 받은 자들만이 상업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까요! 한 전문가는 레이저 광선이 인체에 매우 해롭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사람들은 태양 광선을 몸속으로 ‘흡수’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해 혀를 깨물게 될 것입니다.¹³⁹ 인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¹³⁶ 참조: 열왕기상 10, 14 및 역대하 9, 13.

¹³⁷ 마몬 – 부, 이익, 세속적인 복. – 역자 주.

¹³⁸ 마태복음 6, 24.

¹³⁹ 요한계시록 16, 10 참조.

— 그분이 그들을 도우실 때는 언제입니까, 게론다? 그 후입니까?

— 아니요, 바로 그때입니다.

— 헤론다, 하지만 그들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죠... 이 질문이 저를 꽤나 고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전보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요! 오!...

— 말씀해 주십시오, 헤론다, 인장이 왜 ‘그림’이라고도 불리나요?¹⁴⁰

—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기다’는 무슨 뜻일까요? 깊고 곧은 선을 그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장은 먼저 모든 상품에 찍히게 될 ‘새김’이 될 것이며,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이마나 손에 찍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2년 전, 저는 토론토에 있는 한 의사에게 그 표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가 방금 신문에서 신용카드 대신 이미 손 지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점점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그리스로 수입된 일부 텔레비전에는 TV를 시청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특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TV를 시청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그들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찰하기도 하고, 관찰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온 삶, 말하는 모든 것, 하는 모든 행동이 컴퓨터를 통해 통제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악마가 어떤 독재를 꾸미고 있는지! 브뤼셀에는 [중앙] 컴퓨터 위에 6이 세 개 붙은 거대한 궁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60억 명은 거의 전 세계 인구에 해당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해성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유럽인들은 전 세계적 독재를 두려워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회 신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독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시절에 정교회가 소위 사라졌던 것처럼, 지금도 정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¹⁴⁰ ‘나체르타니예’ — χάραγμα (그리스어)는 동사 χαράσσω — 그어내다, 새기다, 잘라내다에서 유래함. — *번역자 주*.

새로운 신분증

— 게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0 드라크마 지폐는 어떻습니까? 그 지폐에는 6이 세 개나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분증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 5천 드라크마는 화폐 지폐입니다. 영국 파운드에도 빅토리아 여왕이 그려져 있지만, 저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나 신분증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타우토티타(tautotita)”¹⁴¹ 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즉 사람이 자신이 선언하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악마를 슬쩍 끼워 넣는다는 건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데 서명하라는 건가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새 신분증과 인장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새로운 신분증은 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헤론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분증 강요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 만약 질문을 한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고, 교회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해 주십시오.¹⁴²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하지만, 그 답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소책자 『시대의 징조』¹⁴³ 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지극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바랍니다. 물론 “아, 이건 한 수도사의 의견일 뿐입니다. 교회의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표명한 의견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제 말과 정반대의

¹⁴¹ 그리스에는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문서가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분증과 해외 여행용 여권이 다. 그리스어로 신분증의 명칭은 ταυτότητα이다. Ταυτότητα — “1) 동일성(수학), 동일함, 정체성, 일치 2) 여권, 신분증 3) 인격” (I. P. 호리코프, M. G. 말레프. 신그리스어-러시아어 사전. 모스크바, 1980. 743쪽). 웬겐 협정에 따라 ‘짐승의 수’를 기반으로 한 바코드가 인쇄된 새로운 신분증 도입 계획은 엘라다 교회, 아톤 산,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그리스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 *번역자 주.*

¹⁴² 파이시이 장로가 서거한 후 채택된 그리스 정교회 성시노드의 결정은,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기재된 문서가 정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복되이 잠든 파이시이 장로의 견해는 그리스 정교회의 주교단, 성직자 및 평신도들에게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 *역자 주.*

¹⁴³ 1987년, 복되신 파이시이 장로는 이 주제를 다룬 소책자 『시대의 징조 - 666』을 발간했다. — *번역자 주.*

주장을 하며 [제 의견을 빌미로 삼아] 이것이 파이시 신부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를 듣고도 이 문제들이 지극히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어버립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 칼리바에 찾아와 헌금함에 6루블 동전을 던져 넣곤 합니다. 그 정도는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문 뒤에 한 장의 종이 쪽지를 던져 놓았습니다. 저는 누군가 찾아왔다가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분은 없으십니다.”라고 적어 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세속적인 사람조차 듣기 힘든 끔찍한 욕설이었습니다! 이 모든 더러움을 청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투쟁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를 드리며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분증 문제를 걱정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이용해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하며,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받는 것이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말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신분증이 적어도 의무적으로 발급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지한 입장을 취하고, 신자들의 자유를 존중하여 원하는 사람은 새 신분증을 받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존 신분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세 개의 6’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의 숫자가 적힌 신분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평온과 안락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증을 받을 것이고, 불행하게도 경건한 사람들은 기존 신분증을 계속 소지하게 될 것이며, 그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장관이 666이 신분증에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나 기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세 개의 6’이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분증에 무엇이 적힐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이 배포되기 전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24시간 만에 새 신분증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첫 번째 신분증이 나오면 검토될 것이고, 만약 장관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면 그 투쟁은 정당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위를 계속한다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보세요. 정교회 신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군요. 문제가 제기되기도 전에,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시위하고 있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경비견은 도둑이 오면 짖습니다. 도둑이 도망가면 짖는 것을 멈춥니다. 만약 개가 끊임없이 짖는다면, 그를 좋은 경비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또, 게론다, 우리 사회에 종교적 관용이 있으니 새로운 신분증에는 종교가 기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¹⁴⁴

— 네,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증은 제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 적혀 있습니다. 종교가 기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혼인 신고소를 방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신분증에 “정교회 신자”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분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결혼 허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측에서는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기재 여부를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과도 같을 것입니다. 유럽은 유럽이니깐요. 우리에게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묘한 도장 찍기 방식

점차적으로, 신분증과 개인 신분 증명서를 도입한 뒤, 즉 개인 파일을 작성한 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인장을 찍기 시작할 것이다. 다양한 꾀를 동원해 사람들에게 이마나 손에 인장을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신용카드만 사용하십시오. 현금만은 폐지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은 가게 점원에게 카드를 건네고, 가게 주인은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될 것이다. 카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없을 것이다. 반면,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선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666이라는 숫자를 이마와 손에 새기는 것이다. 동시에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가 남의 카드를 훔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레이저 광선으로 새기는 것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직 소유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식은 가장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도둑이 당신의 머리카락이나 손을 훔쳐갈 수도 없고, 번호를 훔쳐볼 수도 없으니깐요.” 그래서 지금 범죄자들과 악당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폰 산의 카리에스 주변에서 열다섯 개의 수도실이 약탈당했고, 한 수도사는 약탈 도중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¹⁴⁴ 그리스에서는 신분증의 ‘종교’란이 최근까지 필수 항목이었다. – 역자 주.

이런 식으로 누구나 남의 것을 가로채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훔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속임수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치자. 그는 그 땅이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 소유였다고 하거나, 자신이 한때 목초지로 그 땅을 임차했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따져보겠는가! 그리고 나서 당국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는 오직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록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는 네가 등록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될 것이며, 그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3년 반은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¹⁴⁵ 이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구실을 찾아내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할 것이다. 1년이 지나면,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그들을 다른 도시로 심문하러 데려갈 것이고, 그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무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장을 받았다면, 우리는 1분 만에 당신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게론다, 그들이 강제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을까요?

— 예의 바른 성격 탓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유럽인답게 예의를 지킬 테니까요. 그들은 지극한 고귀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인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인장이 없어서 고통받고 계시군요,”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만약 인장을 받으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요.” 사람이 금화나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박하고 절제된 삶에 익숙해져 두면,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밭을 조금 가지고, 밀과 감자를 조금 재배하고, 기름나무 몇 그루를 심은 다음, 염소 한 마리나 닭 몇 마리 같은 가축을 기르면, [기독교인]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축해 둔 식량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료품은 오래 보관할 수 없고 금방 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박해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3년, 3년 반 정도일 것입니다.¹⁴⁶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날

¹⁴⁵ 단 9, 26-27; 묵시 12, 6; 13, 5 참조. 또한 참조: 성 이레네오스 리옹의 『저작집』. 모스크바: 팔로니크, 블라고베스트, 1996. 『이단에 대항하는 다섯 권의 책』. 제5권. 제25장, 500, 501쪽 및 제30장, 512쪽.

¹⁴⁶ 같은 책.

들이 단축될 것이며,¹⁴⁷ 그들은 이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움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 게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힘든 시기에 일어날 일들에 개입하실까요?

— 네. 저기 보시다시피, 선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모욕을 당하는 사람에게 성인들이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주 나타나시곤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이토록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더 큰 도움을 주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곧 한 차례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적그리스도이자 사탄의 짧은 독재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철저히 타파하실 것이며, 악은 그분께 의해 짓밟힐 것이고, 결국 그분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인치는 배교와 같다

성 요한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에서 ‘표식’에 대해 지극히 명확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¹⁴⁸ 어떤 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일부 현대 영지주의자들의 입에서 끄적할 정도로 많은 어리석은 말들을 듣게 된다. “나는 6이 세 개 적힌 증명서를 받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릴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이에 화답하며 “나는 이마에 인장을 받고 이마에 십자 성호를 그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들을 한 가득이나 되풀이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들은 미혹에 불과하다. 한 주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분증에 서명할 곳에 작은 십자가를 그릴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단지 나를 섬기는 시스템의 이용자일 뿐이야.” — “글쎄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이름 앞에 십자가를 그리시겠군요. 또 다른 분은 대수도원장인데, 그분의 지위도 특별하니 이름 앞에 십자가를 그리시겠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오물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맑은 물은 은총을 받아들여 성수가 된다. 그러나 소변은 성수가 될 수 없다. 돌은 기적적으로 빵으로 변한다. 그러나 불결한 것들은 성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악마, 적그리스도가 우리 신분증이나 이마, 손에 그 상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¹⁴⁷ 마태복음 24, 22; 마가복음 13, 20 참조.

¹⁴⁸ 계시록 13, 16 이하; 14, 9 이하; 16, 2 및 20, 4 참조.

해도, 우리가 그곳에 십자가를 그린다 해도 성화되지 않는다. 정직한 십자가의 힘—이 거룩한 상징, 그리스도의 신성한 은총은 우리가 세례의 은총을 간직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사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령의 은사의 인”이라는 거룩한 인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죠!.. 옆에 작은 십자가를 그어 놓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 베드로 사도가 겔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그것조차도 부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¹⁴⁹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인장을 받음으로써, 성세례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인장을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 헤론다, 만약 누군가가 무지 때문에 그 인장을 받게 된다면요?

— 차라리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하세요. 모든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무슨 무지란 말이 됩니까? 설령 사람이 모른다 해도, 스스로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 인장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선자들아, 하늘의 일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니라(уцкысiтму).*”¹⁵⁰ 인장을 받았을 때, 설령 무지 때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신성한 은총을 잃고 악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세례식 때 사제가 아이를 거룩한 세례반에 담글 때, 아이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후 그 안에 신성한 은총이 거하게 됩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

— 게론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걸 왜 신경 써야 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 내 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도 어떤 이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곤 해. “유대인들은 요한 복음사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세 개의 6으로 스스로를 폭로할 만큼 바보가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일을 꾸몄을 것이다.” 좋아,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을 몰랐단 말인가? 안나와 카야파는 그리스도께서 “서

¹⁴⁹ 마태복음 26, 69–75; 마가복음 14, 4–72; 루카복음 22, 54–62; 요한복음 18, 16–18; 25–27 참조.

¹⁵⁰ 마태복음 16장 3절.

큰 은화”를 받고 배반당하실 것이라는 기록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았단 말인가?¹⁵¹ 그런데 왜 그들은 [유다에게] 은화 서른 하나나 스물아홉 개가 아니라 서른 개를 주었을까? 하지만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정확히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지만, 미리 정하시지는 않으신다. 운명, 즉 키슈메트를 믿는 것은 오직 터키인들뿐이다.¹⁵²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아시지만,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대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사람들의 악의가 어디까지 이를지 보시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미리 정해 놓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예언에 몰두하며, 이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적어도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전제하지는 않으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수많은 자기 주장을 늘어놓는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언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성 키릴로의 “우리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¹⁵³ 는 말씀에 대해, 자신과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보라! 성 키릴로조차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런데 내가 성 키릴로보다 더 낫단 말인가? 따라서 설령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해도, 그건 전혀 무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성인은 “일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눈으로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위함이지, 마치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보라,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안타깝게도, 일부 현대의 영지주의자들도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치 갓난아기처럼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무서운 건 없으니,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돼.” 혹은 이렇게 애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증명서나 인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반면에, 사람들에게 “더 영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그리스도 곁에 머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다. 기껏해야 순교자가 될 뿐이니깐요”라고 말했더라면, 적어도

¹⁵¹ 참조: 스가랴 11, 1-13.

¹⁵² 키슈메트, 키스메트(아랍어, 문자 그대로 ‘부여’) – 섭리에 의해 각 사람에게 정해진 것. – 역자 주.

¹⁵³ “오, 설령 이 말이 전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참조: 성 키릴로 예루살렘. 저작집. 모스크바, 1855. 설교 15, 18. 262쪽.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해설가”들이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모자라,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스스로도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우려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며 신성한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우려를 심어주며 도와야 마땅한데 말이다. 저는 놀랍습니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내린 후, 적어도 물음표 하나라도 붙이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인을 돕고, 다른 영혼들까지 파멸로 이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서에서 “*가능하다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하리라*”¹⁵⁴ 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미혹될 것임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신용카드 시스템”과 컴퓨터 보안 뒤에는 전 세계적인 독재가 숨어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명에가 도사리고 있다. “... *그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게 하여,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리라. 여기에 지혜가 있다. 마음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계산하라. 이는 사람의 수이며, 그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155 156}

¹⁵⁴ 마르코 13, 22.

¹⁵⁵ 요한계시록 13, 16-18.

¹⁵⁶ 1997년 그리스에서 니코폴리스 및 프레베자 대주교 멜레티오스 성하의 저서 『정교회 전승 속의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2001년 모스크바에서 성녀 엘리자베타 대공비 순교자 자매회가 이 책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출판했다.

엘라다 정교회의 경건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을 사랑하는 평신도들은 이 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책에 대한 서평들에서는 저자인 대주교가 성경과 성부들의 저작을 왜곡함으로써, 1997년 4월 7일과 1998년 2월 9일자 엘라다 교회 성시노드의 순회 서한, 성 아폰 산 성 키노트의 호소문, 그리고 복자 파이시이 장로의 견해에 명시된 교회 전체의 평가와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되었다. 멜레티오스 대주교의 저서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신학적 반박은 성 메테오로스의 수도사들에 의해 “Παραχάραξη του χαράγματος. Ἀναίρεση των θέσεων του Σεβασμιωτάτου Μητροπολίτου Νικοπόλεως καὶ Πρεβέζης κ. Μελετίου στο βιβλίο του „Τό χάραγμα του ἀντιχρίστου στην ὀρθόδοξη παράδοσή.” — *역자 주.*

제2장.

희생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대에는 희생 정신이 드문 일이다

“아이들은 온통 골칫거리일 뿐이에요.” — 모든 것을 갖춘 한 여성이 나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짐이었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어머니에게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결혼 전의 딸이라면 어머니는 아침 10시까지 깨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돌봐야 할 때가 되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작은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은 투덜대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만약 “오, 나의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축복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집도 몇 채 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있으며, 남편은 월급도 많이 받고, 두 곳에서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는데.”라고 말했다면, 찬양과 함께 불행한 느낌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즉, 그녀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 희생은, 게론다,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 오, 그게 도대체 어떤 기쁨인가요! 이 희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에 이상이 없으며,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에 지쳐 있습니다. 용기와 자기 희생은 사람 안에서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그 힘이 없다면, 사람은 고통 받게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밤에, 소란을 피우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심하며 어떤 길을 닦곤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기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희생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아토스 산에서 성화 행렬이 있을 때, 수도사들이 오솔길을 걸으며 망토 끝자락이 덩불 가지에 걸리곤 했지만, 뒤따라오는 이들의 길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를 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걸리지 않도록 몸을 숙였다. 마치 덩불에게 절을 올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타지 않는 덩불이었다면 모를까!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

다른 누군가가 하도록 놔두고, 나는 그저 지나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 나뭇가지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너라면, 왜 네가 직접 하지 않는가? 그건 신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그런 삶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죽는 편이 천 배는 낫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그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은 이미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희생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때 성산에 있는 칼리바에서 탈장이 발병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문 옆에서 망치로 두드리면, 저는 눈과 추위 속에서도 나가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누군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비록 [말 그대로] 그 직전에 침대에 엎드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찾아온 분께 무언가를 대접해 드렸는데, 한 손으로는 대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탈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내내, 나는 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문객이 떠날 때면, 나는 다시 통증에 몸을 굽혔다. 통증이 사라졌거나 기적처럼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내 자신의 고통을 잊곤 했다. 기적은 네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할 때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 가슴이 아파지는 것이다. 그 고통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고귀한 너그러움, 즉 희생 정신만큼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타심이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이기심과 사리사욕이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차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축복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이 불쾌한 정신, 즉 무관심의 정신이 존재합니다.

선행은 그것을 행하는 이가 자신의 것—잠, 안식, 그와 유사한 것들—을 희생할 때 비로소 선행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¹⁵⁷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선행을 행한다면, 그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길을 묻는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러 나간다면, 그 선행은 값비싸다. 미리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밤을 새운다면, 그 대가는 미미하다. 게다가 그 대화가 내 마음에 든다면, 나는 그저 교제를 즐

¹⁵⁷ 누가복음 21, 4.

기고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반면, 지친 상태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희생할 때, 나는 천국 같은 기쁨을 느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흠뻑 젖어든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는 휴식 자체에서도 지쳐 버립니다. 반면 이웃을 돕는 사람은 피로에서도 휴식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해 있거나 일하느라 지친 누군가를 보고는 “앉아서 잠시 쉬어 가세요”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해 줄 것이다. 기진맥진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그를 도운 사람은 영적인 안식을 느낄 것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해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 진심을 다해 하는 일은 지치게 하지 않는다. 마음은 마치 자가 충전 장치와 같습니다.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충전됩니다. 저기 있는 전기톱은 썩은 나무둥치를 만나면 “프르르” 하고 혈떡이다가... 멈춰 버립니다. 하지만 단단한 나무를 만나면 힘차게 작동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계속 톱질을 합니다. 그리고 베풀 때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취해야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항상 타인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또다시, 게론다, 모든 것이 희생의 정신으로 돌아오네요.

— 그게 바로 온전한 영적 삶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희생할 때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기쁨은 희생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희생할 때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희생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을 미리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성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나 자신의 평안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 헤론다, 희생의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 타인의 입장에 서면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참호는 자주 물에 잠기곤 했습니다. 무전기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는데, 통신선이 붐비고 있어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허리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군복은 짜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 일을 직접

하는 것을 선호했고,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지휘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할 때면 나는 마음이 편하지만, 네가 안쓰럽다. 다른 누군가에게 시키라고 해.” — “아니요, 지휘관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기쁩니다.” 우리 반대대에는 또 다른 무선병이 한 명 더 있었지만, 작전에 나설 때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비록 제게는 힘들었지만 그에게 배터리나 무전기를 운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서운해하며] 이렇게 부탁했다. “왜 나한테 그걸 주지 않는 거야?” — “너에게는,” 내가 대답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잖아. 만약 네가 죽으면, 나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을 지켜주셨다. 그도 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다가 한 번 죽는 것이, 부주의나 비겁함을 드러내고 남은 평생 동안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을 겪는 것보다 낫다. 한 번은 내전 중에 반란군의 기동으로 인해 우리가 한 마을 뒤에서 나머지 부대와 고립된 적이 있었다. 병사들은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누가 갈지 제비를 뽑으려 하고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했다. 만약 경험이 부족하고 부주의한 누군가가 갔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 나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남았을 것이다. “차라리 — 내가 생각했다 —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테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견뎌내겠는가?” — “너는 그를 구할 수 있었는데 —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 왜 그를 구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나는 단식 중이었고, 배가 고팠다... 어쨌든, 됐어. 그러자 지휘관이 내게 말하더라. “나도 네가 가는 게 낫겠다. 넌 물에서 나와도 젖지 않을 테니, 힘낼 수 있도록 밥이나 좀 먹고 가라.” 나는 소총을 들고 길을 나섰다. 반란군들은 나를 아군으로 착각하고 지나가게 해 주었다. 나는 마을에 도착해 2층짜리 집 한 채에 들어갔다.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식량을 주셨고, 나는 우리 부대로 돌아왔다.

나는 [산속] 눈 덮인 겨울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기억이 난다. 모두 잠들어 있었고, 우리 텐트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텐트에서 기어 나와 무전기를 집어 들고 그 안에서 눈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보니 작동하더라. 지휘관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렸다. 그날 밤 나는 깡이로 눈 속에 파묻힌 동상 환자 26명을 구해냈다.

그리스도를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전쟁에서 했던 일의 10퍼센트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했다면, 지금쯤 기적을 행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수도 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군대에서 조국을 위해 그토록 큰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

는가?” 다시 말해, 군대에서 겪었던 그 고통에 비하면 수도 생활에서는 마치 왕의 아들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때는 내게 마른 빵이 있든 없든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작전 중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했는지 아세요? 눈을 먹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주변을 뒤져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냈지만, 저는 무전기에 묶여 있어서 거기서 떠날 수 없었죠. 한 번은 1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군용 빵 한 개와 청어 반 마리씩뿐이었죠. 물은 말발굽 자국에서 마셨는데, 그것도 깨끗한 빗물이 아니라 진흙이 섞인 물이었죠. 그리고 한 번은 ‘레모네이드’도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였는데, 마침 물이 가득 찬 말발굽 자국을 발견했죠. 노란색 물이었어요! 정말 마시고 또 마셨지!.. 그래서 그 후 수도 생활에서 물은, 설령 온갖 벌레가 가득 들어 있어도, 내게는 큰 축복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그건 물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통신 케이블선이 끊어졌다. 1948년 12월이었다. 주위는 눈더미로 뒤덮여 있었다. 오후 4시에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 마을로 가서(도보로 두 시간 거리) 선로를 복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두 시간 뒤면 어둠이 내릴 터였다. 병사들은 피로로 인해 죽은 듯했고, 걸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그런 눈더미 속에서 케이블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 헤론다, 길을 모르셨나요? 케이블이 어떻게 매설되었는지도 모르셨나요?

— 아, 길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밤이 되면 우리는 길 한가운데서 밤을 보내게 될 터였죠. 요컨대, 몇 명을 배정받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대 주둔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휘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삽으로 길의 눈을 치우고,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죠. “가자, 가자. 우리 아직 돌아와야 하잖아!”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길래 제가 앞장서서 갔습니다. “엘라다라면,” 그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죽을 리가 없는데, 우린 죽어가고 있다!” 끝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눈 속에 빠지고, 그들은 나를 끌어내고, 다시 빠지고, 다시 끌어내고... 나는 사브르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수시로 칼끝으로 앞의 눈을 찔러보곤 했다.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다. 나는 앞장서서 걸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가자, 가자. 여기에는 가축도 다니지 않고 케이블을 끊을 수도 없어. 케이블이 땅 위로 드러나 있는 어떤 계곡에 도착하면, 거기서만 확인하자.” 마침내 우리는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앞에는 눈더미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계단식 밭이 있었고, 나는 그 중 한 계단에서 아래로 눈 속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더 나아가거나 나를 구해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우리는 한 계단식 밭에서 다른 계단식 밭으로 넘어가며 —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는 게 좋겠다 — 아래로 내려와 늦은 저녁에 마을에 들어섰

다. 어느 계곡의 한두 군데에서 절벽을 발견했고, 우리는 케이블을 연결해 지휘관과 연락을 취했다. “돌아가라,”라고 지휘관이 우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밤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위쪽 테라스로 다시 올라가야만 했다! 우리는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는데! 도대체 길을 어떻게 찾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죠?” — 내가 지휘관에게 물었다. “내려오는 건 어떻게든 해냈지만, 이제 어떻게 올라가죠? 차라리 내일 아침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을 반대편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겁니다.” — “‘내일’ 같은 건 없어요,”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다행히도 이 대화를 지휘관의 부관이 듣고는 우리에게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지휘관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두세 장의 두툼한 모직 이불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오한이 밀려왔다. 나는 맨 앞에서 길을 뚫으며 걸었기 때문에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고생을 많이 했이라며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가운데에 눕혀 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군용 빵 한 조각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내 인생에서 그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예들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박수를 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후, 통신 부서에서 동료들이 나를 속였다. “아버지가 오시는데, 같이 만나러 가야 해. 내 자리 좀 대신 지켜줄래?”라고 한 동료가 말했다. “나한테는 여동생이 왔어.”라고 다른 동료가 거짓말을 했다(그녀는 그의 여동생이 전혀 아니었다). 누군가 또 무슨 이유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면, 내가 희생양이 되어 항상 이 사람 저 사람을 대신해 당직을 서곤 했다. 당직이 끝나면 바닥을 쓸고 정리를 했다. 통신 소대실에는 다른 사람, 심지어 다른 부서의 장교들조차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게다가 당시에는 전시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소부를 둘 수도 없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모든 방을 쓸었다. 거기서 쓸기 방법을 배웠다. “여기는,” 내가 말하곤 했다, “근무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성한 장소이니, 치우지 않은 채로 둘 수는 없다.” 나는 쓸 의무도 없었고, 사실 하는 법도 몰랐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빗자루를 손에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설령 들고 싶다고 해도, 내 여동생이 바로 그 빗자루로 나를 두들겨 패버렸을 테니까! “청소부,” 동료들이 나를 놀리며 말했다. “영원한 희생양.” 나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기뻐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 게론다님, ‘부정한 생각’이 전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놀러 다니면서, 왜 자기 누나와는 만나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 아니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부탁인데, 내 대신 잠시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나?”라고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식들을 위해 돈 좀 달라고 했지만, 정작 그 돈은 자식들에게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서도 돈을 받아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한 건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대 배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소대 전체의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호출 신호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릴레이는 쉴 새 없이 울려댔죠... 그때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한동안 39.5의 열이 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나를 들것에 실었을 때,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베네딕트,¹⁵⁸ 대수리하러 가자. 이제 우리가 널 들것에 실어 낡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으로 데려다줄게.” 그리고 그들은 나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나는 돌보는 사람 없이 홀로 있었다 — 누가 나를 돌볼 수 있었겠는가, 모두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바빴으니 — 하지만 기쁨을 느꼈다. 희생에서 비롯되는 그 기쁨, 왜냐하면 내 자신의 평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을 잊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희생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희생의 정신을 키우지 못하면,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립되어 — 이종의 고립에 빠지게 되며 — 신성한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끊임없이 오직 자신과 자신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신성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지만, 인간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서 도움을 찾으려 애쓰며, 즉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지만, 결국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

¹⁵⁸ 그곳에서 유명한 한 설교자 사제의 이름이었는데, 동료 사제들은 그 노장을 놀리려고 그를 베네딕트라고 불렀다.

은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많이 기억하십니다. 예를 들어,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수도원에서 이타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 영혼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신성한 행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 정신은 바로 그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희생 정신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위험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담에도 “곤경에 빠졌을 때 친구의 진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느님께서 금하시기를, 지금 예를 들어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누가 타인을 생각하고 누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 미리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구에게 진정한 희생 정신이 있고, 누구에게 이기심이 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장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이기심이라도 희생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지금 그가 노동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으려고만 신경 쓴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지금 사소한 일로 자기 자신만 걱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에 어떻게 타인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힘든 시절이 닥쳐와 그런 사람이 길가에 열병으로 쓰러진 이웃을 보게 된다면, 그는 그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떠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가서 좀 누워야겠다. 안 그러면 나도 쓰러질까 봐.”

그러나 전쟁에서는 당신과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집니다. 용기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서둘러 나서는 데 있지만, 희생 정신이 없다면 누구나 자기 자신만 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관찰된다. 전쟁에서는 포탄이나 지뢰가 도망치려는 사람을 찾아낸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위험을 피하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빨리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니 위험에서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알바니아 전쟁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기억난다.¹⁵⁹ 한 병사가 돌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총알과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가지러 잠시 옆으로 물러나야 할 때, 그는 그 돌판을 참호 바닥에 놓고 벽에 기대어 두었다. 이를 본 옆의 병사가 즉시 그 돌판을 집어 가져갔다. “자, 이제,” 그가 생각했다. “이걸 가져갈 좋은 기회가 생겼군.”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지뢰가 터져 그를 덮쳤고, 시신조차 남지 않았다. 주위에서 포탄이 터지는 것을 보며, 그 불쌍한 병사는 그 석판을 집어 들었지만,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만 생각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 “그가 떠났으니, 나는 이 난로를 가져가도 된다.” 그렇다, 그는 떠났지만 난로는 여전히 주인의 것이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전쟁이 진행되는 내내 복무를 회피했다. 그는 누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는 집에 앉아만 있었다. 상황이 악화되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도 그는 위험을 피하려고만 했다. 그 후 영국군이 들어오자, 그는 영국군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애썼고, 제르바스¹⁶⁰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기회를 이용해 미국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죽고 말았다! 그의 아내, 불쌍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나 봐!”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죽었고,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영웅적으로 죽는 이들은 죽지 않는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이들도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 그들이 내세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왜 죽어야 하죠? 그는 가족의 가장인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위험한 임무로 향했다. 이 사람들이 감수한 그 희생은 신앙인이 감수한 희생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다. 신앙인은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보응을 믿었지만, 비신앙인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으며, 내세에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¹⁵⁹ 알바니아 전쟁(또는 알바니아 전선) – 1940~1941년 그리스와 파시스트 이탈리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 – *번역자 주*.

¹⁶⁰ 나폴레옹 제르바스(1891–1957) – 에피루스와 그리스의 일부 다른 지역에서 나치들에 대항하여 활동했던 반파시스트 운동 ‘그리스 국민민주연합’의 지도자. – *역자 주*.

점령 기간 중, 다바키세⁽¹⁶¹⁾ 시절 이탈리아군은 젊은 장교들을 체포해 배에 태운 뒤 배를 침몰시켰다. 그 후 그들은 민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잡힌 사람들을 고문하여 집에 무기를 소지한 다른 주민들의 이름을 자백하도록 강요했다. 그 당시 평민들이 얼마나 큰 희생정신을 보였는지 여러분도 직접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코니체에 있는 우리 집 근처, 지금 성 코스마 에톨리우스 성당이 세워진 곳에는 예전에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스크에 갇혀 밤새 가시 달린 채찍이나 껌질을 벗긴 전선으로 구타당했습니다. 철사를 밖으로 빼내어 끝에 납덩이를 매달아 사람들을 때렸던 것입니다.

강철 철사는 피부를 벗겨냈다. 그리고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이탈리아인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었다. 여기서 “음악이 흐르는 도살장”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게다가 불쌍한 사람들은 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렸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우리가 자백하면(사실 그들은 누가 소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후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자백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똑같이 구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라리 우리가 죽는 편이 낫다”고 결심했다. 다른 이들은 한 번 혹은 다섯 번의 고문¹⁶²을 견디지 못하고 적들에게 무기를 숨겨둔 사람이 누구인지 털어놓았다. 굶주림이 만연했고, 사람들은 배신자가 되어 갔다. 혼외 자녀들로 구성된 대대의 일부 이탈리아인들은 온갖 야만적인 콤플렉스를 지닌 진정한 야만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악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풀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잡아 불쌍한 아이들을 옷을 벗기고, 달궈진 철제 집게 위에 얹힌 뒤 발로 밟아 몸이 타들어 가게 했다. 그들은 부모들이 누가 소총을 가지고 있는지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을 고문했다. “나한테는 없어, 나한테는 없어!”라고 어른들이 소리쳤지만, 고문자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불태웠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라리 죽는 것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많은 사람을 구했다. 그렇게 몇몇 영웅들 덕분에 우리는 민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¹⁶¹ 다바키스 콘스탄티노스 (1897–1942) – 그리스 육군 대령이자 재능 있는 군사 지도자로, 1940년 11월 핀드스 독립 여단의 사령관을 맡았다. K. 다바키스가 핀드 산악 지역에서 이탈리아 산악 보병 사단 “줄리아”를 상대로 거둔 승리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파시스트 연합이 당한 첫 번째 중대한 패배였다. – 역자 주.

¹⁶² 오카(oka) – 1280그램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 – 역자 주.

영웅적으로 죽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웅심이 없다면, 좋은 일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한 믿는 사람은 용감할 것이라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마크리아니스,¹⁶³ 그 불쌍한 사람, 그가 겪은 일이라니! 게다가 그 시절에!

—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게론다: “제 눈이 그을렸어요.”

— 네, 그의 눈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긴장과 불안 때문에 그의 눈은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면서, 그는 고통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결코 자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면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리아니스는 영적인 경지를 체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수도사가 되었다면, 아마도 안토니우스 대성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와 불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삼천 번씩 절을 했습니다. 그가 절을 할 때면 상처가 벌어지고 내장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제자리에 다시 넣곤 했습니다. 내가 세 번 절하는 것이 그의 한 번 절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 앞의 바닥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만약 우리 대신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의료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아말로 신성한 힘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전쟁 중에는, 게론다, 위험에 처한 적이 있으셨나요?

— 오! 한두 번뿐이었겠습니까? 지금 와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되새기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은 그 힘으로 천 명의 경호원과 맞먹습니다. 죽음은 곧 안전입니다. 전쟁에서 성스러운 자원군 부대의 상징은 해골입니다. 이는 그들이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든 자신을 잊는 사람은 신성한 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희생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한 번은 우리가 어떤 벼랑 뒤에 참호를 파고 숨어 있

¹⁶³ 요안니스 마크리아니스(1797-1864) - 소장, 엘라다의 국민적 영웅. 그리스 혁명(1821-1830) 당시 터키에 맞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운 투사 중 한 명. 혁명과 해방 투쟁에 관한 『회고록』의 저자. 이. 마크리아니스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 조국에 대한 희생적인 기독교적 사랑의 훌륭한 본보기이다. - 역자 주.

었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작은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살짝 몸을 숨겼다. 한 명이 기어오며 “나도 들여보내 줘,”라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이 기어오며 “나도.”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부탁했기에 참호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었고, 나 자신은 밖에서 기다렸다. 밤이 되어 강력한 포격이 시작되었을 때, 파편 하나가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헬멧을 쓰지 않고 후드만 쓰고 있었다. “친구들!” 내가 소리쳤다. “나한테 파편이 맞았어!” 손으로 머리를 더듬어 봤지만 피가 느껴지지 않았고, 다시 더듬어 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파편이 머리를 살짝 스쳐 지나갔을 뿐,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만 깎아냈을 뿐이었다. 내 머리에 폭 6센티미터의 깨끗한 줄무늬만 남기고 말이다.

여러분은 힘든 시절, 점령기를 겪어보지 않았고, 전쟁도, 적도, 비통함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끓어오르고 쑥쑥거리는 솔과도 같습니다. 단련과 용기, 그리고 담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 *준비하라*.”¹⁶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단순히 준비된 것 이상으로, 세 배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들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희생의 정신이 깃들게 합시다.

지금 저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고, 곧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미뤄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씩 기한이 미뤄지죠. 누가 이 기한을 미루는 걸까요? 신께서 미루시는 걸까요? “자, 한 달만 더, 자, 두 달만 더!”... 그렇게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¹⁶⁵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니, 할 수 있는 한 ‘ ’ 사랑을 키워 나가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형제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관심과 아픔, 사랑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선함과 사랑은 힘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비밀을 지키고, 함부로 털어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밀을 “오직 너와 나, 그리고 그 사람, 그리고 종지기 시메온”만이 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한 어리석음으로도 악을 저지를 수 있고, 나중에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 비밀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보라! 포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장 먼

¹⁶⁴ 마태복음 24, 44; 루카복음 12, 40.

¹⁶⁵ 1984년 11월에 발표됨.

저 해야 할 일은 호출명을 없애는 것이었다: 기록을 조각조각 잘라 삼켜버리는 것이다. 한 번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출명이 반란군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우리] 부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식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정보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본부에 무선 전보를 보내 [우리] 공군이 날아와 그들에게 식량을 투하하고, 우리 머리 위에는 폭탄을 투하하도록 요청했을 것이다. 알겠나? [호출 부호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정부군 명의로 사령부와 연락을 취했을 것이다. 만약 네가 무선 통신병이었다가 포로가 되었다면, 호출 부호를 털어내게 하려고 펜치로 손톱을 뽑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손톱이 뽑혀도 배신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고통을 감수했을 것이다. 한 [무선통신병]은 무선 전보 내용을 말하게 하려고 거드랑이를 불로 태웠지만, 그는 마치 감각이 마비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적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순교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노새 안장에 군용 문서를 싣고 운반하며 죽음을 각오했다.

전쟁에서의 죽음은 하느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다. 용감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으로 동료 인간, 이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며, 죽음 그 자체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으로 인해 죽음을 경멸하고, 그로 인해 불멸을 얻으며, 묘비 아래에서 영원의 열쇠를 찾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도자의 온 삶은 희생 그 자체이다

수도자의 온 삶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사랑과 희생 정신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즉, 그는 희생을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수도사에게는 [세속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생 정신을 길러야 한다. 평신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생각이 없었고, 게다가 세속적인 의무도 있다. 그는 가족과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그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그리 엄격하지 않으며,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가정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위험을 피하려 애쓴다. 자신이 위험을 피하면, 역시 자녀가 있는 다른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글썄, 이건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존재하니까요. “내 아이들이 거리에 남겨질 거야.”라고 그런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는 내세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이 생을 구하려 애쓸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게론다, 수도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도자의 온 삶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수도자가 되겠습니까? 수도자가 이 점에서 부족하다면, 그는 수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영적 투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다면, 영적 투쟁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다면, 수도사가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모두 소용없을 것입니다. 성산에서는 그런 영적 삶을 텃밭의 허수아비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 영적 삶을 사는 수도사는 악마를 쫓아내는 것은 고사하고, 까마귀를 쫓아내는 것조차 큰 성과일 정도입니다. 사람이 이 생에서 닥친 위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때, 그 안의 신성한 불꽃도 타오릅니다. 이 신성한 불꽃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불꽃은 그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열정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¹⁶⁶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성한 불이 있을 때, 수도사의 시편 찬송과 기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타인을 위한 것이든, 결실을 맺습니다. 특히 여성의 마음은 정화되면 큰 힘을 지니게 되어 기도에 매우 능숙해지며, “레이더”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기쁨을 누리거나 세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뿐,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희생 정신과 형제애를 기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고, 그분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기 세상 사람들은 천국조차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희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무지 속에 있으면서도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수도자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죽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세속적인 의무조차 없는 우리에게 희생 정신마저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개미들조차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개미들이 사람들을 비웃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게으름뱅이들을 비웃는다고요!

— 게론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 말이죠.

¹⁶⁶ 누가복음 12, 49.

— 그런 건 언제나 드러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 영혼은 평안을 찾지 못하고 이를 깨닫고 그 동기를 정화하려고 애씁니다. 며칠 전 찾아왔던 한 여성의 영혼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병들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괴로워하며 울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더니, “어쩌면 그것은 악마의 유혹일지도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유혹에서 비롯될 수 있겠습니까? 악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할 때만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며, 그럴 때 비로소 그 감정은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를 제거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나’를 벗어나면 땅을 떠나, 다른 분위기 속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는 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영적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너무 자신을 아끼지 마시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안락함 앞에 무릎을 꿇지도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모험에 뛰어들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형제여, 조금이라도 영웅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 영웅들은 얼마나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콘딜리스¹⁶⁷와 함께 싸웠던 한 수도사(콘딜리스는 애국자이자 영웅이었다)가 나에게 말하길, 소아시아 전쟁 당시 그리스군이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상륙 작전을 펼쳤을 때, 콘딜리스는 배에 타고 있었는데, 멀리서 콘스탄티노플을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 친구들아,” 그가 외쳤다. “죽을 거면 죽자! 오늘이든 내일이든! 죽을 거면 용감하게 죽자! 이봐, 친구들! 조국을 위해 영웅으로 죽자!” 그는 배가 육지에 닿을 때까지조차 기다릴 수 없었다. 긴장과 강렬한 열망 때문에 배가 아직 해안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는 뛰어내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그의 가슴은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헤엄칠 줄 몰랐기에, 다른 이들이 달려와 그를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 게론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나’라는 자아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로만 원하시네요. ‘나’를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언제 ‘나’를 버린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에서 ‘나’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을 정

¹⁶⁷ 콘딜리스 게오르기(1879–1936) – 그리스의 저명한 군인 겸 정치가. 1920년대 소아시아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그리스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총리직을 역임했다. – *번역자 주*

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고려하지 않을수록, 그만큼 나는 ‘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평온을 잘라내면서, 우리도 ‘나’를 제거합니다. 순종과 침묵 덕분에 우리 자아에서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타적일 때, 우리도 ‘나’를 몰아내지만, 우리 사랑에는 희생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어떤 수녀가 원장 수녀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다른 수녀도 원장 수녀님을 뵙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만약 첫 번째 수녀가 그 수녀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자신의 차례를 양보한다면, 그녀에게는 순종과 희생 정신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다른 수녀에게 양보하고 수녀원장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녀와 대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마음이 그렇게 이끕니다, 단순히 “성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이 경우 한 수녀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영적 도움을 받고, 다른 수녀는 신성한 방식으로, 곧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수도사들에게조차 없는 그런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세속의 사람들도 지켜보십시오. 저는 세속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약점과 정욕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설령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도움을 베풁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목격하면, 악을 막기 위해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은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서둘러 자신의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줍니다. 수년 전, 한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기계에 걸려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러 달려간 것은 한 여성이었다. 그 ‘용감한’ 남자들은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기계에서 끌어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드레스가 기계에 걸려 기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교자여! 이는 위대한 업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내던질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제3장.

용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하여

용기 속에는 야만성이 없다

위업을 이루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용기와 넓은 마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비심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용기 속에는 야만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적을 향해 쏘지 않고, 적 주위를 쏘아 그를 항복하게 만든다. 선한 사람은 죽이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신성한 힘을 받아들인다. 반면 악한 사람들은 비겁하고 소심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뻔뻔함으로 가리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쉬지 않고 총을 쏜다. 내가 내전 당시 군 복무를 할 때, 우리는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산적들이 아무도 없어요.” 현지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다 떠났어요. 미친 여자 한 명만 남았어요.” 우리 중 한 명이 멀리서 그 여자를 발견하고 기관단총으로 그녀에게 두 번 연사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그 불쌍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 그 사람이 겁에 질려서 그런 건가요?

— 네,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쉬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적은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려 하죠. 덜 비겁한 사람은 덜 사악할 것입니다. 그는 적을 무력화시키려 노력할 테죠.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를 다치게 하겠지만,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용기와 담력은 한 가지이지만, 악의와 범죄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적을 포로로 잡아 목을 베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적을 붙잡아 소총을 부러뜨린 뒤 그를 풀어주는 것이다. 제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파라시(Фарасы)를 습격하던 체트(четов)들을 잡을 때,¹⁶⁸ 그들에게서 소총을 빼앗아 부수고는 “너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부유한 투르크족 여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진영에 들어가 우두머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는 미리 부하들과 약속을 해 두어, 신호가 들리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도록 했다. 체트들이 그

¹⁶⁸ 터키 산적들. 다음 책도 참조: *파이지이 스비아토고레츠 장로*. 아르세니 카파도키아 성자.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7. 22, 74쪽

를 우두머리에게 데려가자,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다. “네 부하들은 나가서 우리 둘만 남게 해라.” 둘만 남게 되자마자, 아버지는 우두머리에게서 소총을 빼앗아 부러뜨리고 강도에게 말했다. “이제 넌 여자가, 나는 에스네피디스다!”¹⁶⁹ 그러자 아버지는 신호를 보냈고, 부하들이 들이닥쳐 체트족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성공하려면, 좋은 의미에서 ‘미친’ 기질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그 ‘미친’ 기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는 성자가 되거나 영웅이 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길을 벗어나 악에 빠져들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무모한 기질’이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도, 영웅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 내면의 작은 엔진이 작동해야 하고, 마음과 용기가 불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마음은 무모해져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좌절감에 시달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장교들을 알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이 일어나서 현장에 뛰어들기를 원할 정도로 내면이 불타오르고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징집 통지서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친 척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퇴역 장교들이 나에게 보스니아로 가서 싸우고 싶다고 말했는지 모른다! 영적 삶에서 자신의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 그들은,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싸울 기회를 반기곤 한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영적 삶을 알았다면 어떤 위업을 이루고, 어떤 영적 투쟁을 벌였을지 아느냐? 그들은 분명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는지

— 게론다, 한 번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죠...

— 제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만일을 대비해 안전을 위해 항상 야타간을 지니고 다니셨죠.¹⁷⁰ 보세요, 과부이시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주위에는 터키인들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모두가 할머니를 두려워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어느 날 한 강도가 묘지 근처에 있던 포도밭에 들어갔다. 사람들을 겁주려고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흰 셔츠를 입었다. 그리고는 포도밭에서 나와, 여전히 흰 셔츠 차림으로 묘지에 들어가 이리저리 어슬렁거렸다. 마침 그때 우리 할머니가 묘지를 지나가고 계셨다. 강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죽은 척하며, 할머니가 자신을 뱀파이어로 착각하고 겁에 질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 제

¹⁶⁹ 장로의 성.

¹⁷⁰ 크고 휘어진 터키식 단검. - 역자 주.

법 관참은 사람이었다면 진작 땅에 묻혔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는 야타간의 뭉툭한 쪽으로 악당을 때리기 시작했죠! 그를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나중에 마을에 돌아와서야 ‘누구누구가 심하게 다쳤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용기가 드문 일이다. 사람들은 물에 젖어 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금하시길 바라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이들은 공포로 죽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사소한 시련에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들은 좋은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용감했는지! 소아시아의 플라비아노프스키 수도원에서 터키인들이 한 기독교인을 붙잡아 죽였다. 그 후 그들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네 아이들도 우리 손에 죽이겠다.” — “제 남편은,”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셨으니, 제 아이들은 그리스도께 맡기겠고, 저 자신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용감하구나!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 용기가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온 삶을 쓰레기 위에 쌓아 올리고 있다.

그 시절에는 어머니들도 용감했고, 아이들도 용감했다. 코니체에서 우리 이웃 여인이 임신한 상태로 혼자서 옥수수 흙을 덮으러 밭에 갔던 일이 기억난다. 걸어서 한 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옷자락에 아기를 안은 채 마을로 돌아왔다. “저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 그녀는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점령기였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아이를 낳기 위해 두려움에 휩싸여 6~7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병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자연스러운 두려움은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 게론다, 저는 겁이 정말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 어쩌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믿음의 부족이나 하느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또한 [필요한] 제동 장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하느님께 의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헤매는 가운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시인들이 사는 더운 나라에는 야생 동물, 큰 짐승, 비단뱀 등이 서식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신의 지침을 찾도

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제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 그런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습니까?

— 보세요: 그들은 고개를 하늘로 들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은 제동 장치 역할을 합니다. 조금만 겁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지금 불뿔이 올 거야!”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정신이 성숙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두려움은 어린 시절에만 도움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텅 빈 공간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인 분들이 제 칼리바에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희 곁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때문에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은 죽음을 잊지 않으려 애쓰는데, 곁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다는 건가요?!”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여성들은 타고난 두려움이 조금 더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본래 겁이 없고 마음속에 용기를 가진 남자라면 건방져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여성들은 끔찍한 겁쟁이들이다. 타고난 두려움을 가진 여성이 용기를 내어 용맹을 기른다면 대단한 일이다. 여성은 본성상 희생정신이 있어 많은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무리 타고난 용기가 있는 남성이라도 갖지 못한 특성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죽음은 두려워한다

— 게론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 용기로요.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원수는 그를 더 많이 유혹합니다. 비겁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몰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코니체에 있는 묘지 옆을 지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묘지에서 사흘 밤을 잤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십자 성호를 긋고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손전등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용감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닭들조차 그를 위해 울게 될 것입니다.

— 그러니까, 게론다,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선함과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에서 용기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장례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상기시키지 않기 위해 가게 간판에 “장례식장”이 아니라 “장례 서비스”라고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현실 밖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헛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균조차도 무서워하며,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담대한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열정과 헌신으로 힘차게 활동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매일 그것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그들은 영적으로 더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담대함으로 힘차게 활동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헛된 삶을 이겨내고,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함과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과 신앙,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는 자는 십자가를 짊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도우미로 모시고 있으니! 사람이 십자가를 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그 사람이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 그렇다면 사람이 경솔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그것은 훨씬 더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은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경솔함을 톡톡히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깊고,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쳐야 하지만,¹⁷¹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대담함의 가치는 크다

극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막 시작되는 공황에서 비롯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기, 닭이 독수리와 싸움을 걸어 독수리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개와 싸우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세요! 꼬리를 뿔처럼 치켜세우고 위협적으로 췌췌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동물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사람은 겁쟁이로 드러나고 말죠!..

¹⁷¹ 마태복음 11, 12 참조.

공황에 휩쓸리지 마세요. 특히 여성들은 공황에 쉽게 휩쓸립니다. 점령 기간 동안 우리가 코니차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한 곳으로 가게 된 일이 기억납니다. 친구들이 [조금] 앞서 가더니 그곳에서 그리스 군인들의 헬멧과 군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입고 성 콘스탄티노스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성화에 입을 맞추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는 열다섯 살이었다. 어머니들이 멀리서 군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이탈리아군이 온다!”라고 소리치며 도망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도대체 누가 있는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장난꾸러기들이 그리스 군용 헬멧을 썼을 뿐인데, 겁에 질린 어머니들은 그들을 이탈리아군으로 착각하고 자기 아이들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대담함의 중요성은 크다. 만약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겁이 많은 사람에게 “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무슨 일이야?”라고 말한다면, 그는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가 창백한 이유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나, 치아가 아팠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스인은 앞으로 돌진하거나 패닉에 빠질 것이다. 겁쟁이는 아무 쓸모가 없다. 전쟁에서 겁쟁이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임무나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다. 겁 많은 병자 한 명이 작전 계획을 모르면 엄청난 공황을 일으켜 사단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두려움은 겁쟁이의 상상력을 부추기며, 그는 이렇게 소리칠 수 있다. “저기 있다! 아이고, 다가온다, 벌써 여기 있다, 칼로 베고 있다! 아, 우린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하지?! 적이 엄청나게 많다! 저들이 우리를 집어삼켜 버릴 거야!” 그런 사람은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타인의 영향력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반면 용감한 사람은 적을 보고는 그저 침을 뱉으며 “헛, 이게 사람이란 말인가? 개미 떼나 다름없잖아!”라고 말할 뿐이며, 나머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과감하게 돌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려운 임무는 겁쟁이 스무 명보다 용감한 다섯 명이 침착하게 수행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 그러니까, 게론다,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외부의 위험은 내면의 위험만큼 무섭지 않다는 말씀이 시군요.

—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리¹⁷² 도 그곳 출신인 필리 유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터키인들이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터키인들을 비밀 오솔길로 안내했죠. 보시다시피, 다섯 마을이 우애

¹⁷² 술리 – 에피르(그리스의 한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의 연합체로, 터키 지배 기간 동안 독립을 유지했으며 1790년부터 1893년까지 정복자들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였다. – 역자 주.

를 다지고 힘을 합쳐 알리 파샤¹⁷³를 상대해 냈는데, 그는 심지어 술탄에게까지 대항할 정도로 강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¹⁷⁴ 술리 주민들은 알리 파샤의 코앞에 있었지만, 그에게 꽤나 큰 곤경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그곳 여성들은 얼마나 용감하고 단결력이 뛰어났는지! 그들도 카빈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규율

— 게론다, 집단 내에서 무질서가 일상적인 상태라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구성원들이 규율을 지킬 수 있을까요?

—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책임자는 상황을 주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수 있고, 불을 끄는 대신 오히려 불길을 더 크게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성산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배가 바토페도스 수도원과 판토크라토르 수도원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 북동풍이 불어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선장은 배를 파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침몰했을 테니까요. 예리소스 출신의 겁쟁이 한 명,¹⁷⁵ 배나 항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그는 노새를 키우던 사람인데—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거야! 다들 못 보시나요? 저렇게 가면 카발라¹⁷⁶로 데려갈 텐데!” 그러자 모든 승객들이 벌떡 일어나 선장을 에워쌌고, 그 불쌍한 선장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만 반복했다. 다행히 승객 중 한 명이 선원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자기 일을 잘 알고 있어요! 파도를 가로지르도록 가야 해요.” 만약 그 선원이 없었다면, 승객들이 선장이 일을 제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니 배는 침몰했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겁을 먹자 공황이 일어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 배를 침몰시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¹⁷³ 알리 파샤(테펠렌리), 1714-1820 – 야니나의 유명한 파샤로, 산적 두목 벨리스의 아들이며, 술리오트족을 상대로 잔혹한 전쟁을 벌였고, 술탄과 대립하다가 1820년에 살해되었다. – 역자 주.

¹⁷⁴ 술탄 – 터키의 통치자 – 원래는 오스만 제국 지도자들의 칭호였으며, 이후 모든 무슬림 국가의 수장을 지칭하게 되었다.

¹⁷⁵ 예리소스 – 할키디키 반도 동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로, 아토스 산 북동부 해안을 따라 운항하는 여객선이 이곳을 기항지로 삼고 있다. – 번역자 주.

¹⁷⁶ 카발라 – 북부 그리스에 위치한 도시이자 항구로, 아토스 산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 – 역자 주.

경우를 대비해 항상 두 번째 기관사가 있는데, 선장이 [정말로] 배를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가 조타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원래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무오류성을 믿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으니, 결국 우리 모두는... 무오류성을 지닌 셈이 된다! 왜 터키인들이 좋은 정치를 한다고 여겨지는가? 터키인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고, 대다수는 그다지 영리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종한다. 반면 그리스인들은 압도적 다수가 매우 똑똑한 탓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통치하고 지시하고 싶어 하며, 복종하기는 힘들어한다.

이탈리아인들도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스인 열 명 중 다섯 명은 지휘관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어딘가로 가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 사람은 더 짧은 지름길을 알고, 다른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길을 알고, 세 번째 사람은 또 다른 길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아니, 이쪽으로 가자, 그게 더 낫다,”라고 한 사람이 고집을 부릴 것이다. “아니, 저쪽으로 가자,”라고 다른 사람이 반박할 것이다.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여행자들은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길을 아는 한 사람이 지휘를 한다면, 설령 그가 제안한 길이 조금 더 길다 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지휘하는 사람이 가장 짧은 길을 알고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설령 그가 아는 길이 가장 길다 해도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여행자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 만약 시간이 우리를 심각한 어려움 앞에 놓게 하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선한 마음가짐만 가지고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 어떻게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게다가 어려운 순간에,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종종 큰 용기를 발휘하곤 합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군대에 한 중위가 있었는데, 그는 결코 희생 정신도 용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반란군이 우리를 포로로 잡을 뻔했을 때, 그는 예배당 뒤에 숨어 소총 한 자루로 우리가 후퇴할 때까지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위아래, 좌

우로 연발 사격을 퍼부으며 반란군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도록 도망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 “내가 그들을 막아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한 자루의 기관총이 우리를 구했다!”라고 말했고, 그도 “한 자루의 기관총이 우리를 구했다!”라고 되풀이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도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를 알아차렸다. 누구누구가 모두와 함께 있었고, 누구누구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다 보니, 오직 그 중위만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중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반란군에게 포로로 잡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세요? 그들은 그를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우리에게 이토록 큰 피해를 입혔으니, 이리 와 봐. 우리가 펜치로 네 손톱을 하나하나 뽑아버리겠다!” 세속적인 사람인데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다니! 그는 우리 모두보다 더 큰 위험에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중위는 성부들의 저서도 읽지 않았고, 영적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저는 그와 친분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소박함과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도 있었죠: 죽은 반란자를 발견하면 그의 머리를 잘라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치 용사인 양 뽐내는 자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기가 영혼 속에서 확고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희생 정신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위험에 맞서자

항상 위기의 순간에는 기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점령 기간 동안 이탈리아인들은 노새 다섯, 여섯 마리를 데리고 우리 밭에 와서 노새에 멜론을 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멜론들은 씨앗으로 남겨둔 것이니, 차라리 저쪽 것들을 가져가세요.” 그때 한 이탈리아인이 채찍을 들어 올리며 나에게 물었다. “이거 보이냐?” 나는 손으로 채찍을 만져보고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보네!” — 즉, 좋은 채찍이구나! 마치 그가 나에게 그 채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했다! 이탈리아인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웃으며 떠났다. 내전 시절의 또 다른 일도 기억난다. 우리 군인 두 명이 호박밭에 와서 주인에게 멜론과 토마토를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그들은 소총을 한쪽에 두고, 정원 깊숙이 들어갔다. 주인은 멀리서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총을 집어 들고 그들을 겨누기 시작했다.

다. 그때 한 병사가 빨간 토마토 하나를 집어 들고 소리쳤다. “총을 버려,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수류탄을 던져버릴 거야!” 그 남자는 총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 참으로 기지가 뛰어나고 용감하군!..

— 또 다른 병사는 자신의 부르카를 야생 배나무에 걸어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서 반란군이 내려와 그 병사를 붙잡으려 했다. 그때 병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 걸려 있는 부르카 쪽을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지휘관님,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리고는 마치 지휘관에게 신호를 받은 듯, 강도에게 으르렁거리며 “무기를 내놔!”라고 외쳤다. 강도에게서 소총을 빼앗아 그를 무장 해제시켰다.

— 지휘관이, 헤론다, 그 부르카였나요?

— 그래, 부르카! 보라, 병사는 혼자였고 부르카 한 벌밖에 없었지만, 무장한 자에게서 소총을 빼앗았잖아! 그는 이런 식으로 반란군에게서 소총을 한 무더기나 모았다. 용기가 필요해! 나는 성산에 있던 한 러시아 은둔 수도사도 기억한다. 어느 날 강도들이 그를 약탈하러 왔다. 그들이 담을 넘어오려 할 때, 그는 위에서 훅 뛰어들어 소리쳤다. “자, 콜트로 한 방 먹일까, 나간으로 한 방 먹일까?!” 강패들은 발뒤꿈치만 번쩍이며 도망쳤다. 또 다른 수도사는 강도들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마치 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며: “여보세요, 강도들이 저를 습격했어요!” — 같은 식이었다. 강도들은 그가 경찰에 전화하는 줄 알고 도망쳤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덩치 큰 덩치, 그야말로 거인이 한 목동의 목을 움켜쥐고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 불쌍한 목동은 공포에 질려 눈을 뚫뚫 뜯 나머지, 그 덩치 큰 놈이 심지어 “왜 나를 그렇게 낮설게 쳐다보는 거야?”라고 묻기까지 했다. “넌 어느 나무에 던져버릴지 보고 있는 거야.” — 목동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악당은 겁에 질려 그를 놓아주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건대,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냉정함을 유지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저 어리석음 때문에 배신까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서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두 가지 용기 모두 결여되어 있다. 거룩함과 하느님을 향한 담대함에서 비롯되어 영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영적 용기도, 위험한 상황에서 겁을 먹지 않기 위해 필요한 육체적 용기도 없습니다. 어떤 큰 악을 막기 위해서는 깊은 거룩함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악을 극복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형제단 중 누군가에게 영적인 용기가 있다면, 악한 목적으로 찾아온 자를 그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 못 박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한 발은 수도원

마당에, 다른 한 발은 담장 너머에! 그는 영적으로 악의적인 자의 머리를 “썰” 것이다: 권총이 아니라 묵주로; 그가 잠시 기도하기만 해도, 악당은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초병처럼 얼어붙을 것이다!¹⁷⁷ 형제회에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을 저지하고, 사람들을 돕고, 수도원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이다. 향유를 바친 여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영적인 상태에 있었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과연 그분께 의지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과연 해냈을까?

영적 삶에서 가장 겁 많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즉 신성한 도움에 자신을 맡긴다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전선으로 나아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다 해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며 오직 자신의 야만성에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정의 또한 그 편에 서 있습니다. 저기 작은 개가 짖기만 해도 늑대는 벌써 도망치는데, 이는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집에서는 진리가 그 작은 개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심지어 늑대조차도 그 작은 개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 하물며,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분에게 악을 행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더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장 겁 많은 사람조차 용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성한 힘을 주시려면, 사람 또한 자신이 줄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제4장.

믿는 사람에게 있어 순교가 승리가 되는 이유

¹⁷⁷ 참조: *파이지스 스비아토고레스 장로*.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아스 성자.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7. 72쪽.

상황이 나아지려면, 어떤 이들은 전투에서 쓰러져야 할 것입니다

힘든 세월이네요!..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시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상태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 주소서.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애로 단결하고, 영적으로 살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마귀도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에서 억압받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곁에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 키리코를 기억하십시오?¹⁷⁸ 그는 겨우 세 살이었지만, 그를 “계몽”하려던 폭군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성인들의 행적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영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은 성인들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경외심과 희생 정신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거라면 죽는 대로 죽는 것이니, 적어도 마땅히 죽어야 할 방식으로 죽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어느 날, 한 노새 물이가 눈물을 펄펄 흘리며 내 칼리바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지 마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어요.” — “누구요?” —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섯, 여섯 명 정도요.” 그는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의 무신론자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들이 성산에 머무는 동안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들은 그를 바보로 여겼고, 그가 있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와 나에게 경고해 주었다. 저녁에 막 누웠을 때, 개 목걸이에 달린 방울 소리가 들렸다.¹⁷⁹ 창밖을 보니 세 명의 청년이 서 있었다. “이봐, — 그들이 소리쳤다. — 할아버지, 문 열어!” 내가 말했다. “애들아, 뭘 원하냐? 왜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야? 머리가 없는 거냐? 너희에게 의심이 쏠릴 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갇혔잖아. 난 너희랑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 — “그럼 우리, — 그들이 묻는다, — 내일 올까? 몇 시에 오면 되나?” — “너희는 내일 원하는 시간에 오고, 나는 가능하면 너희를 만나주지.” 그들을 쫓아냈다. 보니 손전등 불빛이 멀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조금 더 위쪽에 멈춰

¹⁷⁸ 성 순교자 키리코스의 기념일은 7월 15일이다.

¹⁷⁹ 사냥감의 경계를 늦추게 하기 위해 사냥개 목줄에 매달아 두는 작은 방울. — *역자 주*.

섰다.¹⁸⁰ 나는 일어나 옷을 입고 수도복을 걸친 뒤 그들을 기다렸다. 내 마음속은 평온했다. 다음 날 세 그룹, 각 그룹당 세 명씩 찾아왔지만, 그날 밤 온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물론 내게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게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로지 영적인 이유만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또 다른 날에는 고릴라처럼 건장한 거구의 남자가 내 칼리바에 찾아와 구석에 앉았다. 그때 나는 마침 한 무리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퍼레이드나 할 줄 알지, 전투는 못 하겠군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고난을 겪으셨고, 그분들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약 그분들이 순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모든 말이 그 방문객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는 무언가를 꾀한 듯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에게서 차가운 기운이 풍겨 나왔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들도 떠났다. “자, 어서 가자,” 내가 그에게 말했다. “벌써 어두워졌는데, 어디로 갈 생각이야?” — “그 질문은,” 그가 대답했다. “나한테는 관심 없어.” — “그건,” 내가 말했다. “나한테는 관심 있어. 가자!” 그러자 그가 나를 덮쳐 목을 움켜잡았다. “자, 어때,” 그가 속속거리며 말했다, “너, 네 신들 따위랑!” 그 “네 신들 따위”라는 말이 마치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내가 도대체 우상 숭배자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신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말했다. “무신론자야? 나는 삼위 일체 안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 어서 여기서 꺼져!” 내가 그를 밀치자, 그는 땅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다. 그가 어떻게 문 밖으로 나갔는지는 나도 알지 못했다. “만약 나를 발이 위로 향하게 매달아 놓는다면,”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탈장¹⁸¹ 이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그 무신론자는 끝까지 남아 있었고, 내 목을 그렇게 꼭 움켜쥐고 조르기 시작했으니, 분명 나를 처리하려 했던 모양이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갓출 수 있도록 신성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려운

¹⁸⁰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탄생 수도원 “파나구다”는, 복자 파이시이 노인이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보낸 곳으로, 한적한 숲속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그 주변에는 다른 수도원이나 주거지가 전혀 없다. — *변역자 주*.

¹⁸¹ 이 사건은 1987년, 그 노인이 탈장으로 고생하던 시절에 일어났다.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딘가에서 압둘 파샤¹⁸²가 성산에서 500명의 청년들을 데려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일부는 수련생이었고, 다른 이들은 터키인들로부터 피신하기 위해 성산에 숨어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리스 봉기 시절에 청년들은 터키인들이 젊은이들을 잡아 야니차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산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¹⁸³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압둘 파샤는 우라누폴리스의 탑에서 그들을 교수형에 처했다. 그가 성산에서 붙잡아 간 수많은 젊은이들 중, 고작 다섯 명만이 순교를 택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니체르가 되었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자존심이 있다면, 그에게는 신성한 힘이 없다. 그런 사람이 이처럼 몹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총대주교청 소속 한 주교의 이야기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쪽에서는 에큐메니즘이 밀려오고, 다른 쪽에서는 시오니즘과 사탄주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두 머리의 독수리 대신 두 뿔을 가진 악마에게 경의를 표하게 될 텐데요!” — “오늘날,” 그가 내게 대답했다. “케사리아의 주교 파이시 2세와 같은 주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¹⁸⁴ 파이지 2세는 무엇을 했을까? 그가 술탄에게 청원을 하러 갈 때면 밧줄을 허리에 두르곤 했는데, 이는 터키인들이 자신을 교수형에 처할 것임을 미리 각오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마치 술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밧줄을 찾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를 교수형에 처하고 싶다면, 밧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까다로운 사안을 가지고 술탄에게 파견되었고,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총대주교청을 구해내곤 했다. 그가 늙어서 다시 술탄에게 가야 할 때면, 말 안장에 서로 묶인 두 개의 큰 바구니를 걸쳐 놓았다. 한 바구니에는 무언가를 싣고, 다른 바구니에는 그를 태운 채, 그는 그렇게

¹⁸² 메흐메트 에민 압둘라흐 파샤는 1821년부터 1823년까지 살로니카를 통치했다.

¹⁸³ 야니차르 – 오스만 제국의 징병 부대로, 대개 터키가 정복한 기독교 민족의 청년들이 선발되었다.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거친 야니차르들은 극도의 광신과 잔혹함으로 유명했다. – *번역자 주*.

¹⁸⁴ 파이시 2세 – 케사리아 대주교. 카파도키아의 파라시 마을에서 태어났다. 플라비아노스 수도원의 ‘성 요한 세례자’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집사와 사제로 서품받았다. 1832년에 케사리아 대주교로 서품되었다. 자신의 교구에서 헬레니즘을 보존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투쟁했다.

콘스탄티노플로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터키인들은 그리스인들을 터키 군대에 징집하라는 칙령¹⁸⁵ 을 내렸다. 기독교인들에게 터키인들과 함께 복무하는 것은 어려웠는데, 그들이 필요한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도 그보다 얼마 전, 터키 측에 그리스인들이 기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총대주교는 파이지아 대주교를 초청하여 술탄에게 보냈다. 밧줄로 허리를 묶은 대주교는 다시 술탄 앞에 섰다. 술탄은 그에게 말했다. “그리스인들은 조국을 위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 “네,” 파이시우스 주교가 대답했다. “저도 그리스인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땅은 예로부터 그리스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신앙이 있으므로, 별도의 그리스군 부대가 별도의 군사 캠프에 주둔하며, 자체 장교 등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라마단을 지키고 계시니¹⁸⁶, 우리는 주현절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 “기독교인들에게 무기를 주다니? — 술탄은 생각했다. — 위험하겠군!” “아니요, 아니요, — 그가 대주교에게 대답했다. — 차라리 그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또 다른 때 아르메니아인들은 술탄에게 발루클리를 넘겨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¹⁸⁷ 호의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그 후 이 문제를 술탄과 논의하기 위해 파이지 대주교가 찾아갔다. “발루클리는,” 술탄이 그에게 말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가져가야 한다. 그곳은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이다.” — “네,” 파이시이가 대답했다. “그들이 그곳을 가져가야 합니다. 어떤 곳이 우리 조상들의 유산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루클리 양도 문서를 제게 주시면, 저도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총대주교청의 대표로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서에 서명한 뒤, 황금 콘스탄티노스 두카트¹⁸⁸ 를 꺼내며 말했다. “자, 아르메니아인들이 발루클리를 가져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성 소피아 대성당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리 조상들의 것이었으니, 당신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술탄에게 성 콘스탄티노스가 새겨진 황금 동전을 보여

¹⁸⁵ 피르만 – 술탄의 칙령. – 역자 주.

¹⁸⁶ 라마단 – 이슬람 달력에서 아홉 번째 달로,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격한 금식(음식, 음료, 흡연 등을 완전히 삼가는 것)을 지킨다.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는 라마단의 금지가 해제된다.

¹⁸⁷ 발루클리 – 콘스탄티노플에 위치한 “생명의 샘” 수도원이 있는 지역. – 역자 주.

¹⁸⁸ 성 콘스탄티노스와 헬레나의 모습이 새겨진 금화로서, 장신구나 부적으로 착용했다.

주었다. 술탄과의 면담에 대주교는 당시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러시아 장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데려갔다. 이로 인해 술탄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발루클리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철회했다. “아니, 아니요,” 술탄이 그에게 말했다. “발루클리는 여러분에게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거나, 그리스인들에게 성 소피아 성당을 넘겨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보시라, 어떻게 된 일인가? 파이지 대주교는 터키인들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신앙에서 벗어난 것은 순교로 씻겨 나간다

오늘날 대다수는 뱀을 구멍에서 꺼내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직접 꺼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세요! 거기에 뱀이 있지 않나요?”라고 경고라도 해서 그들이 경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의 합리주의로 인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겠지만, 속으로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되어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시대에 교회는 우상 제단의 불에 향을 던진 사람들에게 성찬을 주지 않았으며, 그런 사람들은 ‘울부짖는 자들’의 계급에 속했다.¹⁸⁹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들은 순교를 통해 자신의 배교를 씻어내야만 했다. 그리고 성상파괴 운동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성상을 불태우거나 땅에 던지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성상을 던지지 않고 차라리 순교자가 되는 것을 택했다. 그런데 우리라면, 누군가 성화를 던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좋아, 던져버리겠어. 이건 르네상스 양식으로 그려진 거니까. 나중에 비잔틴 양식의 다른 성화를 주문하면 되겠지.”

— 게론다, 교회는 은밀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나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나요?

— 진정한 은밀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인들이 카파도키아에 있는 파라스족 소속 마을 27곳을 불태웠을 때, 일부 주민들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는데, 그곳 주민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무슬림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기독교인이냐?”라고 직접 물어보아 “네, 저는

¹⁸⁹ “울부짖는 자들”은 성당 문 앞에 서서 성당에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다. 성 그레고리 네오케사리아의 제12규칙 참조. 『규칙서』.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294쪽. - *번역자 주*.

기독교인입니다” 또는 “아니요, 저는 무슬림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밀한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붙잡혀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즉, 그는 절대로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고대 교회 시대에도 비밀리에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면 이 비밀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예를 들어, 성 세바스티안은 군대 지휘관이었으며 비밀리에 기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우상 숭배자로 여겼지만,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터키의 한 마을에는 많은 비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촌장은 사제였다. 그의 이름은 게오르기 신부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하산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터키인들이 그에게 찾아와 특정 장소인 카타콤바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다고 고발했다.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 카타콤으로 갔고, 그곳에서 모두 한데 모인 기독교인들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는 성문 쪽으로 가서 갈고리에 걸려 있던 에피트라킬을 풀어 입고, 그들에게 저녁 예배를 집전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그는 그들에게 말한 뒤, 터키인들에게는 이렇게 안심시켰다. — “거기 아무도 없으니, 그건 거짓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네가 세례를 받는 것을 봤다! 넌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아니요, 저는 무슬림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는 배교자가 됩니다.

순교와 겸손

순교자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은 깊은 겸손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순교를 맞이한다면, 은총은 그를 떠날 것이다. 사프리카우스¹⁹⁰)를 기억하는가? 그는 이미 처형장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다.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 그가 사형 집행자들에게 물었다. “왜요?” —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까?” — “아니요.” — 그가 대답했다. 게다가 그는 사제였는데! 내 생각에 그는 겸손하게가 아니

¹⁹⁰ 사프리카아에 대해서는 『성인전』 제6권, 모스크바, 1905, 180–185쪽을 참조하라.

라 이기적으로 순교를 맞이한 것 같다. 그는 믿음 때문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도 아닌, 순교 자체를 추구했고, 그 때문에 은총이 그를 떠났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우리는 종종 시련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선한 마음과 겸손함을 보신다면, 그분께서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지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 게론다, 당신은 사람이 겸손과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면서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 겸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적어도 순교에 대해서는 사람이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약간의 힘을 주셔서, 제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제 죄를 속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순교를 맞이한다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자만심에 차서, ‘내가 순교자가 될 것이며, 내 생애가 기록되고, 미사가 봉헌되며, 후광을 두른 성화가 그려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순교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청했다. “신부님, 제가 다섯 번째 하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좋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도달했는데,¹⁹¹ 당신은 다섯 번째 하늘에 도달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 “글쎄요, — 그가 대답했다. — 우리가 ‘*더 큰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¹⁹²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 그런 경우라면, 사람이 낙원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순교를 택한다면, 차라리 순교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설령 천국에서 다시 고통받고 괴로워할 것을 안다 해도,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견뎌낸다면, 저 하늘에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속물적인 계산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순교가 있더라도, 매일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매

¹⁹¹ 고린도후서 12, 2 참조.

¹⁹² 고린도전서 12, 31 참조.

일,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맞더라도 —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 헤론다, 사람이 나태하게 살다가도 필요할 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그의 마음속에 선함과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귀함과 희생 정신을 스스로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성 보니파티우스와 성 아글라이드를 기억하십니까? 로마에서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식사할 때면 그들의 마음은 가난한 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먼저 굶주린 이들을 먹이느라 서둘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먹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선함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아글라이다는 죄 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순교자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성유해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보니파티오에게 집안의 다른 하인들과 함께 소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자들의 성유해를 사들여 모아 로마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훗날 순교자가 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유해를 가져온다면, 받아줄 것인가?” —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 아글라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성 보니파티우스는 타르스에 도착하여 순교자들의 유해를 되찾고자 원형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의 고문을 지켜보던 그는 그들의 곳곳한 인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에게 달려가 묶인 밧줄과 상처를 입맞추며, 보니파티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했다. 그리하여 그는 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고, 그의 동료들은 그의 유해를 사들여 로마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주님의 천사가 아글라이드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보니파티우스가 로마를 떠나기 전 농담 삼아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 아글라이다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뒤, 15년 동안 고행과 궁핍 속에서 살며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¹⁹³ 보시다시피, 그들의 삶은 처음에 정욕에 휩쓸려 바른 길에서 벗어났지만, 그들 안에는 희생의 정신이 있었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¹⁹³ 성 보니파티우스와 아글라이다의 기념일은 12월 19일이다.

성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는지

— 게론다, 제가 성녀 카타리나의 고문용 바퀴를 봤다면, 공포에 질려 죽었을 것 같아요!

— 만약 네가 바퀴에 얹히기 전에 죽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을 것이다. 고통은, 만약 네가 바퀴에 얹히기 시작했는데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비로소 찾아왔을 것이다. 순교자들은 선한 마음을 지녔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우셨기에 그들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성인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과 용기를 가졌는지! 성 솔로모니아는 일곱 자녀와 함께¹⁹⁴ — 하나하나 차례로 모두 고문당해 죽임을 당했다. 성 롱긴¹⁹⁵ 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다. 온 자들은 롱긴을 보여 달라고 재촉하며 그의 목을 베라고 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내가 그를 보여 주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롱긴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망설였지만, 성인은 그들에게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성 게데온 카라칼스키의 인내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¹⁹⁶ “손을 잘라라,” 그가 사형 집행자들에게 말했다. “다리도 잘라라, 코도 잘라라! 말이 길어지지 않게, 전부 잘라버려라!” 놀랍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이 불꽃의 타는 듯한 열기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고통보다 얼마나 더 강해야 할까요!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성자에게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고통을 능가하며 그 고통을 무력화시킵니다. 순교자들에게 사형 집행인의 칼은 바이올린 활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타오를 때, 순교는 승리가 된다: 그 순간 불길은 목욕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그 타는 듯한 열기가 신성한 사랑의 불꽃 속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죽이 벗겨지는 것도 마치 애무처럼 느껴진다. 신성한 사랑이 마음을 사로잡고, 머리를 사로잡아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된다: 그는 고통도,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가슴이 기쁨으로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리

¹⁹⁴ 성 마카베오 순교자들의 기념일은 8월 1일이다.

¹⁹⁵ 성 순교자 롱기노 백부장의 기념일은 10월 16일이다.

¹⁹⁶ 성 게데온 스바토고르츠의 기념일은 12월 30일입니다.

고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순교를 향해 나아가며, 마치 축제에 가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렸는가! 성 이그나티우스¹⁹⁷는 순교 장소로 달려가며 외쳤다. “저에게 고난을 겪게 하소서, 저를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하소서!” 그가 느꼈던 그런 기쁨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랑에 빠진 청년조차도 경험하지 못한다.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연인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 이그나티우스의 “광기”는 사랑에 빠진 청년의 광기보다 더 컸습니다.

모든 성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성스러운 순교자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경건한 성부들은 땀과 눈물을 흘렸고, 마치 약초에 정통한 현자처럼 자신들을 대상으로 영적 실험을 행했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영적 처방을 남기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악을 예방하거나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 그들의 위업을 본받으려 노력한다면, 심지어 성스러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성인들의 위업과 금식, 밤샘 기도 등, 심지어 모든 성 순교자들의 고통조차도 우리 주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위해 고통받은 모든 이에게 신성한 도움을 주셨고, 그들 각자의 고통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달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신성한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피조물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 감수성이 있는 육신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람[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이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을 느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보다도 더 무감각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통을 느끼자, 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땅도 이를 보고 경악하였고, 돌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덤들도 너무나 심하게 흔들려, 오래전에 죽은 많은 이들을 잠에서 깨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인이자 구원자이신 하느님께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도사와 순교

— 게론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수련을 소홀히 한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충분하여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시련이 닥쳤을

¹⁹⁷ 성 이그나티우스 신성운반자의 기념일은 12월 20일입니다.

때, 준비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것일까요? — 준비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곡식에 풍성한 수확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씨를 뿌려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뿌린 대로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준비하라!”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 게론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사람이 무언가에 대비했다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군대가 전투 준비 태세에 있다면, 병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화를 신고, 소총과 탄약을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죠.

— 그 전투 준비 상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나요?

— 제각각입니다. 수도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입니까? 하지만 죽음은 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무덤 비석 아래에는 영원의 열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도사는 언제 죽든 회개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속을 떠난 그의 삶과 수도복이 이를 증명합니다. 수도사는 회개하고 나서 미묘한 영적 수행으로 넘어갑니다. 수도사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실현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¹⁹⁸

세속적인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의 그리스도여,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반면 수도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중 많은 이는 영원한 고통에 빠질까 두려워 선행을 합니다. 반면 수도사는 자신의 은인이신 하느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선행을 합니다.

— 게론다, 순교와 수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 순교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경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금욕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고 싶다면,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금식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분을 배반당한 수요일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금요일만큼은 금식하십시오.¹⁹⁹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언하고자 하는 이들은, 순교할 기회가 없을 때 자신들을 불태우는 그 사

¹⁹⁸ 로마서 8장 35절 참조.

¹⁹⁹ 장로는 하루 종일 음식과 물을 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랑을, 죽은 자들의 타오르는 영혼을 위해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그들이 조금이나마 안식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수행은 순교와 마찬가지로 승리의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사람은 모든 인간적인 위로를 피하고 신성한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순교자들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영적 삶에서 순교로부터 금욕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일부는 신체가 훼손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고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이들은 크게 상심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순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성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기다렸으나, 결국 얻은 것은 자유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밀리안이 그들에게 가했을 그 고문들을, 그들은 수도 생활 속에서 스스로에게 가했다. 한 사람은 나무에 밧줄로 양손을 매달고 걸어갔다. 그는 고통 속에서 기도했지만, 신성한 기쁨을 느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묶었다. “그래, — 그가 말하곤 했다. —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를 이렇게 묶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고문하며, 그들은 큰 기쁨을 느꼈다. 이 신성한 광기, 이 신성한 기이함에서 첫 번째 이들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을 고행에 바쳤다. 그 후 다른 이들도 그들의 위업을 본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신앙에 금욕주의가 들어왔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미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다!”라고 말하며 땅에서 자라는 풀만 먹고 살았다. 이들은 이른바 ‘보스키’들이었다.²⁰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하찮음을 너무나 깊이 느꼈기에 “나, 이 배은망덕한 짐승은 평생 풀만 먹고 살겠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솟아올랐다. “내가, — 그들이 말하곤 했다, —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풀

²⁰⁰ 보스키(그리스어) — 문자 그대로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자들’을 뜻한다. 아르히만드리트 헤루비무스(카람벨라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산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산에서 가장 거룩한 수도사들이며,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완전히 은둔하며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전승에 따르면, 지상에서 거행될 마지막 성찬식은 이 보이지 않는 열두 명에 의해 집전될 것이다. 그들의 수는 항상 일정하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명이 죽으면, 성산의 가장 뛰어난 수도사 중 한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헤루비무스(카람벨라스), 대수도원장. 『성모 마리아의 유산』. 키예프, 1998. 164쪽.) — *번역자 주*.

만 먹고 살겠다.”²⁰¹ 그러나 나중에 교회에서 이를 금지했는데, 사냥꾼들이 이 은둔자들을 야생 동물로 착각하여 그들 중 많은 이를 죽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광기라고 여깁니다. “왜 동물처럼 풀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 그런 식으로 밧줄에 매달려 몸을 고문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아바 이삭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자격을 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²⁰² 에게도 이 영적인 무모함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부.

하늘에 대한 의존

“신성한 도움은 사람도, 악마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도, 성자에게도 어려운 일은 없다. 유일한 장애물은 오직 우리 인간의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 위대한 신성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제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신다는 사실

²⁰¹ 참조: 소조메노스, PG 67, 1395 및 이후, 에우아그리오스 PG 86, 2480, 모스코스 PG 87, 2868B 및 레온티오스 93, 1688.

²⁰² *아바 이삭 시리아인*. 저작집. 세르기예프 포사드, 1911. 설교 73. 370쪽.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²⁰³

— 헤론다, 아바 마카리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²⁰⁴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복도 주실 것이라고도 믿어야 합니까?

— 어떤 세상의 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 그 말은 맞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형상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십니다.

— 이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나요?

— 만약 사람이 이를 믿지 않고 스스로 그 복을 얻기 위해 애쓴다면, 그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염원이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운명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그것은 썩기 시작했습니다.²⁰⁵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마련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조차 우리는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믿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내가 시나이 산으로 가서 살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광야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머물게 될 성 에피스티미오스의 독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사람들이 떠난 상태였다. 나는 수도원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빵을 가져다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신경을 써야

²⁰³ 마태복음 6, 33.

²⁰⁴ 참조: 성 마카리오스 이집트인. 『영적 대화』. STSL, 1904.

²⁰⁵ 참조: 출애굽기 16, 19-20.

했겠는가? 물조차도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 나는 손재주가 전혀 없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계를 꾸렸는지 물어보라. 내가 가진 유일한 도구는 가위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가위를 두 조각으로 나누고, 돌에 갈아 날을 세운 뒤, 작은 나무 판자를 가져와 성화를 오려내기 시작했다. 일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금세 조각 기술을 익혀, 줄곧 똑같은 그림을 새기며 5일 치 일을 11시간 만에 끝냈다. 궁핍함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두인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한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일에 몰두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수공예를 하고 싶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시에 베두인 아이들이 얼마나 궁핍한지 지켜보게 되었다. 그들에게 모자와 샌들 한 켤레를 선물로 받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베두인족을 돕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일까, 아니면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온 것일까?” 그래서 수공예 시간을 줄여 산만해지는 것을 줄이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기를 기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누가요? 베두인족들 스스로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수도원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반대편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수공예 작업을 줄였을 때, 한 사람이 내게 찾아왔다. 나는 그때 방 근처에 있었는데, 그가 나를 보고는 말했다. “자, 이 백 금화를 받아라. 베두인 아이들도 돕고, 네 일과도 지키고, 기도도 하라.” 나는 참지 못하고, 15분 동안 그를 혼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이 나를 그런 상태로 이끌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보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불쌍한 이들에게 아무리 많이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와서 “신부님께서 저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사람이 “신부님께서 저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라고 하더군요.

— 헤론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 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마귀의 함정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느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눈에 재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느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며, 찬양으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귀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쓴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 양식을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물고기가 수정된 순간부터—아직 핀 머리만큼이나 아주 작을 때부터—액체가 든 주머니가 있는데, 물고기는 자라서 스스로 물속 미생물을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액체를 먹고 산다고 말해 주었다. 즉, 물고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조 식량”을 받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조차 돌보신다면, 하물며 인간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나에게는,”라고 말하죠, “아이가 둘이면 [충분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차에 치이고, 다른 아이는 병에 걸려 죽어버리면, 부모는 자녀가 없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인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을 부양하기 어려울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겸손히 위대한 창조주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스톰이온 수도원에 있을 때, 저는 자녀가 많은 한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피르의 한 마을에서 들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도보로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코니체에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홉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 마을로 가는 길은 수도원을 지나야 했다. 예배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경비원은 수도원에 들르곤 했다. 돌아오는 길에 들를 때면, 그는 나에게 직접 램파드를 켜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하곤 했다. 램파드를 켜면서 기름을 바닥에 흘리곤 했지만, 나는 그를 실망시키기보다는 나중에 바닥을 닦는 편을 택하며 허락해 주었다. . 매번 수도원을 나와 300미터 정도 걸어가면, 그는 자신의 총으로 한 발을 쏘곤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던 나는 다음 번에 그가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니츠키 도로로 나올 때까지 그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가 먼저 성당 안에서 램프를 켜 다음, 나르텍스²⁰⁶로 나가 입구 위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화 앞의 램프를 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손가락에 등유 램프의 기름을 묻히고,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을 성화상 쪽으로 뻗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성모님, 저에게는 아홉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손가락에 묻은 기름으로 총열의 조준점을 문지르고는 떠났다. 수도원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 한 뽕나무 근처에서 야

²⁰⁶ 나르텍스 – 성전의 서쪽 부분, 현관. – 역자 주.

생 염소 한 마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총을 쏘아 염소를 죽인 뒤, 조금 더 멀리 있는 동굴로 가져가 거기서 내장을 제거한 후 아이들에게 고기를 가져다주곤 했다. 이는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반복되던 일이었다. 나는 그 들판 파수꾼의 믿음과 성모 마리아의 섭리에 감탄했다. 25년이 지난 후, 그는 성산에 와서 나를 찾아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무심코 그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어디에 있나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먼저 손을 북쪽을 가리키며 “한 명은 독일에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손을 남쪽을 향해 뻗으며 “다른 한 명은 호주에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두 건강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불경한 이념으로부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냈기에, 하느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적 같은 신의 섭리의 축복

— 가끔, 게론다, 제게 어떤 소망이 생기면, 제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보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 그것을 주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필라레트 장로²⁰⁷ 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게론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제가 필요한 것은 성모님께서 보내 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선하신 청지기로서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물질적 필요의 세부 사항까지도 세심하게 챙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보살핌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히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니, 먼저 당신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자신은 신뢰하며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에게 자신만의 집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거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스스로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돔 아래 숨겨져 있으며, 그분의 신성

²⁰⁷ 참조: *파이지이 장로*. 『성산 수도사들과 성산의 이야기』.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2001. 62–65쪽.

한 섭리로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끝없는 신비로운 기도이며, 필요한 순간에 신성한 힘을 필요한 곳으로 소리 없이 이끌어 온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끝없이, 깊은 감사를 담아 그분을 찬양한다. 티혼 신부님이 ‘성스러운 십자가’ 칼리베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가 필요로 하던 성당이 없었다. 성당을 짓기 위한 돈조차 없었지만, 오직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기도를 드린 후 그는 하느님께서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카리에스로 향했다. 카리에스로 가는 길에 멀리서 일린스키 스키타의 원장님이 그를 불러 세웠다. 티혼 신부가 그에게 다가가자, 원장은 말했다. “미국에 사는 한 선한 기독교인이 이 달러를 보내며, 성당이 없는 어떤 수행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침 성당이 없으니, 이 돈을 받아서 성당을 지으세요.” 티혼 신부는 감동과, 티혼 신부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성당을 마련해 주신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눈물을 흘렸다. 그가 이 일에 대해 기도했을 때,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일 10시에 네게 무언가가 필요해진다면 (그 필요성이 합리적인 한도를 넘지 않고 그 물건이 정말로 필수적인 경우라면) 10시 15분 전이나 10시 반쯤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게 주기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9시에 머그잔이 필요하다면, 9시 5분 전에는 이미 네 곁에 있을 것이다. 500드라크마가 필요하다면, 그 돈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500드라크마가 나타나며, 510드라크마도 아니고 490드라크마도 아니다. 나는 예를 들어 내일 무언가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그 일을 챙겨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셨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으며,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내가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어딘가에서 내게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보면서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온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에 대한 예들을 몇 시간이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쟁에 참전해 전투 작전에 참여했을 때, 제게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아, 만약 제게 성경이 있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크

리스마스에 당시 산속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부대로 메솔롱기에서 200개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²⁰⁸ 200개의 소포 중에서 복음서는 오직 제게 온 소포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도가 들어 있는 구판 복음서였습니다. 소포 안에는 “다른 책이 필요하면 편지를 보내면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쪽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제가 이미 스토미온 수도원에 있을 때, 성당에 사용할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코니차로 내려갔습니다. 한 집을 지나가던 중, 한 소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수도사가 오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마중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모님께 등불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직접 사세요.” 그리고 그는 1958년 당시 등불 값과 정확히 같은 500드라크마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게 어떤 필요가 생기면, 하느님께서 즉시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예를 들어, 장작을 썰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면, 순식간에 장작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기 직전에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안에는 5만 드라크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죠. 또 다른 예로, 제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뜻으로 “도스티노 예스트” 성화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 제게 “이베르스카야” 성화를 가져다주더군요! 그리고 올여름,²⁰⁹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제게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조금 내려서 하루에 [기껏해야] 물통 한 개 반 정도를 채웁니다. 저수조에는 작년에 남은 물이 있지만, 이미 상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로 잘 마련해 주십니다! 제게는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는데, 땀을 흘린 채 오는데도 물 수위는 고작 네다섯 손가락 정도만 내려갈 뿐입니다! 150~200명이 쓰는 통 하나인데도 비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잠그는 것을 깜빡하기도 해서 물이 흘러나오지만, 그래도 물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신성한 섭리에 자신을 맡기기

하나님의 은혜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은 신성한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는 마치 요람 속의 아기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어머니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울음을 터뜨리고 어머니

²⁰⁸ 그리스 중부에 위치한 도시. - *번역자 주*.

²⁰⁹ 1990년 여름에 발표됨.

가 다시 달려와 줄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스토미온 수도원에 막 들어왔을 때, 살 곳이 없었습니다. 수도원 전체가 건축 잔해로 뒤덮여 있었죠. 울타리 근처에서 한 구석을 찾아 위에서 살짝 덮어두고, 밤에는 그곳에 앉아서 지냈습니다. 누우면 그곳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는 수도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봐,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 거야?” — “뭐, — 제가 대답하며 물었습니다. — 세속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처지였나요? 카나리스²¹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조국은 우리가 되찾을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속인조차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당신의 수도원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조금씩이나마,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잘 마련해 주셨는지! 기억나는 것은, 장인들이 불에 탄 수도실의 천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할 때 시멘트가 바닥나기 시작했던 일입니다. 바닥의 3분의 1을 더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시다. 장인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멘트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곳을 콘크리트로 채우려면 모래를 더 많이 넣고 시멘트는 조금 덜 넣어야 합니다.” — “아니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희석하지 말고, 시작했던 대로 계속하세요.” 시멘트를 더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노새들이 들판에 있었기 때문이죠. 장인들은 코니차까지 두 시간을 걸어가야 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두 시간을 더 걸어 들판에 있는 목초지에서 노새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지... 게다가 사람들은 각자 할 일도 있어서, 다른 날에 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보니 바닥의 3분의 2가 이미 타설되어 있었다. 나는 작은 성당에 들어가 말했다. “나의 성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디 저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나는 성당에서 나왔다...

—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게론다?

— 천장 공사를 다 마쳤는데, 시멘트가 남았어요!

— 장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나요?

²¹⁰ 카나리스 콘스탄티노스 (약 1795-1877). 엘라다의 국민적 영웅이자 전설적인 선원이며, 그리스 혁명(1821-1830) 당시 터키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운 투사였다. 1822년 6월 7일, K. 카나리스가 이끄는 용감한 용사들로 구성된 일행이 어선을 타고 히오스 섬 인근에서 터키 함대를 대담하게 기습 공격하여, 그 결과 터키 함대의 기함이 격침되고 터키 제독 카라 알리가 전사했다. 이후 K. 카나리스는 제독, 해군 장관, 그리스 총리를 역임했다. — *역자 주*

—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 게론다,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온갖 장애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그 일에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끝나지 않았거나 완료가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은 급한 일이 있어 서둘러 스토미온 수도원에서 코니차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의 험한 구간 중 한 곳(저는 그곳을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에서, 짐을 실은 노새 세 마리를 데리고 있는 수도원의 지인인 아나스타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짐 안장이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한 마리의 노새가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듯했습니다. “신께서 신부님을 보내주셨군요!” — 아나스타시 아저씨가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그가 노새들의 짐을 다시 싣도록 도와준 뒤, 함께 노새들을 길로 데리고 나왔다. 그곳에서 그를 떠나보내고 나는 다시 길을 이어갔다. 꽤 먼 거리를 걸었을 무렵, 오솔길이 잔해 더미에 막혀 버렸다. 방금 300미터 길이의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해 오솔길을 덮어버린 참이었다. 나무와 돌 등 모든 것이 아래쪽 강으로 쓸려 내려갔다. 만약 내가 노새들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면, 바로 산사태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아나스타시 아저씨,” 내가 말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 각자의 행실을 지켜보시며, 언제 어떻게 우리 유익을 위해 직접 개입하실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을 털어놓으며, 모든 일을 그분께서 직접 처리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폰 산의 필로페예프 수도원에 있을 때, 사막으로 떠나고 싶었다. 나는 외딴 무인도로 은둔하려 했고, 이미 뱃사공과 내가 떠날 때 데리러 오기로 약속까지 했으나, 결국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황량한 섬에서 큰 해를 입을 뻔했고, 그곳에서 악령들의 희생양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 후, 섬으로 가는 일이 무산되자 저는 카투나키로 가고 싶은 열망에 불타올랐습니다. 카투나키 사막이 제 마음에 쏙 들었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높은 영적 삶을 살았던 장로 페트로 옆에서 정착하여 수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카투나키가 아니라 코니차로 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저녁 기

도 후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늦게까지 기도했다. 11시쯤 되어 누워 휴식을 취했다. 새벽 2시 반, 수도원 종소리가 울려 형제들을 자정 기도회에 불러 모았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묶어 놓았고, 나는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오가 될 때까지 나는 침대에 묶인 채로 있었다.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한쪽에는 카투나키가, 다른 쪽에는 코니체에 있는 스토미온 수도원이 보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카투나키 쪽을 응시하자, 그때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너는 카투나키로 가지 말고 스토미온 수도원으로 갈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목소리였다. “하느님의 어머니, — 내가 말했다. — 저는 당신께 사막을 청했는데, 당신은 저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엄숙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즉시 그 보이지 않는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내 마음은 신성한 은총으로 가득 찼다. 그 후 나는 가서 영적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영적 지도자가 내게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건강상의 이유로(당시 나는 출혈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떠나거라.”

나는 한 가지를 원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느님의 뜻이 내가 코니체에 있는 수도원을 재건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전쟁 중이었을 때 성모님께 드렸던 서원도 이행하게 되었다. “성모님,” 그때 내가 그분께 간청했다. “제가 수도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일하며 불에 탄 성모님의 수도원을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졌듯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주된 이유는, 개신교로 타락한 87가구가 정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종종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단 하나의 선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선을 함께 행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로부터 많은 선이 생겨나지 않는 한, 결코 악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 즉 실수와 위험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선과 악은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둘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사적인 이익이 끼어들어 그것들을 뒤섞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유익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이 나올 수 있는 일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소한 유혹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평신도가 어느 성산에 있는 수도원의 주보성인 축일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술을 마시고 취해 버렸다. 수도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에서 넘어졌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눈더미에 파묻혔지만, 술기운 덕분에 눈더미 위에 구멍이 생겼다. 한 행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눈속에 난 구멍을 보고 그는 놀라며 “이게 대체 뭐지? 샘물인가?”라고 말하며 막대기로 구멍을 찔렀다. “아악!” 하고 취한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 것을 막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틈을 뚫어줍니다

— 게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비록 조금이라도 사랑이 담긴 행실로 드러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적 삶에는 이두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수련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기 계획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나’에 얼마나 집착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뒤쳐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번영하지 못합니다.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지만, 우리는 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보며 감동받고, 마음이 녹아내리며, 황홀해집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그런 사람은 가슴이 아프고, 영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묵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영혼을 하늘 높이 치솟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자신의 수많은 죄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묵상한다면 얼마나 더할까요! 사람의 영혼의 눈이 맑아지면, 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며, 예민하게 드러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며, 감사의 마음에 녹아내리고, 좋은 의미에서 ‘미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이 느낄 때, 그것은 마음속에 틈을 내고 마음을 찢어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 정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손이 그 틈에 닿을 때, 사람은 내면적으로 치솟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감사는 더욱 커진다. 자신의 죄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깨닫고, 그분의 크신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이들은 더 큰 확신과 더 적은 육체적 수고로 자신의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작은 일과 큰 일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어떤 결핍도 겪지 않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니라 돈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돈에 희망을 두는 한,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축을 해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되며,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악마처럼 자신의 일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선하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주인이 되시게 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시나이 산, 제가 살던 성 에피스티미아의 수도실에는 물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실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한 동굴에서 바위 틈새로 물이 한 방울씩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물받이를 만들어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모았습니다. 물을 길으러 갈 때면 철제 통을 대고, 물이 채워지는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아카피스트를 읽곤 했습니다. 머리, 특히 이마만 살짝 적셨는데, 이는 한 의사가 조언해 준 대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마실 물을 조금 떠내고, 제 수도실 근처에 사는 쥐와 새들을 위해 별도의 작은 병에 물을 조금 담아 두었습니다. 세탁이나 그 밖의 용도로는 동굴에서 나온 바로 그 물을 사용했다. 내가 가진 그 적은 물 한 모금에 대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는지! 나는 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 후, 내가 성산에 도착해 이베르스키 스키투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곳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물탱크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넘쳐흐를 정도였다. 우와! 나는 머리도 씻고 발도 씻었지만... 예전의 일은 잊혀져 버렸다. 시나이에서는 적은 물에 대한 감사함으로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이곳 스키투에서는 물이 넘쳐나자 나는 건망증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그 방을 떠나 80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저수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살았다. 과연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서 얼마나 쉽게 길을 잃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

우리는 온전히, 조건 없이 신성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한 수도사가 저녁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가는 길에 그는 흰 버섯을 발견하고 이 드문 발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 버섯을 따서 저녁 식사로 요리하려고 했다. “만약 평신도들이 나에게 고기를 먹느냐고 묻는다면,” 수도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매년 가을마다 먹는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칼리바로 돌아오던 중, 수도사는 저녁 기도를 드리는 동안 어떤 동물이 버섯을 밟아 버려 온전한 것은 절반만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 “보아하니,” 수도사가 말했다. “내가 먹을 분량은 이 정도면 되는 모양이군.” 그는 남은 부분을 주워 모은 뒤, 하나님의 섭리와 버섯 반 개를 주신 것에 감사드렸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또 반 개 분량의 버섯을 발견하고, 저녁 식사에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 꺾으려고 몸을 굽혔지만, 그 버섯이 썩어 있었다(아마도 독버섯이었을 것이다). 수도사는 그 버섯을 그대로 두고,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칼리바로 돌아온 수도사는 버섯 반 개로 저녁을 먹었다. 다음 날, 그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그의 눈앞에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칼리바 주변 곳곳에 아름다운 버섯들이 자라나 있었고, 이를 본 수도사는 다시금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보시다시피, 그는 온전한 버섯 하나와 반쪽,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와 많은 것 모두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며, 그분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위해 이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바치도록 하셨으며, 동물과 새, 작은 것과 큰 것, 심지어 식물까지 모두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모든 것에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의 큰 배은망덕함과 무감각함으로 그분을 상처 입히지 말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제2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 게론다, 제 마음에 드는 불신의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 네가 낙심하고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각들이 악한 자에게서 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와 열정을 보시기 위해 의심이나 불신의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우스, 아폴로, 그와 유사한 신들에 대한 신화와 같은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성도들의 구름”이 있습니다.²¹¹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했으며, 그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천상의 경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 성도들, 심지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도 교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피를 바친다” —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아온 지식이 그 안에서 믿음을 밀어내는 것을 보며, 저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믿음의 영역에 속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코니체에 살았습니다. 성인들의 행적을 많이 읽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읽게 하거나 친구들을 모아 함께 읽곤 했습니다. 저는 성인들의 위대한 수행과 그들이 지킨 금식 생활을 경탄하며, 그들을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금식 때문에 제 목은 체리 줄기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놀리며 “네 머리가 떨어질 거야!”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겪었던 일이라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게다가 내 형은 내가 금식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보고, 학교를 마치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내가 읽던 성인 전기를 담은 소책자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책들을 숲속의 성 바르바라 예배당에 숨겨두고, 몰래 그곳에 가서 읽곤 했다. 어느 날 우리 이웃인 코스타스라는 사람이 내 형에게 말했다. “내가 그 녀석의 머리를 바로잡아 주겠어. 읽고 있는 책들은 다 버리게 하고, 금식과 기도도 그만두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는 나를 찾아내더니(그때 나는 열다섯 살쯤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머리가 헛갈릴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다. 머리가 헛갈린 채로 나는 곧바로 숲 속의 성 바르바라 예배당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그리스도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나의 그리스도여, 당신이 계시다면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이 말을 되풀이하며 쉬지 않고 절을 올렸다.

²¹¹ 히브리서 12:1 참조.

여름이었다. 땀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렸고, 나는 온몸이 흠뻑 젖어 기진맥진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과연,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모양이다 — 아무리 작은 표징이라도, 두드리는 소리라도, 어떤 그림자라도 — 나는 결국 어린아이였으니까. 일어난 일을 인간적인 시각이나 논리로 바라본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외칠지도 모른다. “세상에, 그 불쌍한 아이가 참 안됐구나! 열한 살 때부터 바위를 오르며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잖아. 어리석은 이론들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고, 집에서는 형이 방해까지 했으니, 그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려고 숲으로 도망친 거야!”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수많은 절을 하다 지쳐서 나는 주저앉았다. “뭐, 좋아,”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코스타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내게 뭐라고 대답했지?” —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공정한 분이셨어요,” 그가 내게 대답했다. — 그분은 정의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리새인들의 이익을 건드렸고,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선하고 공정한 분이셨고, 그분과 같은 분은 결코 없었으며, 악한 사람들이 시기심과 악의로 그분을 죽였으니, 이 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찬란한 빛 속에서 나타나셨고, 작은 예배당이 환하게 빛나더니,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²¹² 그분은 한 손에 펼쳐진 복음서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서 나는 바로 그 말씀을 읽었다. 내 안에는 엄청난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나는 멈추지 않고 되뇌었다. “자, 코스타스, 당장 이리 와 봐. 이제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이 계신가, 없는가!” 보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나타나시기 위해 나 자신의 정직한 결단을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어린아이에게서 정직한 결단을 원하신다면, 어른에게서야 얼마나 더 원하시겠습니까?

— 헤론다, 어떤 이들은 신의 섭리 전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를 동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700년 전에 살면서 그분에 대해 그토록 상세히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약성경에는 심지어 그리스도가 얼마에 배반당할지에 대해서

²¹² 이사야 11, 25–26.

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²¹³ 또한 유대인들이 그 돈을 성전 보물창고에 넣지 않을 것인데, 이는 피의 대가이기 때문이며, 그 돈으로 나그네들을 매장할 땅을 살 것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²¹⁴ 스가랴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성경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옷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²¹⁵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탄생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뒤] 어떻게 제가 불신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였으며,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²¹⁶ —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 사울이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다,” —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 주시자, 아나니아는 한때 박해자였던 그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요! 그 뒤에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1,100만 명의 순교자들! 무슨, 그들 모두 정신이 나갔던 것일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복음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려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기적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지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신성모독을 듣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닿지도 않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지, 이를 위해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와서 “믿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을 보고 싶다”고 말할 때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이였다면, 나이 탓으로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²¹³ 참조: 책 11, 1–13.

²¹⁴ 예레미야 18, 2; 32, 9; 마태복음 27, 7–9 참조.

²¹⁵ 시편 21, 19 참조.

²¹⁶ 사도행전 9, 1–18 참조.

하지만 “믿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이건 정말 치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주술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설명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²¹⁷

— 헤론다, 왜 어떤 성자들, 옛 성자들 새로운 성자들, 자신들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지, 혹은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까?

— 그들을 특징짓는 것은 깊은 사랑, 위대한 소박함, 겸손,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흔들게 하는 논리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²¹⁸ 하지만 논리가 개입되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랄람피 신부님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²¹⁹ 얼마 전까지 쿠틀루무시 수도원에서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매우 소박하고 근면하며 영적인 수도자였습니다. 나이가 드시자 심한 독감으로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도원 형제들에게 그분 곁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그분에게 남은 생명이 아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라람피 신부님은 이 말을 이불 속에서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과연, 거의 두 달이 지나 부활절이 되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성찬을 받은 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 소박하고 경건한 노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죽음의 날을 정했던 것입니다!

— 게론다, 믿음은 어떻게 강화됩니까?

— 믿음은 기도를 통해 강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키우지 못했지만, 믿음에 마음이 열린 사람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배가시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무엇을 청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어 주소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²¹⁷ 누가복음 17, 5.

²¹⁸ 마태복음 14, 30 참조.

²¹⁹ 참조: *파이지이* 장로. 『성산 수도원 수도사들과 성산 이야기』.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2001. 9쪽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청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는 데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꽃도, 메뚜기도, 별도, 번개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가 우리에게 보내는 ‘전보’—즉, 악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 없었다면 바다는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실험실에서 바닷물을 분석한다고 해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금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호기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신의 계시를 통해 가장 터무니없는 일조차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 헤론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은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에서 유익을 얻음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낼 때, 어떤 영적 유익과 영적 경험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시멘트를 다룰 때, 벽돌을 만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또 다른 것들을 다루며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닿으십시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설령 그를 교회로 데려가더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를 성가대석에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책을 읽게 해도, 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어떤 영적인 일을 맡기더라도, 그것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모든 것, 하는 모든 일—바느질을 하든 자수를 놓든—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돼지를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여, 또다시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당신은 묻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돼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돼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돼지에게 땅을 파고 만져서 식물의 구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둥이를 주셨습니다. 돼지의

코는 날카로운 철 조각, 유리 조각, 가시 같은 것들도 전혀 거뜬히 견뎌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볼 때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혜롭게 창조하셨구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를 돼지로 만들 수도 계셨지만,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리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돼지로 만들 수 없으셨다는 말입니까? 사냥꾼들은 야생 멧돼지를 쏘 다치게 하지만, 종종 부상당한 동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육식 동물들이 와서 불쌍한 멧돼지를 산 채로 잡아먹습니다.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한 멧돼지는, 자신의 창조주를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습니다. 반면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상처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상처 입히고, 종종 배은망덕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실천을 하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얼마나 훌륭하게 마련해 두셨는지! 그리고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 의사들은 튼튼한 근육을 가지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소들을 보세요: 불쌍한 녀석들은 풀만 먹는데,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는 풀 하나만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지!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한다면, 성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서도 유익을 얻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인은 자신의 거룩한 모범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죄인은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자제시키고, 억제하며, 제동을 걸어줍니다[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힘

— 게론다, 어린 양의 인이란 무엇입니까?

— 어린양은 누구입니까?

— 그리스도입니다.

—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례식에서 사제는 “성령의 은사의 인”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의 이마에 성유를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표시로 자신을 축복할 때마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수난을 경배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힘

인 십자가의 능력을 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그대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힘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우가 몰아칩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종탑에 있는 커다란 철제 십자가에도 번개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기독교인이 몸에 이런 작은 십자가를 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그대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다면, 번개는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번개가 십자가를 강타하여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십자가의 힘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신자를 바로 이 아주 작은 십자가가 지켜줍니다.

— 헤론다, 제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 당신은 믿고 구하고 있지만, 만약 당신에게 겸손함이 없거나 교만할 소지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한 알”²²⁰ 만큼의 믿음뿐만 아니라 겨자 한 킬로그램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믿음에 상응하는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있다면 믿음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에게 서서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고,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며, 그는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된다. 신성한 신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람은 신학자가 되는데, 이는 그가 이성을 통해 신비를 다루지 않고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끊임없이 커지는데, 이는 그가 다른 차원, 즉 신성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적으로 살아 내기 위해서는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고 어떤 면에서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의가 없고 순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믿지 않거나 의심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아십니까?

— 게론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 어떤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 큰 믿음이 있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설령 산간 강줄기 한가운데에 집을 지어 그 위로 거센 물살이 밀려온다 해도,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면 그 물살은 되돌아

²²⁰ 마태복음 17, 20; 루카복음 17, 6.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기적(예를 들어, 바다가 말라버려 트랙터로 밭을 갈고, 물고기를 트럭으로 실어 나른다는 이야기)을 듣고도 그것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보지도 않을 것이다. 바다에서 백 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신성한 능력은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그를 흥미롭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 오직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참으로 살아 있으며,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는 바로 믿음입니다

— 게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불안합니다.

— 내 아이야,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으렴. 아니면 자동차 안전벨트밖에 모르는 거니? 하나님의 안전은 네게 알려지지 않았니? 십자가를 긋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렴.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여왕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큰 안전이 어디 있겠느냐? 자신을 하느님께 맡긴 사람은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슈퍼’ 등급의 연료를 보충받으며, 그의 영적 차량은 결코 멈추지 않고 쉼 없이 달려 나갑니다. 가능한 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버리려면, 하느님께 무조건적인 신뢰를 두고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 헤론다, 저는 항상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지시받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나의 착한 자녀여, 네게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네가 “우리 성부들의 기도로...”라고 말한다면, 그토록 많은 성인들 중 단 한 분도 너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결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라. 한심한 인간의 논리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 자신도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신의 도움도 방해하게 된다. 네가 현명한 인간적인 행동을 한 뒤에, 너 자신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 맡긴다면, 이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어느 날 네 명의 여성 의사가 내게서 피를 뽑으려 했다. 첫 번째 의사가 와서 나를 괴롭혔지만 정맥을 찾지 못했다. 두 번째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의사가 왔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의사가 지나가다가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십자 성호를 긋고 나서, 그녀는 즉시 정맥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의사들은 어떤 면에서 오직 자신들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그 뜻에 맞추려 노력하지도 않은 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애씁니다. 일들의 진행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는 기꺼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정도로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간의 위로에 의지하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신성한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²²¹ 그분께 대한 신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도움을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²²²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의무지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은밀히 기도할 때, 사람은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이며, 필요한 때에 그것은 신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찬양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님.*”²²³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며, 자애로운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처럼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생에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천국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 게론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 먼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²²¹ 이 경우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²²² 참조: 히브리서 11, 1.

²²³ 이사야 6, 3.

믿음과 사랑

— 게론다, 믿음과 사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가진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소망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은 그분과 그분의 형상인 우리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낳습니다. 심지어 불쌍한 동물들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다 담기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사랑의 넘침에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면, 우리의 사랑도 미지근해질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믿음이 뜨겁다면,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사랑이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수련할수록, 그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배가됩니다. 사랑의 수련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련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수련해야 하지? 천국이 존재하는지, 심판의 날이 올지조차 의문인데...”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무엇을 하든 여전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서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에 신성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는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유혹조차 없이 오직 축복만 받으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음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리고 이타적인 희생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신성한 사건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한다. 저 우상 숭배자들을 보라: 그들은 자연을 신격화하고, 태양과 강을 숭배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다. 그들이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면, 창조주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겠는가!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관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신을 모독하고, 다른 이는 반만 믿으며 괴로워합니다.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²²⁴

사람이 괴로움 없이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두나이다.”²²⁵ 가장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삶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자신의 ‘나’에 대해서만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게 모든 영적 불행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가장 크고도 사악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무자비하게 산산조각 내고, 불행한 우리를 맨 하늘 아래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묶여 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홀로 싸우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당연히 적에게 패배하거나 실패를 겪으며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게 된다. 종종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개입과, 우리가 자신감 때문에 겪은 그 실패를 모두 볼 수 있도록 매우 지혜롭게 허락하신다.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경험을 쌓고, 주의 깊게 대하며, 그로 인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찾으시고 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치유받을 것이다.”²²⁶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을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복음서에도 ‘믿으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의 말은 복음서와 일치한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 질문을 통해 그분은 다음과 같은 뜻을 염두에 두셨다. “

²²⁴ 요한복음 15, 5.

²²⁵ 대 저녁 기도에서 부르는 ‘성모송’, 6음조.

²²⁶ 마태복음 9, 29; 마가복음 9, 23 참조.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그 후에 그를 도우셨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자신의 이기심을 믿어야 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복음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며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있으니,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믿는다면,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있거나 귀신 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 헤론다, 기적이 일어날 때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 그런 이기적인 질문 방식 뒤에는 마귀의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믿느냐?”는 말씀을 자신들만의 “믿습시다”라는 말과 혼동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광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큰 자도 작은 자도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을 짓밟고, 부숴버려라!”라는 외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마귀는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감히 부모나 어른들에게 조금이라도 뻔뻔하게 말을 건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떠나고 그는 악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뻔뻔함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헤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 그러면 그는 스스로를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 매일 아침 성호성사를 합니다.

—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이다. 성경에 ‘너희는 모두 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²²⁷ 그러나 은혜로 신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신이 되는 것과,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것은 전

²²⁷ 시편 81, 6.

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다가, 결국에는 무신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게 될 때가 올 것이다

— 헤론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그 사람은 매우 독실한 신자였을 수 있고, 신성한 힘이 그의 삶에서 여러 번 작용했으며, 그는 매우 명백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 후 믿음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를 들어, 사람이 분별 없이 이기적인 수행에 몰두할 때, 즉 영적 삶을 건조하게 대하며 “어떤 성인은 어떻게 수행했나?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무모한 수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서서히 — 그는 이를 깨닫지 못한 채 — 그 안에는 ‘비록 저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더라도, 어쨌든 이미 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수행에 열중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은혜가 그를 도와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은혜가 그를 떠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수련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를 억지로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은 그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교만의 안개도 찾아와 그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많은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은총의 작용과 기적적인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서서히 불신의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무지한 사람이 도그마 연구에 손을 대려고 할 때입니다. 어이, 그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안 온 것 같군요! 나는 어떤 교리를 간략히 알아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설령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해도 교리학 분야의 무언가를 자만심에 차서 다루려 한다면, 그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떠나게 될 것이며, 그에게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나는 경건함을 지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건한 사람은 학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이해력에 닿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교리를 조금이라도 숙고하며 접해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리 분야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설령 예전에 약간의 믿음이 있었다 해도 나중에는 아예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 헤론다, 우리 시대에는 불신이 극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 그렇긴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숨겨진 작은 믿음이 엿보이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저는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 “이리 좀 가까이 와 봐,” 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 “술오리가 노래하는 소리 들리니? 그 재능을 누구에게서 받았겠니?” 그 불쌍한 청년은 즉시 감동에 휩싸였다. 불신의 냉혹함이 사라지고,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또 다른 날, 두 방문객이 내 칼리바를 찾아왔다. 그들은 대략 마흔다섯 살 정도였고, 그들이 살아온 삶은 매우 세속적이었다. 우리 수도사들이 “이 삶은 헛되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젊었을 때 정반대의 결심을 했다. “다른 삶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삶에 뛰어들었다. 결국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 중 한 사람의 아버지는 슬픔 끝에 세상을 떠났다. 다른 한 사람은 어머니의 재산을 탕진해 버려 어머니를 심장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게 되었다”며 자책했다. 그중 한 사람에게는 어머니를 위해 성화를 주었다. 다른 한 명에게도 성화를 주고 싶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에게,” 그가 말했다. “당신이 톱질하는 그 나무 판자 중 하나를 주세요. “나는 신은 믿지 않지만, 성인은 믿는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사람이 거울이든 통조림 뚜껑이든,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빛나지 않을 것이다. 성인들은 마치 천체가 햇빛을 반사하듯이, 하느님의 은총의 광채로 빛났다.”

불쌍한 젊은이들은 온갖 이론들로 세뇌당하고 있다. 내 칼리바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면서, 나는 대개 50대 마르크스주의자 두세 명이 젊은이들 무리에 끼어들어 그들을 세뇌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믿지 않으며,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하기 시작하며 “왜 이걸 이렇고, 저건 저렇냐?”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²²⁸ 한 번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별들을 보십니까? 그 별들은 위쪽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늘의 궁창에 그 별들을 붙들어 두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때 끔찍한 불신자, 사형 집행자, 우상 숭배자였으나,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한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혀를 잘렸지만, 혀가 잘린 상태에서도 오히려 더 잘 말했습니다! 교회는 매일 수많은 성인들의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들의 존

²²⁸ 참조: 이사야 6, 9-10.

재는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들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막의 많은 수행자들은 성월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교회에서 어떤 성인의 기념일을 지내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성인들아,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인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게다가 그 성인들의 이름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후 수행자들은 성인력(월력)을 살펴보고, 그날 자신들에게 나타난 성인들의 축일이 기념되었음을 확인합니다.²²⁹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후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왜 성인들이 수도사들에게 찾아오지, 궁핍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돕지 않는 겁니까?” — “애들아,” 내가 그들에게 되물었다. “너희는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온 거냐?” — “아니요,” 그들이 말했다. “차로 왔어요.” — “좋아, 그럼 여기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작은 성당을 몇 개나 봤니?”²³⁰ 그것들은 비 온 뒤 버섯처럼 저절로 자라난 게 아니잖아. 성인들이 사람들을 도왔고, 경외심에서 사람들이 이 작은 성당들을 지어 그 안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야. 영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만큼 높이 올라간다. 유물론자들도 적어도 어떤 이득은 얻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몇 개 만들면 그만큼의 돈을 벌고,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이 벌죠. 하지만 여러분은 오로지 선전 활동만 하고 거기서 멈춰 서 있으니, 어디서도 이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보다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론다 해도, 당신의 모든 이상은 마르크스주의적 노예제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현명하며, 공정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믿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²²⁹ 1979년 6월 3일, 파이스이 장로는 목주를 짊으며 “오늘의 성인들아,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어떤 성인의 기념일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달력에서 확인하기 위해 안경을 찾을 수도 없었다(불과 며칠 전 장로님은 “파나구다” 수도사로 이사해 오셨고, 아직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6월 3일에 기념되는 성 순교자 루킬리안이 그에게 나타나, 자신의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세 번이나 반복해 주었다.

²³⁰ 그리스의 경건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보통 하느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지들을 추모하기 위해 도로변에 아주 작은 기도소를 세우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다. — *역자 주*

제3장.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주십니다

— 저기 보이는 연기는 뭐죠?

— 필요 없는 것들을 태우고 있어요, 헤론다.

— 이 바람이 부는 데도 모닥불을 피우셨나요?

— 헤론다, 아침에 비가 그쳤는데...

— 비는커녕 홍수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 후에 바람만 불면 모든 게 화약처럼 바싹 마를 테니까요! 참으로 잘도 “비가 그쳤어요”라고 말하네요! 예전에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저 아래에서 불이 났던 일은 벌써 잊으셨나요? 누군가 한 번 물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다면, 그 후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 즉 사람들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에는 도와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지어 성자들까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 게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명확한가요?

—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어떤 방해로 인해 하지 못했다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었음에도 마음의 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문을 빗장으로 잠그라고 지시받았는데, 네가 게으름을 피워 잠그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거야”라고 말한다면. 네가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도우시겠느냐? 설마 그분이 게으른 자를 도우시겠느냐? 누군가에게 빗장을 채우라고 지시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 하나만으로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직 네 모든 인간적인 힘을 다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실 것이다. 그런 사랑은 그분께 기쁘게 여겨질 것

이며, 그분은 서둘러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도 원하신다. 노아의 경우를 보라. 그는 방주를 짓느라 백 년 동안 고생했다. 나무를 톱으로 자르려면 나무 톱을 만들어야 했기에, 다른 나무보다 더 단단한 나무를 찾아내어 그것으로 톱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서 방주 건축을 앞당기실 수는 없으셨을까? [하실 수 있었지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알려 주신 후,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²³¹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내 칼리바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수도사들은 여기에만 앉아 있고,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 “만약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도왔다면,” 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왜 수도사들이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군요.”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왜 수도사들은 의사에게 가나요? 왜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시나요?” — “똑같은 질문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유대인 의사가 저에게 했었죠.” —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 그와 함께 온 사람 중 한 명이 내 대화 상대를 변호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 내가 대답했다. “질문 자체가 순전히 유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황이 비슷하니, 그 유대인에게 했던 대답을 여러분께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때 그에게 말했듯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매우 선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더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셨고,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상 제사를 드리는 숲을 없애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5년의 수명을 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기(왕에게는 종기가 있었습니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무화과 한 묶음을 대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허락하셨다면, 그 궤양도 치유하실 수 없으셨겠는가? [물론, 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궤양은 무화과 한 다발로도 치유될 수 있었다.”²³² 그러니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자.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들의 도움을 청하자.

²³¹ 창세기 6장 13절 이하 참조.

²³² 이사야 38장 4절 이하 참조.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종종 그런 고집이 마귀의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임을 봅니다.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대략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슬픔에 잠겨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양초 두 개를 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가 귀찮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할 수 있는 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의 기도로라도 돕거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도울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일종의 신비로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에 이로운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며, 그분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신다면 —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이든 — 우리는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을 언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시며, 필요한 때에 그분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종종 그분의 연약한 피조물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마치 어머니에게 덜 구워진 도넛을 달라고 조르며 다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청한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청하고 인내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비로운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청한 것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 게론다, 성인들이 어떤 경우에 도움을 주시나요?

— 성인들이 도와주시는 것은 진정한 필요가 있을 때이지, 단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즉,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버지께 오토바이를 달라고 조르지만, 아버지는 사주지 않습니다. “나한테 오토바이가 필요해,” 아이가 징징

대며 말합니다. “걸어 다니기 힘들고, 너무 괴로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사고를 당할까 봐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를 사줄게,”라고 아들에게 말하며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돈이 충분히 모이면 차를 사줍니다. 성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 게론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나요?

—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신성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위로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신성한 위로에 의지하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됨으로써,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독일로 떠난 사람들보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독일에는 그리스인들이 조국에 더 가깝고 동포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호주로 떠난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느님을 굳게 의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고, 조국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을 찾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 의지하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반면 유럽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그토록 굳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²³³

— 헤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웃을 위해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그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온전히 기꺼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도우시려면, 누군가가 그분께 이를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무도 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신다면, 마귀가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을 도우시며 인간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십니까? 그는 죄인이니, 따라서 내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심지어 마귀에게조차 반대할 권리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고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면,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²³³ 마태복음 7장 7절.

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즉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피조물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즉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인들이 도와주시려면,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의향이 있느냐?*”²³⁴ — 그리스도께서는 마비된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존중하십니다. 또한 누군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억지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단, [영적] 무지 속에 있던 사람이 부당하게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그 경우 그는 신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과 성인들이 그에게 도움을 베풀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이미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그토록 빨리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도움을 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끈으로 우리를 그분의 은총에 묶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바람은 이쪽에서 불었다가 저쪽에서 불었다 하지만, 우리는 묶여 있으므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가 자신을 붙들어 주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 끈을 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며,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정욕과 죄만이 우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더라도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신성한 은총이 우리를 조금만 떠나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빼앗으시는 순간 우리는 즉시 죽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신성한 은총을 조금만 빼앗으셔도, 우리는 끝장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지만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인간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갈비뼈가 두 개나 부족해서 금방 감기에 걸리곤 하는데. 이 상태를 잃지 않고 지속되는 동안 계속 누리고 싶다면, 가서 따뜻한 스카프를 가져와 몸을 감싸야 해. 그렇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그 생

²³⁴ 요한복음 5장 6절.

각을 품자마자 나는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나는 바닥에 약 3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비로소 일어나 방으로 가서 누울 수 있었다. 그 전에는 기도에도 깊이 잠기면서,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공중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 가벼움,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품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만약 내가 교만한 생각을 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자, 질문이다. 나처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또 두세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크게 해를 입었을 것이다. 나의 생각은 악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마치 절름발이가 자신의 목발을 집어 들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 생각했을 뿐이다. 이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보라, 그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마음가짐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미덕은 온통 0으로만 이루어진 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0에 0을 더해 나가며, 그리스도께서 이 줄의 맨 앞에 1을 놓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 1을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통해 이끌어집니다

— 게론다, 수련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혼자서 싸우고 있느냐? 네 약함을 그리스도께 털어놓았느냐? 너는 겸손해지지 않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겸손해져서 그리스도께 조금만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도와주신다. 종종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네 ‘나’를 버리고, 그것을 고려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네 안에 깃들 것이다. 우리는 마법 같은 방법[수고 없이]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합니다.

— 하지만 제가 고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제 약점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당신 안에 ‘수행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의지’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

금이라도 순수한 의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람을 도우시고, 아낌없이 그분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섭니다.

— 헤론다,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돕는 한도까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했는데도 그분께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의 교만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식탐,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분노, 시기심 등과 같은 정욕이 있고, 동시에 교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성한 은총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교만에 대한 소질만 있다 해도,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수련하고 기도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릴 우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만할 소지가 사라지고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정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가 이룬 “평소보다 더 큰” 그 수고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긴 영혼은 신성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귀머거리가 아니시며, 우리를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알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²³⁵

영적 투쟁의 시작 단계에서의 도움

— 게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적 투쟁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적 삶에서 첫걸음을 내딛을 때 크게 도와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더 많이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자라나면 부모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투쟁의 시작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뚜렷이 느끼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기를 내어 과업을 수행하고 강

²³⁵ 열왕기상 18장 26절 참조.

인해지도록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제가 텃밭에 토마토 덩굴 몇 그루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매일 물을 주다가, 나중에는 그만두고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할 때만 물을 주었습니다. 물 없이 토마토는 힘들어했고, 수분을 찾기 위해 뿌리를 땅속 깊숙이 뻗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열매도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끊임없이 물을 주었다면, 토마토는 위로만 자랐을 것이고 뿌리는 표면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 계론다, 당신은 영적 투쟁의 시작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그 은총이 조금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분의 도움을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의 은총을 거두어 가십니다.

— 그런 변화가 고통스럽지는 않나요?

—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랄까... 초콜릿 한 조각을 주시죠. 그렇게 조금씩, 사람은 일하는 법과 초콜릿을 먹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달콤한 것을 주지 않으시자 그 사람이 수련을 그만두고 “처음에는 초콜릿을 먹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 아, 나에게 무슨 재앙이 닥친 거야!”라고 한탄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즉, 사람은 [오히려] 이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쉬운 도움을 바라지 말고, 관용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시험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채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도 잘 훈련받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사람이 끝없이 도움을 받으면, 결국 그는 무력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나를 감동시킨다. 저는 까다로운 선생님들의 제자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과연 힘든 일일까요? 물론 힘들지 않겠지만, 그런 도움만으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버릇없는 아이에게 끝없이 초콜릿을 먹여주고, 아이 스스로도 남들이 계속 먹여주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게으르고, 고집스럽고, 한심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삶의 초기에 사람을 도와주시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한 발 물러나시어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울 때, 부모는 계속 손을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걸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넘어질 기미가 보이면, 부모는 ‘슌!’ 하고 재빨리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무언가를 붙잡고 걸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아이가 손을 잡혀 있을 때만 걷고, 손을 놓아 주면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 힘을 기르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는다면, 아이는 결코 걷는 법을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사람은 처음에는 신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도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 사람이 스스로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신성한 힘은 전능합니다

— 헤론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어려움, 유혹]이 어떻게 끝날까?” 하고 걱정합니다.

—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를 내버려 두고 싶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다.

— 무슨 뜻이신가요, 헤론다?

— 바로 이렇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할수록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 애타게 걱정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떤 면에서는 고생하시며 우리를 키워내셨으며,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일로 인해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원하신다 해도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슴이 아프시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자애심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자애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낙원 밖에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 헤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네. 하느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며 하느님과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일이 생겨 그런 사람이 죽게 된다 해도, 그는 다른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이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이나 악마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성자에게도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유일한 장애물은 오직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믿음 부족으로 인해 위대한 신성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그토록 위대한 힘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본성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전 세계의 인간적 힘을 능가하는 신성한 본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의 힘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소용 없이 몇 시간씩이나 앉아,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며 우리의 모든 미숙함을 쏟아붓곤 한다. 머리가 쭈시고 눈이 따갑고, 강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탕갈라슈카’가 우리를 괴롭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해결책을 찾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더 나은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통과 잠 못 이루는 밤뿐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생각이라도 머리가 지치고 아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사람의 힘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일을 행하시도록 합시다.

무엇을 하려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만 한 자만심에 찬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포도밭에 일하러 가려고 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에 포도밭에 갈 거야.” —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실 거예요,” —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 그가 대답했습니다, — 나는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그는 집을 나섰지만, 가는 길에 폭우가 쏟아져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 아내가 물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 그가 대답했다, — 바로 나, 네 남편이야!”

선한 마음

— 게론다, 선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들에게 성체를 받아먹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유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정교회 신자이자 세례를 받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 시

련이나 질병, 재앙이나 지진, 번개, 천둥, 홍수, 단 한 마디 말이나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결국 그분은 그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종종 그런 사람에게는 비록 그가 그토록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에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신 뒤, 이 일까지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이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마귀가 끼어들어 그들을 속이고, 이 불쌍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유혹에 빠지는데, 마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 보라, 하나님께서 네게 이토록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네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불쌍한 사람은 회개하기는커녕, “오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토록 위대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텐데, 악마가 가져다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악마가 다시 그에게 다가와 ‘방송’을 시작합니다. 천사들과 성자들을 보여주며 그에게 “네가 우주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귀에게 오염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산, 이 선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삶에 빠져 있지만, 예를 들어 병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등 연민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실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으며 다른 정욕들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밤낮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군대’를 보내시어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연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악에 휩쓸린 사람들, 악으로 내몰린 사람들 — 이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며, 그분은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실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이 선한 상태에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5부.

영적 무기에 대하여

“만약 누군가가 현재 세상에 만연한 상황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사람들은 도움을 받게 되며, 동시에 그들의 자유 의지는 훼손되지 않는다”

제1장.

기도, 그 강력한 무기에 대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옛날 세속적인 사람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먼저 생각하곤 했다. 반면 영적인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조차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종종 심각한 문제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험을 벌이고, 그것도 바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든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일을 충분히 숙고했는가? 이 일에 대해 기도했는가?” 생각도 기도도 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사탄적인 행동이다. 종종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도움으로”라고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카니발에 맞서 싸운다 해도²³⁶,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고 모든 공연을 취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령 어떤 주교를 무언가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이들은 국가평의회에 이 고발을 항소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위, 소란, 신문 기사 등을 벌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노

²³⁶ 여기서는 그리스에서 매년 열리는 사순절 전 카니발 축제를 가리키며, 이 축제에는 시끌벅적한 공연과 민속 행사가 수반된다. – 역자 주.

력들 —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를 통해 그분께서 응답하시도록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모든 것과 고칠 수 없는 모든 것은 겸손과 기도로 고쳐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묵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는 세계에 만연한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더 굳게 의지하여 기도로 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간구합시다.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성 코스마 에톨리우스가 예언한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²³⁷ “사람을 만나려면 오랫동안 걸어야 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금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어차피 예언이 이루어질 텐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정확히 그렇게 전개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악이 덜 고통스럽고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서에서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²³⁸ 예를 들어, 전쟁에서 기도의 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고, 반대로 희생자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신자가 되며,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화합니다.

이건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다. 지금까지 세상이 공중으로 날아오르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어 주시기를 — 온 세상은 세 명, 네 명의 사람에게 달려 있고, 그 운명은 몇몇 미치광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마치 속담처럼: “말이 말과 싸우면, 발굽에 닭들이 피해를 입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소동이 시작되면, 불의가 불쌍한 작은 나라들의 머리에 쏟아집니다. 큰 나라들이 발버둥 치면, 작은 나라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깨우쳐 주시도록 아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세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

²³⁷ 성 사도적 순교자 코스마 에톨리아스(† 1779; 순교 기념일 8월 24일). 18세기에 살았다. 상당한 기간 동안 성 아토스 산에서 수행했다. 신의 부르심을 받은 후 세상으로 나와, 터키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의 도시와 마을을 돌며 설교했다. 복음을 가르치고, 학교를 설립하며, 그리스인들의 이슬람화를 막았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전 인류의 미래에 관한 수많은 예언을 남겼다. 당당히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로 여겨진다. 2007년 “성산” 출판사에서 아파나시아스 조이타키스의 저서 『코스모스 에톨리우스의 생애와 예언』이 출간되었다. — 역자 주

²³⁸ 마태복음 24, 22; 마가복음 13, 20 참조.

님께서는 그들을 조금만 깨우치시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신다면, 그분이 적절한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의 청원

— 게론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내용 중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로 인해 현재 살아 있는 자들과 앞으로 살아갈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도록 간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라고 덧붙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불경건한 자들을 구원주소서.” (물론 교회는 “주님, 경건한 자들을 구원주소서”라는 기도문을 올바르게 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제가 “우리 같은 합당치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 기도하라고 명하신 분들”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고 명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라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과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필요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은 이들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가 드러나기를, 감옥에 갇힌 이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겪은 고통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에 장작을 던지며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기를 잃은 이들을 따뜻하게 해 주소서.”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태우면서(편지를 다 읽은 뒤 태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될 내용, 특히 고백한 죄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결점을 태워 없애시기를. 그분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또한 저는 성인들의 이름을 딴 사람들을 위해 성인들이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는 습관이 있으며, 모든 성인들에게는 수호 성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청합니다.²³⁹

²³⁹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비기독교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세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관례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성인의 주일에 자신의 이름의 날을 기념한다. — 역자 주.

— 게론다,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구세주의 계명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²⁴⁰에 따라 기도 속에서 구체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일반적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육체와 영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고인들도 포함합니다. 만약 친척 중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를 위해 “주님의 종 (이름)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뒤, 즉시 온 세상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로 넘어가십시오: “주님의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한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이를 향한 아픔을 담아... 기차가 단 한 명의 승객만 태우고 떠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기도로 도울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암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고인들을 위한 기도도 덧붙이세요. 또는 불행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이 즉시 모든 불행한 이들에게로 향하게 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릴 적, 우리 집에서 10미터 떨어진 터키인 집 문턱에서 죽은 한 거지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의 이름은 페트로였습니다. 터키인 여성이 아침에 현관 계단 옆에 누워 있는 그를 발견하고, 그를 흔들어 깨우려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페트로’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기도하는 이에게는 구체적인 것을 구하고,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아픔으로 찢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사람은 기도 속에서 구체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돌아가며, 진심 어린 기도로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

수도사는 자신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온 세상에 대한 기도, 그리고 고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라 할지라도, 비록 균등해 보일지라도, 수도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하나뿐인 반면, 살아 있는 사람과 고인은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저는 봉사를 할 때 보통 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²⁴⁰ 마태복음 7, 7.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도움

— 게론다, 성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다른 사람의 기도를 청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돕고자 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는 노력해야 합니다. 즉, 의로운 사람의 기도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자신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 또한 그 도움을 받아들이고자 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파이시오스 대성인의 거룩함을 지녀야만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²⁴¹ 그러므로 먼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필요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님의 도움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하소서. 만약 그 도움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폭풍우로부터 구해 주시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머니, 성인들이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되, 그들의 도움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계에서 발을 헛디뎠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잡을 것이 전혀 없는 곳에 매달리게 하셔서 목숨을 건지도록 하신다. 또는 누군가 넘어져도 부상을 입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당해도 무사히 살아남는다. 이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이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하느님의 도움 덕분임을 깨닫고, 이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다리에서 강으로 떨어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때요?”라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깊이를 재보려고 뛰어내린 건가요?” 성인들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축복의 뜻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택시를 뛰어넘고, 공중에서 뒤집힌 뒤 도로를 따라 다시 질

²⁴¹ 성 파이시오스 대성인의 행적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한 부주의한 수련자가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죄에 빠졌고, 회개할 틈도 없이 죽고 말았다. 그의 스승이 끈질기게 기도한 끝에, 하느님께서는 그 수련자의 영혼이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지옥에 머물다가, 그날에 마땅한 최종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그에게 밝혀 주셨다. 그러자 스승은 성 파이시오스께로 돌아서서 죽은 이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성자의 간절한 기도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못한 수련자의 영혼을 지옥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주해 나갔는데, 굵힌 자국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확실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깨닫고 자신을 바로잡는 사람은 드뭅니다.

—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할 유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도움을 청한다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더 빨리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더 늦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개입하실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며 겸손하게 이렇게 말한다면: “신부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버릴 것이며, 당신은 그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가 마치 “안녕!”이라고 인사하듯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세요”라고 완전히 피상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그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궁핍을 위해 진심 어린, 고통 어린 기도가 드러질 때, 그 순간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즉시 그 도움을 받는다. 나는 아주 명백한 예들을 꽤 많이 들 수 있다. 수년 전, 한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채 국경을 넘어 공산주의 국가 중 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첩자로 오인되어 체포되어 구타를 당한 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 지인인 한 수도사가 그의 불행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부디 그를 풀어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이 일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 감옥에서 그는 심문을 받으려 끌려갔고, 심문이 끝난 후 그는... 그리스 영토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사관들이 그를 심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구타하고 감옥에 가두더니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 국경 초소에 있게 되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자비로 이끌어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제때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무전기”가 끊임없이 작동한다면 좋겠지요. 군대 통신 중대에서는 타 부대의 무전 신호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원들도 도왔습니다. 우리는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송신 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중계 무전기를 가동했고, 그들의

메시지를 수신하여 다시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명에서 두 교대로 24시간 내내 무전기를 지키며 근무했습니다. 무전 담당자가 한 명뿐이라면 업무가 중단될 것이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며 그의 메시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 무전기 한 대가 끊임없이 작동한다면, 메시지가 본부에 닿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의 중계 “무전기”를 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무전기”를 끄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품격은 그 질에 달려 있습니다

— 게론다, 우리가 중대한 일을 구할 때, 기도는 금식과 함께해야 하지 않습니까?

—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필수적인 일입니다. 금식과 고행은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진정한 것이 되려면 사람들을 위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걱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미 전형이자 모범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심지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연금 수급자들조차도, 버려진 아이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들에게 번거로움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차라리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간호사나 간병인이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문병하러 가거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곳으로 가는 편을 택합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죠. 즉,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의식을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으로 달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려진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성산에서 어느 날 비를 기원하며 성화 행렬을 했는데, 비 대신 불이 났습니다! 십자가 행렬을 산책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수도사들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모든 힘든 세월에도 불구하고 수도원들에 어떤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지 봅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을 위해 밤샘 기도를 드려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손을 뻗나이다*”라고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병든 이를 위한 밤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밤샘 기도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오락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영적인 오락이죠. 때로는 사제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라고 선포할 때조차 우리는 병

든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주를 조금만 더 쬼으며 기도했다면 우리의 도움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규정에 명시된 축일 철야기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두 번의 목주 기도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야 합니다.

기도의 질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고통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수도원에는 기도의 양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세상은 진작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교회 예배가 진심에서 우러나와 거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타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선함이 싹트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서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사랑과 아픔,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끊임없는 찬양이 솟아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는 그 이웃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의 궁핍한 자”²⁴²

— 게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제 마음은 차갑게 남아 있습니다.

— 그것은 마음이 심장에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전혀 딴 데로 쏠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한 번 두드리고, 또 한 번 두드린 다음, 기다리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 두드리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런 일은 없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가요?

—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 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 — 복음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영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그럴 자격이

²⁴² 누가복음 24, 29.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겸손과 소박함, 선함,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셔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²⁴³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지만 인내심이 없어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조바심을 낼 만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우리의 조바심에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의 해결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 나름대로 얻기 어려운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청원을 드렸다가, 그분이 행동하시려고 손을 뻗으시는 순간 우리의 청원을 다시 거두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그분께 구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또다시 흔들리고, 우리는 다시 불안해하며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통은 길어집니다. 즉, 우리는 마치 정부 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곧 마음을 바꾸어 다시 가져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마음을 바꾸어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또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나 청원서는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동반한 기도

— 게론다,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이 아파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몇 시간이고 염주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도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 때문에 마

²⁴³ 마태복음 21, 21 참조.

음이 아프다면, 그저 한숨 한 번만 내쉬어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시간이 없어, 그저 한숨 한 번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 시간이 없는 상황이 닥쳤다면, 타인의 고통을 위해 내뿜는 한숨은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즉, 그 힘은 몇 시간 동안의 기도와 맞먹습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읽다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한숨을 쉬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이건 참 위대한 일입니다! 당신은 아직 전화기를 들지도, 번호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드러지는 대상인 사람은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에 있든,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를 알아차리고 소리 지르는 모습ですよ!

진정한 기도는 즐거움이 아니며, ‘열반’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고뇌합니다. 그는 아프고, 신음하며, 고통받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말입니다. ‘고통받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그는 인류 전체의 고통이나 어떤 특정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 동참과 이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성한 기쁨을 주십니다. 물론 사람은 신성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사람은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고 한숨을 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숨에 대해 즉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는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즉시 그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위로로 위로를 받아 그 고통의 쓰라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그의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혹은 그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어떤 분이 제게 다음과 같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한 성체 성사가 거행될 때,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합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선한 의미에서 영혼은 고통을 겪습니다.

— 게론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기도하는 이는 진심에서 우려나와 고통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린 후, 자신 안에서 느끼는 그 신성한 위로를 통해 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야 하며, 그

후에야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은 신성한 속성이며,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해 아파한다면, 그것이 그들이 환자에게 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됩니다. 환자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느끼고, 확신과 안전감, 위로를 얻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수많은 말도, 교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위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것이 그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통,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아파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필요를 잊게 됩니다.

신성한 위로

— 게론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파할 때면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아 기도할 수 없습니다.

— 그 불안함에서 네 안에 인간적인 본성이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타인을 위해 더 큰 아픔을 느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육체의 활력은 점점 줄어들지만, 영혼의 활력은 배가된다는 것을 보았다. 사랑과 희생, 이웃을 위한 아픔이 영혼에 큰 힘을 주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보세요: 어제 저녁,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드릴 때, 제게는 그다지 활력이 넘치지 않았지만, 타인의 고통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신성한 전례가 시작되기 전까지 밤새도록 서서 신자들을 맞이했습니다.²⁴⁴ 그 후 성당에서도 다시 서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가슴이 아팠고, 그 아픔이 제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기도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영적인 관점에서 대한다면, 그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를 찾아오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대충, 반쪽 귀로만 듣지 않았고, 함께 아파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위해 겪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영적인 태도를 취할 때 신성한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 안에는 신성한 위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²⁴⁴ 장로는 1993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철야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의자에 기대어 그날 모인 약 3만 명의 신자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만약 그 위로가 없었다면, 제가 들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견디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아프지만,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어질 신성한 보응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보상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느냐에 따라 그만큼 그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이토록 많은 고통을 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인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까지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네가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세상에서 네게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토록 많은 불의와 악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어질 보응을 염두에 두시기에,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이 거대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어떤 영광을 누릴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위로로 보답해 주십니다.

— 헤론다, 이웃을 위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대한다면 지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고통받는 소리를 듣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 후 보상으로 신성한 위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좌절에서 오는 괴로움은 위출혈 등 질병을 초래하지만, 타인을 위한 아픔에서 오는 괴로움은 그 안에 신성한 치유력을 담고 있어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무감각의 위험

— 게론다, 때때로 평신도들이 저에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위험이 따르고, 두 번째에는 문제에 대한 영적인 접근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수도사가 자신의 가족을 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즉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즉, 우리는 가족을 뒤로하고 수도원에 들어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잊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네, 우리는 영적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타인의 고통에 영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감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서서히 수도사는 무관심해지고,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두 번째 경우, 기도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위해 아파하지만, 고통

받는 이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순교자가 될 것임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에게 깊은 확신을 주며, 그는 내면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 경우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지 않고,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매우 무뎌질 수 있다. 세속의 사람들은 이웃들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 그들을 위해 가슴 아파한다. 우리는 이를 보지 못하고, 결국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구하게 될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기를 위한 세심한 수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정해질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무관심 때문에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이는 복음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수도사는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를 돕는 것입니다.

— 게론다, 저는 제 모든 비참함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 [큰] 겸손 때문입니까? 만약 겸손 때문이라면, 깊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들어주실 수는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면,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영적인 상태에 있었고 기도에 담대함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셨을 테니까요. 누군가가 고통받는 데에는 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웃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왜 저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주님, 제발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즉, 모든 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 스스로를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아파하고,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맹인을 보면, 그 일에 대해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그를 치유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처럼 거룩해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든 작든 자신의 영적 병을 인정하며, 이웃과 동료 인간인 그 사람의 육체적 건강을 겸손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병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치유되어 고통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타인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여기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

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온 세상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이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거짓된 겸손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도 때때로 우리 수도자들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이기주의자이며 오직 자신만 구원받으려 한다고 말하며 불쾌해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못하다고 믿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한 번은,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온 밤을 지새우는 기도 전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큰 궁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에 대한 그 큰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을 휩쓴 이 보편적인 광기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인류가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혼란과 광기,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고 있으니, 그분이 신성한 방식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미친 시대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 문제가 산적인 이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긋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수도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전쟁 중 군인은 전투 준비 태세에 있습니다. 이미 군화를 신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죠. 수도사도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마카베오라면!²⁴⁵ 나는 산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지요.

²⁴⁵ ‘마카베오’라는 별명(이 단어는 아마도 “적을 분쇄하는 자”라는 뜻일 것으로 보인다)은 기원전 166년 유대인 봉기의 지도자 유다와 그 후계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 봉기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끌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상대로 일어났다. 마카베오들은 조상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투사들이었다. (마카베오서 참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악마가 마음대로 횡행하지 못하겠지요. 악마는 지금 어떤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마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 지금 세상에 만연한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사람들은 도움을 받게 되며, 동시에 그들의 자유 의지는 침해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한다면,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이 일을 제대로 정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레이더’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도 대원을 조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 드러져야 합니다. 그때 기도가 어떤 힘을 지니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수도사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 인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들을 — 행하는 것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실천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 하나만으로 수도원을 짓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온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도사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 그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것이든, 이웃에게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세상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이든 상관없이 —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 수많은 신성한 힘을 보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수도사의 사명이며, 만약 그가 이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사는 다양한 곤경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들고, 그를 괴롭히며 두통을 안겨주는 모든 불안이 악마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악마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성한 힘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성한 힘을 보내실 수 있는 기도를 포기하게 하려는 악마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도움은 단순한 신성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논리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신성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사탄은 수도사의 사랑을 교묘히 빼앗아, 그를 세속적인 사랑과 세속적인 인식, 그리고 세속적인 이웃 섬김 속에 묶어두려고 애쓰지만, 수도사는 자신의 수도 생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통신 담당자’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낮은 차수에 속한다.

게다가 수도사는 말보다는 기도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 만일 악을 행하는 이를 막을 힘이 없다면, 멀리서 기도로 그를 돕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타인에게 닿지 않을 때, 한 번의 선하고 진심 어린 기도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지닌다. 사람들은 내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바치는 진정한 헌물은 시편을 읽는 그 한 시간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오락으로 여깁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으면, 뭐, 그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조언을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주는 것을 나만의 헌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기도다. 만약 내가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칠 수 있다면, 세상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하루에 200명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치자. 하지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고작 200명뿐일까요? 단 한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저는 온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좋지만,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기도는 안전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아바 이삭이 쓴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했고 마귀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²⁴⁶

제2장.

수도원이 교회의 요새라는 것에 대하여

²⁴⁶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마들에게 틈을 준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참조: *아바 이삭 시리아인*. 『저작집』. 세르기예프 포사드, 1911. 제71 설교. 362쪽.

수도사는 바위 위에 세워진 등대입니다

— 게론다, 수도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 수도사의 사명은 성령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금박 한 장처럼 예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사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며, 그가 걷는 길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수도사는 인류의 불행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마음은 고통으로 찢리고, 끊임없이 진심을 다해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수도사는 기도로 세상을 자비롭게 대합니다. 온 세상이 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돕는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속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쌀 1킬로그램과 오렌지 두 개를 베풀지만, 그것조차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정작 그는 그 사람들을 인식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사는 기도를 드리며, 침묵 속에서 이웃들에게 수 톤에 달하는 도움을 보내고 있다.

수도사는 스스로 행동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세속적인 선교 사업을 기획하지도 않으며, 어떤 개인적인 계획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당신의 신성한 계획에 포함시키시며, 필요하다면 그분만이 아시는 방식으로 그를 사도적 업적을 이루도록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손잡고 이끌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수도자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수도자의 사역은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가 세상에서 멀리 떠나는 것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과 떨어져 살면서 수도사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울 수 없고 오직 신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에서 세상을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그분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그분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야 한다.

오랫동안 나는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로마에서 온 두 명의 가톨릭 건축가가 내 칼리바를 찾아왔고, 그제야 나의 의문이 풀렸다. 그들은 정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친절했다. “왜 수도사들이 여기 앉아 있나요? 왜 세상으로 나가 사회 봉사를 하지 않나요?”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등대는 바위 위에 서 있어야 하는 법이잖아요. 설마 그들에게 도시로 이사 가서 가로등 일에 동참하라고 하실 건가요? 등대에는 등대의 사명이 있고, 가로등에는 가로등의 사명이 있습니다.” 수도사는 도시 보도 위에 매달려 보행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비추는 전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수도사는 바위 꼭

대기에 굳건히 서 있는 먼 등대이며, 그 빛으로 바다와 대양을 비추어 배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품, 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수도사의 소리 없는 설교

...자,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세 분의 수련생들이 자라지 않기를!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기를: 이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이 작은 키로, 이 나이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에서 어떤 조용한 유익을 얻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품행이 바른 젊은 여성을 찾기란 쉽지 않으니깐요. 대부분의 소녀들은 제멋대로 행동하죠. 손에는 담배를 쥐고, 도대체 누군지 모를 듯이 꼴사납게 굴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자신을 바친 처녀들이 교회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사람들은 놀라워하죠. — ‘여기 뭔가 비결이 있구나. 그들이 바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순 없지.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다 갖췄는데. 보아하니, 정말로 더 높은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해!’ 네, 네, 정말로, 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심지어 비신자라 할지라도 수도원에 와서 진정한 수도사들을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신자가 됩니다. 많은 무신론자 학자들이 단순히 관광을 위해 성산에 왔다가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세속에서 성공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부와 지위를 버리고, 기도와 철야 기도로 수행자처럼 살아가는 기쁜 젊은이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세상이 있으며, 지옥의 고통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라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덜 짓는 삶을 살기 시작하거나 아예 삶을 바로잡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무 살 된 한 젊은 여성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손목의 정맥을 그었지만,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수도사가 그녀를 데리고 여자 수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쌍한 여자가 모든 것에 화를 냈지만, 나중에 그곳의 수녀들을 알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세상을 봅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될까요?”

이것이 바로 그 수도사의 조용한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삶이 말과 일치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는 드뭅니다. 그러나 그 수도사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위해 큰 소리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조용히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도로 이웃을 돕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수도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 특히 오늘날의 세상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말할 때, 그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수도사가 말하는 생각 또한 그 자체로 빛을 담고 있습니다.

—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이나 처녀들이 실망 때문이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 보아하니, 이 사람들은 그런 사례를 한두 건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 악의나 시기심에서 나머지 수도사들, 즉 90퍼센트에 달하는 이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높은 무언가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사는 항상 세상에 선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라.*”²⁴⁷ 진정한 수도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 요한 사다리꾼이 쓴 말을 기억하십니까? “수도사들에게 빛은 천사들이요, 평신도들에게 빛은 수도사들이다.”²⁴⁸ 수도사의 도움은 그가 세속 사람들과 구별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발휘합니다. 허영스러운 일들로 지친 세속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그 단순함으로 그들에게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합니다.

수도사와 세상의 부흥

수도사들은 그리스도의 정규 군대이므로, 그들의 봉사에 대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성산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다른 곳에서는 돈 등을 요구받지만, 아픈 성산에서는 방문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무료로 산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 식사비나 숙박비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산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어느 날, 내가 ‘성스러운 십자가’ 칼리바에 머물고 있을 때,²⁴⁹ 한 남자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러 내게 찾아왔다. 우리는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다. 떠나려던 그는 500드라크마 지폐를

²⁴⁷ 마태복음 5, 16.

²⁴⁸ 성 요한 사다리꾼. 『사다리』. 세르기예프 포사드, 1908. 26번째, 31번째 말씀. 181쪽

²⁴⁹ 성스러운 십자가 수도원에서 파이시이 장로는 1969년부터 1978년까지 거주했다.

꺼냈다. “이게 뭐죠?”라고 내가 물었다. “그 정도면,” 그가 대답했다, “의사에게 간단한 진료 한 번 받을 때 내는 비용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드려야 할까요?”

성산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고위 관리 몇 명이 현장에 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을 배정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내 칼리바에도 들렀다. 대화 도중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 그들이 인정하며 곧바로 들은 말을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²⁵⁰ 우리가 물질적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사가 된 것일까? 우리는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영적인 것을 베풀기 위해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돌보기 위해 세속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우리는 산으로 도망쳐, 우리 스스로 정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들도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기도와 모범을 통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입회함으로써,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 즉 영적 아버지나 영적 어머니가 됩니다. 처녀가 수녀가 되면, 그녀는 그리스도께 신부로서 헌신하며 그분의 신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로서 사람들의 영적 부활을 돕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예를 들어, 견고한 기독교 가정이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기도 외에도 사람들이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수녀는 세상을 위한 기도 외에도, 자신의 행동 방식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아콘다리크에서 어떤 순례자에게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건네는 몇 마디 말이나, 어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건네는 말로 세상을 돕습니다. 하지만 물론, 수녀가 스스로 세속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추구한다면,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영적인 법칙과 충돌하기 마련이며, 이는 우리 수도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수도사들은 성당 축일에 나가거나, 서로 방문하거나, 영적인 친구를 사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일로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가야 할 때면 마치 순교를 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 게론다, 나이가 꽤 든 수녀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²⁵⁰ 1991년 5월에 발표됨.

—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수도 생활로 부르지 않으셨다면요. 그 소녀는 세속 사회에 남아 결혼하여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며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그녀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그녀의 소명은 어머니의 소명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와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수행에 전념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에게는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식의 유치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녀는 베풀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후배 수녀들의 영적 부흥을 돕아야 한다. 아콘다 리크나 성당에서 순종하는 태도로, 수도원을 찾는 평신도들을 도와야 한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도 받게 될 것이다. 수녀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그녀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오직 후배와 선배로부터만 받아내려고만 한다. 그녀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정신을 키우며 성숙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수도사들의 상태가 시나이에서 만난 한 베두인의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다. 그는 65세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어. 나는 [완전한] 고아야!” 65세면 이미 손주들이 있는 나이인데 말이다. 벌써 두세 세대가 지났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즉,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 수도사들도 부주의한 탓에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다 — 이것이 바로 악이다. 그러나 그 나이대에 세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수녀나 수도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지금 나는 세속적인 위로를 찾아서는 안 된다. 나는 자신을 희생해야지, 타인에게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는 젊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와 그곳에서 영적 부모를 만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와 어린아이 같은 불만을 품은 채 그대로 머물러 버리곤 하는데, 세속에 있었다면 이미 스스로 부모가 되었을 터이다. 즉, 어린 시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 좋은 의미가 아니라, 유치하고 유아적인 의미에서 말이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다. 사람은 늙었지만, 머리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탕이나 티셔츠 하나에 기뻐한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스웨터를 사주셨어요,”라고 한 아픈 산의 늙은 수도사가 자랑하며, 그의 스승이 준 따뜻한 스웨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깨끈 달린 재킷을 사준 어린 소년과 똑같았죠!..

악에 맞서서 갓난아기처럼 되자,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말자.²⁵¹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삶에 용기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가 찾아올까요? 수도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딱딱함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어머니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수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약간의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 게론다, 누군가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맴돌고 있다면, 어떻게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 수도원에 들어온 후에는 세속을 잊어야 하며, 그 후에는 자신이 수도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는, 뭐,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수도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요? 수도자적인 교육입니다. 수도원은 신성한 곳입니다. 세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신성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겸손함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신을 잃고 마치 세속에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겸손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수녀는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마치 ‘불행한 운명’의 화신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저는 어떤 수련 수녀들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가 아니라, 공작새처럼, 세속의 신부들처럼 거만하게 걷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겸손하게 걷는데, 저는 그들 안에 신성한 무언가가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수도 생활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밀 이삭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늘 높이 솟아 곧게 선 이삭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밀로 가득 찬 이삭은 아래로 고개를 숙입니다.

경건함을 지닌 수도사는 그를 보는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한 위계수도사가 찾아왔는데, 저는 그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니다. 즉,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지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저는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지 않을 때도, 나는 그의 얼굴에서 빛, 영적인 빛을 보았습니다. 아스팔트처럼 — 본질적으

²⁵¹ 참조: 고린도전서 14, 20.

로는 수지인데, 여름에 멀리서 바라보면 종종 반짝이곤 하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못생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물론 아스팔트 비유는 그리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처한 영적 상태가 그에게 외적인 광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름다움, 은총, 신성한 은총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내면에는 세속적인 정신을 품고,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는 다른 성직자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밀어내는지! 당신은 눈앞에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성직이라는 것 외에는 영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 만일 네 눈이 밝으면, 네 온 몸도 밝으리라.*”²⁵² 사람에게 단순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다면, 그에게는 신성한 깨달음이 있으며, 그는 빛난다. 바로 그렇다. 수도사는 바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 헤론다, 성 니로 칼라브리야는 수도사가 되면 사람은 천사가 되거나 악마가 된다고 말합니다.²⁵³ 그렇다면 중간 상태는 없는 것입니까?

— 성인은 수도사의 자기 수양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죄에 빠진 대수도사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어, 그가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적인 무언가를 통해, 인위적이거나 마법 같은 방법으로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도, 내면의 자신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도사들은 자신에게 넓고 길게, 발끝까지 내려오는 스키마를 지어 입고, 그 위에 붉은 십자가, 장미, 진홍색 나뭇가지, 온갖 글자들을 수놓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보이도록 수도복도 활짝 벌려 입는데, 마치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보여주고자²⁵⁴ 옷자락을 넓게 펼치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수도사의 스키마가 수도복 아래에서 간신히 보일 정도였고, 그것도 걸을 때만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예 포드리아스니크 아래에 작은 스키마를 입고 다니며,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게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이다. 과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스키마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스키마는 그들을 경멸하고, 은총은 떠나간다. 중요한 것은 수도사가 내면에

²⁵² 마태복음 6, 22.

²⁵³ 참조: ‘Ο Ὁσῖος Νεῖλος ὁ Καλαβρός. Ἐκδ. Ἱερου Μετοχίου Εὐαγγελισμοῦ της Θεοτόκου, Ὁρμούλια, 1991. 252쪽

²⁵⁴ 마태복음 23, 5 참조.

서부터 대스키마 수도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대스키마 수도사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스키마를 숨긴다. 겉모습만으로는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상적인 채로 남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²⁵⁵

수도원은 영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의 구원과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 애쓴다. 수도사에게 있어 진정한 신성한 사랑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통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통 속에 숨어 있다. 하느님께 바쳐진 수도사의 영혼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구원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각 가문마다 적어도 한 명의 수도사를 두어 모두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은 관습이었다. 파라스에서는 누군가 수도사가 되면 마을 전체가 축제를 열곤 했다. “그가 이제 우리 마을도 도울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물론 수도사는 결코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 와 병행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도우실 때, 수도사는 “내가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한다. 수도사는 “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나의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세상을 돌보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 헤론다, 수도사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잊어야 합니까?

—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평신도들의 손에 맡겨지면, 저 자신도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수도사가 마치 세속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도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도사는 훌륭한 택시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은 받지 않을 것이고, 승객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수도자의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도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기질이, 세속인들에게는 수도자의 기질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²⁵⁵ 마태복음 25, 12.

다. “너는 수도복을 벗고, 너는 입어라.” 세속인이 수도 생활을 갈망하면 거룩해진다. 그러나 수도자가 세속적인 삶을 갈망한다면, 그는 영원한 고통으로 향하게 된다.

— 만약 수도사가 잘못된 태도를 취했다면, 그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까요?

—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해도,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에게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수도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일에서는 수도자의 영혼이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평안을 잃은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어떤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긴 진짜 아틀리에나 다름없어요! 수녀원장님은 정말 기이한 분이시더라고요! 아테네의 모나스티라키²⁵⁶ 에서 단추를 팔고 계셨다면, 그야말로 제자리를 찾으셨을 텐데요! 그녀는 이런 일에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시더라고요!” 즉, 수도원은 재봉실인 셈입니다. 그러다 공장으로, 슈퍼마켓으로, 심지어 장터로 변해버리죠! 불쌍한 세속 사람들은 우리 수도사들에게 더 높은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위안을 피해야 합니다.

수도원은 영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속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영적인 것만이 있어야만 인간의 영혼을 천국의 달콤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로 어떻게 평신도들과 경쟁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우리보다 기회가 더 많으니까요. 만약 수도원이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습니까!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속적인 논리도 장사꾼 기질도 없을 때, 그것은 평신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사꾼 기질이 서서히 수도 생활 깊숙이, 뼈 속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제 칼리바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묵주를 열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33개 매듭이 있는 묵주를 축복으로 나눠주잖아. 하지만 나는 이런 묵주 하나를 500드라크마에 팔 수도 있어! 나도 너처럼 낭비하지 않아. 매듭을 다 짓자마자 끝을 잘라내고, 양모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서로 살짝 묶어두지. 십자가에서 남은 실도 다 활용해, 그것도 꿰매어 쓰지. 구슬도 쓰지 않아. 내 수익이 너보다 더 많이 나네!” — “이봐, — 내가 대답했다. — 도대체 부끄럽지 않니! 네 안에 장사꾼 기질이 깃들어 있다는 걸 모르겠니? 나는 1950년부터 수도사였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 게론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²⁵⁶ 아테네의 한 지역.

— 그래, 불행히도 그들은 드물지! 그런데 이라고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알아?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네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고, 네 사리사욕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 그들은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세상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 있으며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수도원에 오면,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투쟁을 계속할 힘을 줍니다.

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육체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더 필요로 합니다. 즉, 그들은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비록 불행하게도 머지않아 빵조차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온 세상을 돕도록 노력합시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돕고, 어떤 어머니가 불쌍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경건함을 간직한 이들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줍시다.

영적 상태 — 영적 요새

오늘부터 우리 영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어려운 날들이 닥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날들이 닥친다면, 작은 지진 하나, 작은 충격 하나로 온 형제회와 수도원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각자 제 갈 길로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혼 속에는 영적인 무언가가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해왔는지, 제가 얼마나 엄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깊이 생각에 잠겨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밤을 새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가올 힘든 세월을 보지 못했다면, 이 말을 이렇게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 게론다, 만약 사람이 그 힘든 시절에 홀로 남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 지금은 우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분별력을 기르도록 하라. 그 다음은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결점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수도사에게 결점이 있다면,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지금도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독수리라고 여기며 다른 모든 사람을 벌레로 여긴다면... 자, 이제부터 고쳐 나가세요, 고쳐 나가서 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얻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으세요. 더 힘든 시절이 올 것입니다. 열매는 아직 푸르고, 덜 익었으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여러분의 수도원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 여러분의 도움은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수녀들이 가득한 수도원이 평신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수도사는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고난이 자신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강이 말라버리고, 모두가 갈증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수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갈증으로 고생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갈증으로 고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행을 추구하며 이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로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던 일들을 —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 이제 어쩔 수 없이 행하며, 수도자가 무엇인지 깨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느님!” 하지만 이 세상, 불행한 세상! 사람을 죽이면서도 건물은 파괴하지 않는 폭탄을 발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크다”²⁵⁷ 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는 건물이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 게론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 그 두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기회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자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기관총도, 더 현대적인 원자폭탄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그 자체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

²⁵⁷ 마태복음 16, 26 참조.

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권세를 주지 않는 한, 마귀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있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여러분이 수도사처럼, 신부님처럼 살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신의 개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고통과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영적 자본이자 영적 전략 기지입니다. 수도원에 두 세 명의 영혼이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들은 영적 요새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원수의 모든 힘을 묶어둡니다.

기도, 올바른 삶, 개인적인 모범

— 게론다,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수도사는 어떤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표현해야 합니까?

— 기도, 올바른 삶, 개인적인 모범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말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십시오.

—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생기면 수도사가 말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물론이죠! 수도사가 아니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수도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꾸지람을 들을 것을 두려워하죠. 우리, 즉 하느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가 먼저 싸움터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말하길,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상황은 곧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큰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걸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물은 썩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저쪽으로 쭉쭉 밀고 들어오다 보니, 결국 그물이 찢어질 것입니다. 찢어지는 것은 물고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물 자체가 이미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그 물고기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 네, 기독교인들입니다. 장어와 뱀은 나머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게론다?

— 무엇보다 먼저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수도사로서 제 앞에 놓인 과제는 바로 제 내면의 세속적인 인간적 기질을 뿌리 뽑고, 먼저 제 자신을 바로잡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수도 생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 하지만 헤론다, 어떤 이들은 침묵과 기도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 주변이 온통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끄어야 합니다. 고통이 당신을 침묵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중대한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감을 주신 대로 말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소박하며, 영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어려운 순간에 타협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 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젊은 여성들을 수도원에 받아들여, 그들이 진정한 수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훌륭한 수도사가 되면, 사람은 어떤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바쳐야 할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압니다. 만약 그가 훌륭한 수도사가 되지 못했다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수녀가 된다면,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진정한 수녀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중 누군가를 어떤 일을 하러 보낼 때 “이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 일에 대해서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라고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어리석은 소리를 지껄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태는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수도 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이들은 진정한 수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어려운 순간에 어디까지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순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수녀원장님의 영과 조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수녀원장은 그들에게 단지 신호만 보내면 되고, 그들은 수녀원장과 같은 파장에 맞춰 일하고 있으므로 그 신호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바로 그 파장에 다른 누군가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 것을 말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며, 그는 상당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수도 생활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수도 생활은 힘을 잃고 쇠퇴하며 존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수도 생활에서 영적인 것이 사라진다면, 그 안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성산에서 한 순례자가 어떤 수도사에게 물었다. “이봐요, 여기에는 과연 수행자의 정신이 없는 건가요?” — “지금은,” 그 수도사가 설명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옛것은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좋아, 그가 미친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쩌면 그와 비슷한 사람 다섯 명이나 열 명 정도는 머릿속 나사가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런 헛소리를 퍼뜨린다면, 그들을 탐에 가둬버려야 한다! 그들은 입만 살아서 우리 시대의 수도 생활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유혹할 권리가 없다! 어차피 어떤 이들은 바로 그런 구실을 찾고 있을 테니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비난받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성부들의 저서 읽기를 폐지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사회학적인 성격의 책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평신도들은 도움을 청하러 성스러운 수도원에 찾아오는데.....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이 경멸받는 것처럼, 머지않아 선한 수도사도 경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정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에게 큰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가까운 미래에 수도원에 와서 올바르게 수도사답게 살고자 하는 청년에게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여기서 뭘 하러 왔니?” 세속인과 다를 바 없는 수도사들을 보며 사람들은 수도 생활에 환멸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찾아와 어떤 수도원에 유혹당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수도 생활에 세속적인 기풍이 깊숙이 스며들었고,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도사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수도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세대에게서 볼 수 있었던 소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이제 세속적인 논리와 세속적인 교육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종종 세속 사회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도원 기숙사에서는 『라브사이카』에 묘사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²⁵⁸ 어떤 이들은 신성한 열정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갔고, 다른 이들은 회개를 위해 들어갔다. 그들을 수도원으로 이끈 사정은 각기 달

²⁵⁸ “라브사이카” —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성인들의 행적록. 이 책은 아마도 5세기 중반 비탄의 헬레노폴리스 주교 팔라디우스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그는 이 책을 비잔티움의 귀족 라브스에게 헌정했다. 이 귀족의 이름을 따서 이 저작 자체도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랐다. 어떤 이는 아내의 죽음 후에 수도원에 들어갔고, 또 다른 이는 세속적인 과거 삶을 회개하고 그곳에 들어갔다. 수도원에서는 귀신 들린 이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러 왔고, 수도사들의 기도로 치유받은 뒤 그곳에 머물며 수도 서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어떤 난동을 부리면, 다시 불결한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공동 생활 공간에는 귀신 들린 이들도 있었다. 미혹된 자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척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예지력과 치유 능력을 지닌 수도사들도 있었다. 그 다양성이 참으로 대단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지자도, 기적 행자도, 귀신 들린 자도,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척하는 자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에게서 다른 종류의 ‘미친 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미친 척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정신이 상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논리가 많이 스며들었고, 이 수많은 논리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오늘날 자신의 삶을 온갖 다양한 편의 시설로 가득 채워, 오히려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필요도 없는 사물들에 지나치게 주의를 빼앗기며,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일은 소홀히 한다. 젊은이들이 수도원에 들어와 세속적인 불안함을 세속 기관의 분위기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들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영적 관광을 하거나 견학을 다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난 휴가를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텐데, 수도사는 아픔을 안고 자신의 방을 떠나야 마땅합니다.

나는 많은 일에 분노하고 있기에, 이 쓰라린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수도사들에게 영적 서적도 없었고, 수도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30%는 타고난 수도사였고, 나머지는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각기 다른 밭에서 따온 열매들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수도원에 들어와 한두 달을 지내기도 했는데, 심지어 수도원장조차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고는 수도원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이 그를 수도원으로 이끌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잘 지내갔다. 어떤 이들은 아예 문맹이었다. 식당에서 성경 낭독을 듣고, 성당에서 성자 전기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노래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수 기도만 반복했지만, 마음은 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인 경

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지만, 지금은 주일학교도 있고 영적인 책도 있으며 수많은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원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토록 강력한 영적 성장이 있었으나, 교육받고 발전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경작된 밭이 있고, 그곳에 씨를 뿌리지만 단 한 알의 씨도 싹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주의하다면 수도 생활은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뒤집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물론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주인님이신 성모님께서서는 빗자루를 들고, 그분의 거룩한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쓸어내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지나갈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수도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빛진 자로 서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기도로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떤 서원을 드렸는지, 그리고 천사의 계급으로 부름받는 이 특권을 얻지 못한 세속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뒤에 유산을 남기어야 합니다

— 게론다, [지금] 많은 이들이 수도원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 네, 많은 이들이 지금 유일한 출구는 성 코스모스 에톨리우스와 같은 성인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서, 그들이 각지로 흩어져 세상을 전도하고 계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도원은 영적 중심지입니다. 만약 수도원이 1821년 봉기를 돕지 않았다면, 그 봉기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점령 기간 동안에도 수도원들은 항복하지 않고 해방 투쟁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²⁵⁹ 깡패들이 그곳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도원은 독일인들이 불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그리스 깡패들이 파괴한 것이다. 독일인들은 “수도원에서 탄약과 무기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곳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깨끗한 척하고, 수도원 파괴의 주범으로 파시스트들을 몰아세우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 낡은 탄창 몇 개와 부서진 소총 한 자루를 심어 둔 뒤, 정작 자신들이 점령군에

²⁵⁹ “반디트”란 파시스트 점령기 당시 그리스 공산당의 무장 세력을 의미한다. — 역자 주.

게 “어떤 수도원에 강패들이 숨어 있다”고 밀고하곤 했다. 파시스트들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탄약을 발견하고는 수도원을 불태웠다. 이런 식으로 무장단원들은 수도원을 꽤 많이 불태울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수도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수도원이 남아 있다면,” 그들은 말하곤 했다. “비록 무신론 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불태워 버리자.” 그래서 불태운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발효종을 구하러 수도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도원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면 무슨 발효종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발효종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발효종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도록 노력합시다.

지금은 주술사나 그와 비슷한 악령들에게 의지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수도원에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죄에 지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너무나 지쳐서, 술을 마시거나 죄를 짓도록 보내도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초대를 통해 사람들을 수도 생활로 부르십니다. 이 세대는 가장 훌륭한 전제 조건과 이상을 가지고 수도자의 길을 시작하지만, 마귀는 이 모든 출발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음 세대는 달라질 것이다. 수도원에는 수도 생활에 부적합한 많은 사람들도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의해 지치고 상처 입게 될 것이다. 부부들은 이혼하고(교회의 축복을 받든 받지 않든) 수도원에 들어갈 것이다. 세속적인 삶에 질린 젊은이들도 수도원에 들어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은 영혼에 약간의 평안을 찾기 위해. 결혼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과 삶을 엮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수도사가 될 것이다. 즉, 앞으로 몇 년 동안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단순히 가정을 꾸릴 결심이 서지 않는 사람들도 수도사가 될 수 있다. “결혼하면 무엇을 얻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그들은 고민할 것이다. “차라리 수도사가 되는 게 낫겠다.” 즉, 그들은 수도 생활을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수도원에 들어오는 이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그들을 수도사가 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들의 동기는 흠잡을 데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위험이 있다. 사람이 수도 생활을 위해 세속을 떠날 때는 사정이 다르다. 이 불쌍한 이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그들은 세속적 쾌락의 맛을 기억할 것이므로, 마귀는 그들을 상대로 잔혹한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상대로는 그런 싸움을 벌이지 않고, 우리의 영적 활동을 방해하고 우리를 낙담에 빠뜨려, 우리 뒤를 이을 이들이 영적 토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성공하여 이 사람들을 도울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남겨 줍시다.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있을 뿐, 천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출가식, 안수식, 밤샘 기도, “주님의 라비...” 노래, 촛대 흔들기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들은 천상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육신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천상의 기쁨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이며,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상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은 뛰고 들뜹니다. 천상의 기쁨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제3장.

삶의 가장 깊은 의미에 대하여

다른 삶을 준비합시다

— 헤론다, 한 청년이 부모님께 “자신이 못생겼고, 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 사람들은 아직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삶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부당하게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사람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나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이기심이 섞이면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에게 유익한 것을 주셨다: 키든, 용기든, 아름다움이든, 혹은 그 밖의 무엇이든. 그분은 사람이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왜 나는 이렇고, 그는 저런가?”라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너에게는 이것이 있고, 그에게는 저것이 있는 것이다. 성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수련하던 루마니아인 성자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괴로워하던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개구리가 물소를 보고 말했죠. ‘나도 물소가 되고 싶어!’ 계속 붓기만 하다가 결국 터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개구리로, 누구는 물소로 만드셨기 때문이지. 그런데 개구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물소가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터져 버린 거야!” 누구나 창조주께서 자신을 만드신 그대로 기뻐하기를 바란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유익한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미래의 영생을 믿게 되는 순간, 즉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여 삶을 새롭게 재구성할 때, 곧바로 신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며, 그 은총은 그를 변화시켜 그의 모든 타고난 결점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회개한 많은 죄인들이 겸손하게 고결한 수행을 실천하고, 은총을 받아들여 성인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숭배하며 그들의 기도를 청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그들은 유전적인 것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정욕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성 모세 무린을 들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악의를 지닌 가장 잔인한 강도였던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자마자 즉시 회개하고 수행에 매진했으며, 그의 모든 정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했으며, 예민함 면에서는 아르세니오스 대성인²⁶⁰ 을 능가했는데, 그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선천적인 미덕을 지녔고 겉으로 드러나는 학식도 풍부했습니다.

— 그러니까, 게론다, 이 삶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 조국과 하늘, 천국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영혼의 구원인 이 가장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일시적인 삶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다른 삶을 위한 ‘여권’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여 다른 삶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평안한 양심으로 떠나 그리스도께로 날아올라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섯 개의 떡을 축복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백성들은 즉시 말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참 좋겠구나!”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먹고는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 음식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는 시험을 겪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²⁶⁰ 성 아르세니우스 대성자(354—447)는 로마 출신이었다. 그는 지혜와 덕행이 뛰어났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신의 두 자녀를 그에게 맡겨 양육하게 했기 때문에 “왕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다. 394년, 신의 계시를 받은 후 그는 세속을 떠나 이집트 사막으로 은둔했다. 궁전에서 보냈던 과거의 삶에도 불구하고, 성 아르세니우스는 지극한 엄격함과 자기 희생으로 수도자의 삶을 살아갔다.

— 게론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그는 마음을 하느님께 두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이 생에 들어섰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세상의 온갖 일에 매달리거나 안락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곳, 즉 미래의 삶과,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모든 것에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수련하며, 사람은 영적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삶은 거침없는 용기이며, 영적 잔치입니다. 잔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 생활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영적 고귀함과 성부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가장 깊은 의미(수도 생활이 아니라, 삶 전반의)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사소한 트집 잡기와 다툼, 그리고 그 밖의 자아 표현들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신성한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품위를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인간의 영광을 받는 법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그는 모든 것에 기뻐합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삶에 지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갈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 게론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 그는 이 삶이 덧없고, 다른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는 삶에 지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자 삶의 의미임을 깨닫고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불쌍한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애를 씹니다. 학문적으로는 심리학자이지만, 때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다리를 절단당한 사람을 위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 다리로 걸어와서 나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녀가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으로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구로 인해, 불평하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서 쌓아둔 천상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깨달은 그는 기뻐해야 한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네 발로 걷는다 해도, 그는 “하나님, 제가 한 발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삶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면서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35세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런 ‘사회적 위로자’가 찾아갑니다. 그녀는 그 여성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어머니가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녀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며 절망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러 온 심리학자 자신도,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 영적으로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스스로를 영적으로 바로잡지 못하면, 타인에게 신성한 위안이 닿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불쌍한 심리학자들은 육체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며 좌절하기도 한다. 즉, 두 배로 지치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선을 필수로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을 필수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나는 그런 견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심지어 다섯 살짜리 아이도 선을 필수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의 체온이 올랐다고 치자. 부모가 의사를 부르면,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라고 말한 뒤, 쓱! 하고 주사를 놓습니다. 그 후 아이는 의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에 “자, 들어봐. 넌 아파서 열이 나. 학교에도 갈 수 없고 놀 수도 없어. 저기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잖아. 하지만 네가 의사 선생님께 주사를 조금만 맞으면 열이 내리고, 그 후에 너도 놀러 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 준다면, 아이는 곧바로 눈을 감고 스스로 의사 선생님께 주사를 맞으려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조차도 선을 필요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성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깨닫는 순간,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창밖으로 내던지겠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조차도 고층 창문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는 절벽이 무엇이고 평지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해합니다. 성인으로서 성부들의 저술과 복음서를 읽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모르겠어?”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불행히도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걸까요? 예전에도 저는 그랬으니까요...” — “그만 좀 해, 예전에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네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치기 위해 뭘 하고 있니?” 만약 그들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럴 때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젓먹이가 사탕 대신 숯덩어리를 집어드는 일은 없으니까요.

— 게론다,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매우 세심한 분이셨고,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갓난아기 때부터 당신을 엄격하게 키우셨나요?

— 어린 시절부터 사람은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경주를 하면, 저는 그들을 뒤로 남겨두고 앞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저를 쫓아내며 ‘이민자’, ‘난민’이라고 놀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울어?”라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친구들이 나랑 같이 뛰게 안 해줘,”라고 내가 대답했다. “뛰고 싶니? 저기 마당이 있으니 가서 뛰어. 왜 길거리에서 뛰고 싶어? 사람들이 널 보고 ‘잘했어’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또 다른 날에는 공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또다시 나를 쫓아냈다. 나는 또 울면서 엄마에게로 갔다. “무슨 일이야, 왜 또 울고 있니?” — 엄마가 물었다. “친구들이 나랑 공놀이를 안 하게 해!” — 내가 말했다. “우리 마당은 넓고, 공도 있잖아. 여기서 놀아. 뭐, 사람들이 널 보고 감탄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때 나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뛰어다니거나 공을 치고 싶은 마음이 슬슬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다 헛소리야! 엄마 말이 맞아.” 그 후로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공을 치고 그걸 자랑하는 모습을 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 후로 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8월에 맨발로 가시덤불을 밟으며 아픈 산 정상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망토를 두르고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축하 행사에 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맨발로 아픈 산에 오르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겸손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누군가 이 점에서 방치되거나, 부모가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미 고착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낙담하지 않도록 조금 칭찬해 주는 것과, 아이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를 읽다가 말을 더듬어 이제 낙담해 있다. 이를 본 엄마가 아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잘 읽었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가 시를 잘 읽었는데도 엄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와, 정말 잘했구나!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읽었어!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자만심을 심어줍니다. 또는,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선생님이 저를 부당하게 꾸짖으셨어요.”라고 불평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의 편을 들고, 게다가 아이가 있는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 보여줄 거야! 감히 내 아이를...!”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나중에 자신의 말썽을 옳은 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사소한 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아이가 부모의 집에서 이미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체득한다면, 그 후 모든 일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헛된 것, 즉 실제로는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칭찬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헛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세상이 회개하도록 돕자

— 게론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오늘날 세상에 회개가 가르쳐진다면, 오직 그것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을 얻기 위해, 회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성인들의 행적을 가능한 한 많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구하고 더욱 깊이 회개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겸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큰 신성한 은총,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회개 속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간직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선한 존재들이니까요. 보세요, 대다수는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모시지도 않으며, 큰 무지 속에 빠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 게론다, 어쩌면 시련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시련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이들은 하느님을 비난하고, 모독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괴로워한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문제는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회개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렸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폭풍, 폭풍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어 주시기를! 온 세상을 위해 회개를 간구합시다. 교회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고 고칠 의지가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후 더 나은 세상으로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회개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도와주자. 회개와 고해 —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필요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주는 조언은 이렇다: 회개하고 고해하라. 그래야 마귀가 권세를 잃고, 너희는 외부에서 오는 악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고백한다고 합시다. 고해 신부는 그에게 사죄 기도를 읽어 주고, 참회를 명한 뒤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고해 신부는 그에게 악이 단순히 간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도와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고, 두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해 신부들은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 게론다, 선한 사람들이지만 성당에 드물게 다니고, 교회의 성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가끔은 교회에 자주 가지 않더라도 경건함과 선함을 지닌 사람이 있어, 그로 인해 하느님께서 그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머무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교회의 신비로운 삶에 참여했다면, 영적 삶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성당에 다니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며,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겸손과 선함,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자리를 찾지 못하십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성 지도자 앞에서 고해성사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런저런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울부짖다가, 다시 예전의 습관을 반복하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뉘우칠 때,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어나소서, 주여, 잠에서 깨어나소서.*”²⁶¹ 즉,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 주께서 주무시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어나소서... 포도주로 인해 강하고 소란스러우시니, 주의 원수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²⁶²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또 얼마나 대담하게 그들은 외쳤는가? “주님,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리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을 것인가? 우리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마소서!”²⁶³ 하지만 우리도 감히 입을 열어 “주님, 어찌 주님은 주무시며 보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머리에 한 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뻔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과 순수함으로 이 말을 했다. 그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았고, 그분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회개하며 간구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재앙을 받을 만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쳐 주셨다...” 그러나 만약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너희의 기도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어쩔 이러는 거냐?” 그렇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회개는 악이 사라지도록 돕습니다

세상에 회개를 구할 때, 우리 자신도 죄를 지은 자들 중 하나로 여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죄 많은 이 세상아, 도와주소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소년은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며,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들도 죄에 가담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그 시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죄와 무관했음에도 말입니다. 바빌론의 용광

²⁶¹ 시편 43, 24.

²⁶² 시편 77, 65–66.

²⁶³ 참조: 출애굽기 32, 12; 신명기 9, 28; 시편 78, 10.

로 속에서 드린 그들의 기도는 내 가슴을 올린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법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입을 열 수조차 없나이다...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들은 자신들도 죄인 중 하나로 여기며, 입으로 말한 바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광로는 시원해졌으나, 그것을 보러 온 이방인들은 불길에 타버렸습니다.²⁶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명하기 시작한다. “악마가 나를 죄로 몰아넣었다,” 또는 “아담이 잘못했다,” 혹은 “하와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한 ‘전문 신학자’가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하와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 “친애하는 분,”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게 당신이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됩니까? 왜 불쌍한 아담과 고통받는 하와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수세기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 “비록 일흔 번씩 일곱 번 죄를 지어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²⁶⁵ 우리는 수천 번 죄를 짓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아무도 ‘이브’라는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수녀 서원을 할 때 어떤 수련자에게 ‘이브’라고 이름 지어 주거나, 적어도 ‘조이’라고 지어 봅시다.²⁶⁶ 만약 ‘이브’라는 이름이 부담스럽다면 말이죠. 이브를 그렇게 대하는 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녀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자 온 세상의 어머니인데,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주는 사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뱀은 교활했다.”²⁶⁷ 마귀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모든 책임을 이브에게 떠넘기는 모습들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브가 우리를 파멸시켰고,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낙원

²⁶⁴ 단 3, 1-100 참조.

²⁶⁵ 마태복음 18, 22 참조.

²⁶⁶ Ζωή (그리스어) — 생명. 참조: 창세기 3, 20.

²⁶⁷ 창세기 3장 1절 참조.

에서 살고 있을 것이며 —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실수했으니, 몇 세기 동안 지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야말로 말이 좀 달라졌을 텐데!.. 도대체 이 세상은 얼마나 배은망덕한가!..

어쨌든, 회개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회개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네가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은 네 목덜미를 잡아채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분노를 자비로 바꾸시고 네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즉, 말썽꾸러기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이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75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회개했을 때, 제사장을 더럽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나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키르 왕이 등극했다. 하나님께서는 키르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그를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그들에게 돈과 성전 건축을 위한 나무를 주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세워 주었고, 감히 말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자비와 경외심을 나타냈습니다.²⁶⁸ 이 모든 것은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했기 때문입니다.²⁶⁹ 보십시오, 회개가 어떻게 악의 소멸을 촉진하는지!

마카베오서를 꼭 모두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책들은 정말로 강렬한 작품들입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코끼리들로 유대인들을 짓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자들을 지정하고, 처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500마리의 코끼리를 격분하게 만들었으며, 유향 섞인 독한 포도주를 먹인 뒤, 처형을 시작하기 위해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코끼리 책임자가 왕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왕이시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끼리도, 유대인들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 “누가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지시했느냐?” — 왕이 대답합니다. 비명과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²⁷⁰ 왕이 자신이 직접 내린 명령을 잊어버리다니? 이건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게다가 단순히 잊어버린 것

²⁶⁸ 에스라 2서 1, 1 및 그 이후 참조.

²⁶⁹ 에스라상 8장 88–92절 참조.

²⁷⁰ 마카베오 3서 5, 1–35 참조.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후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세상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게론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다양한 국제 연합체들이 과연 도움이 됩니까? 그들이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여러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잡다한 무리’가 모이기도 하죠! 마법사도 있고, 불 숭배자도 있고, 개신교도도 있는— 그렇게 뒤죽박죽이라 눈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싸운다니! 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이 ‘비네그레트’ 같은 혼합물은 악마가 엮어낸 것입니다. 연합체 자체가 최악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 모두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는 주변에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